건축사 536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2013 12
1966년 창간

칼 럼 편집인 칼럼
에 세 이 건축신인상과 건축의 존재가치
좋은 건축, 좋은 음악
특 집 2013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신인건축사 대상 수상자
최재원 건축사

KOREAN ARCHITECTS

beyond the best

금호석유화학

지키는 것이 **기술**이다

흑연으로 가장 쾌적한 온도를 지키는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블랙EPS 에너포르 단면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에너포르

www.kkp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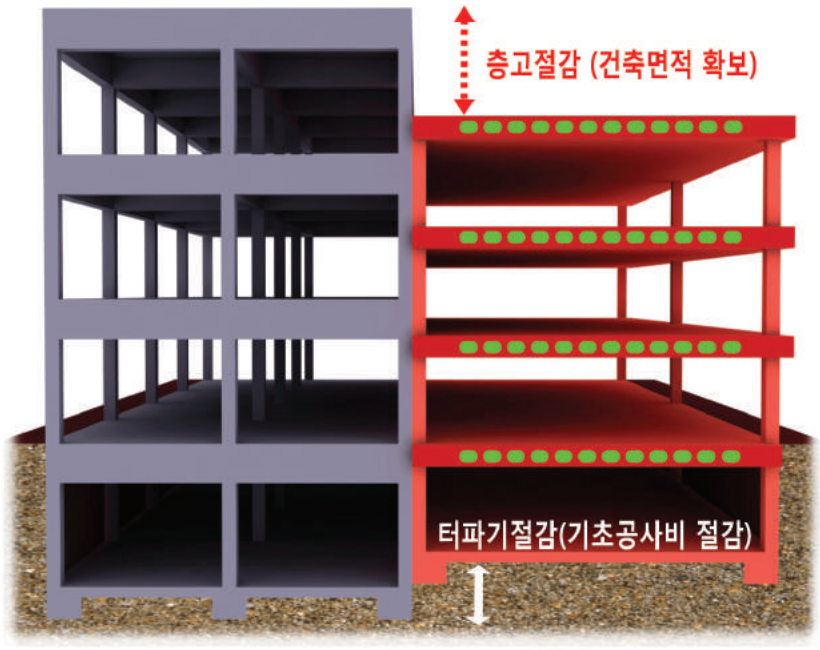
저탄소 녹색성장 공법

건축주의 고민 공사비 절감 !

SLAF® 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10% 감소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 완벽한 시공을 위한 현장시공 기술자문 책임수행

건설 V.E. 공법의 NEW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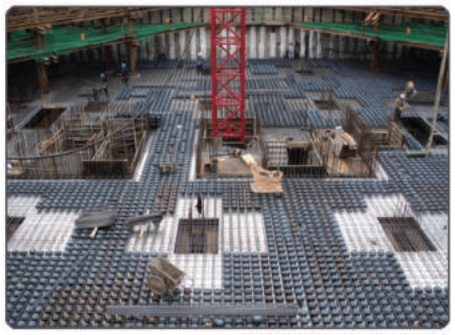
[기존 건물] [SLAF 건물]

Super Light-weight Air-balled Flat plate System

SLAF 공법과 동일한 김포공항청사의 벌집구조

SLAF 공법 적용 후 전경 사진 (무량판 구조 : NO B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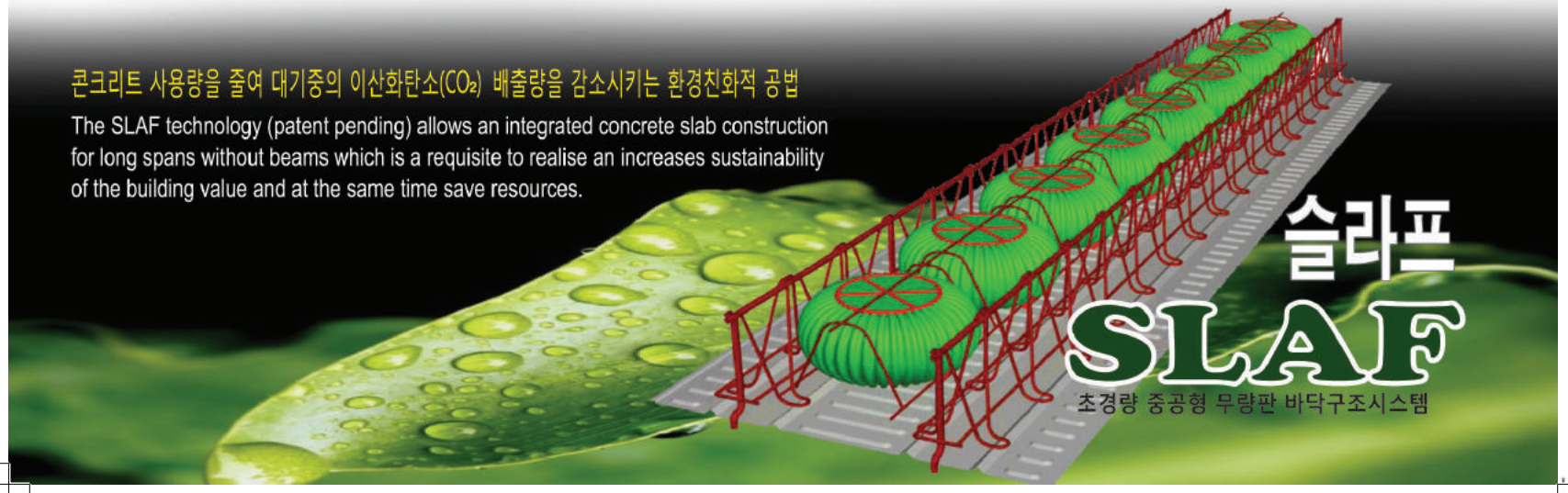
지상층 SLAF 시공 현장사진



지하층 SLAF 시공 현장사진

(주)신화엔지니어링 SHINHWA ENGINEERING CO., LTD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 삼광빌딩 2층 T. 02.3481.3885 M. 010.3745.3885
http://www.sh911.co.kr 건축구조기술사/공학박사/대표이사 조상규

(주)신화엔지니어링은 40년 전통의 구조설계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여 구조계산서, 구조도면작성(세움터 인증 포함)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드립니다.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PL법 영업배상 책임보험 8억 창공주차산업

창공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3길 8, 다동　TEL : 02)333-4448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 2172번지　TEL : 054)973-1900

■ E-mail : sky23487@hanmail.net　■ FAX : 054)973-0067

Technology for tomorrow
동양실리콘주식회사와 만나면,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동양실리콘주식회사와 함께하는 생활공간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동양실리콘주식회사는 고객의 변함없는 신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친환경 건축용 산업용 실리콘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수준의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고객서비스 및 품질관리로
세계 1등 품질의 건축용 산업용 실리콘을 생산 공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양실리콘주식회사와 함께 하십시요.

KG 東洋실리콘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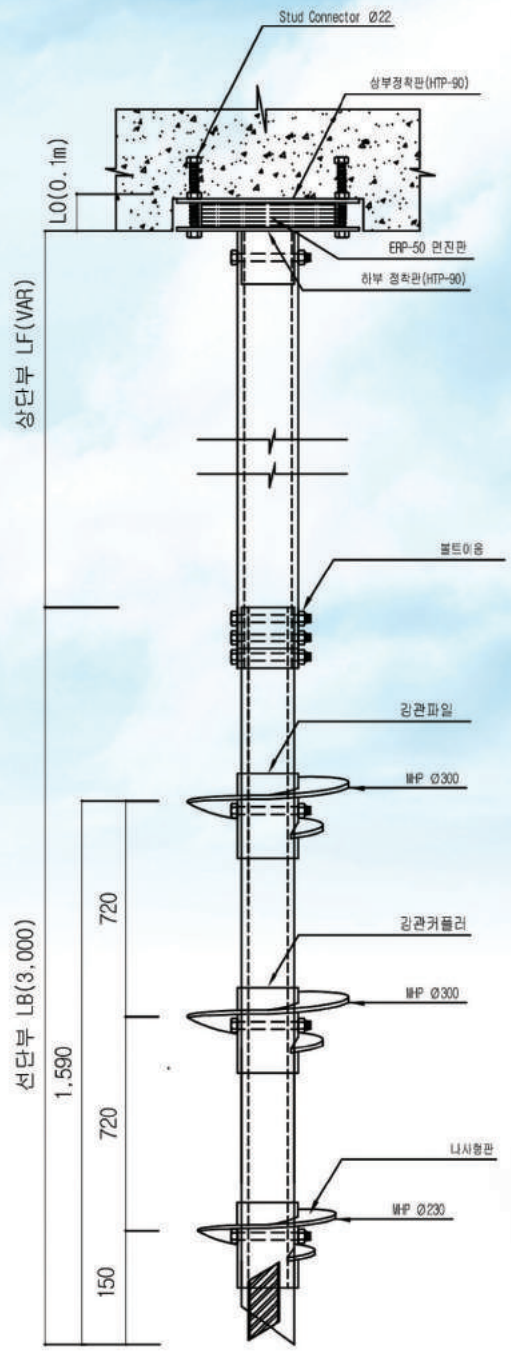
ISO 9001/14001 인증업체

http//WWW.dysilicone.com 대표전화 : 02)350-0000 FAX : 02)303-4777

METRO T&C
METRO TOTAL CONSTRUCTION

나선형강관파일

www.metrotnc.co.kr



▶ 공법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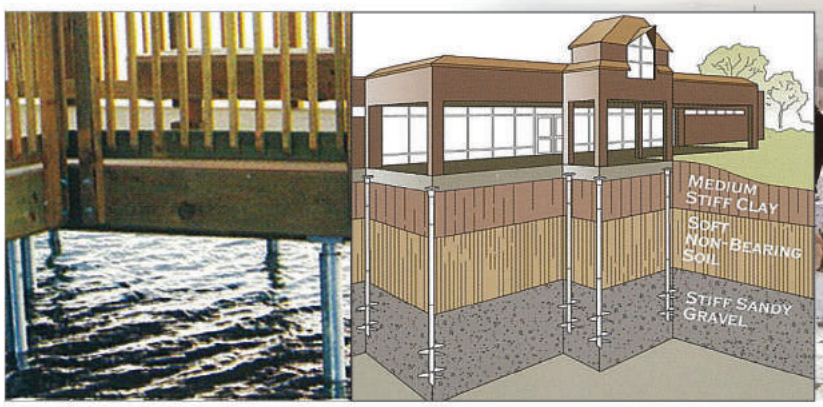
나선형강관파일(MHP공법)은 건축물의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파일기초로서 고강도 특수강관 하부에 나선형판을 장착하여, 특수장비로 회전시켜 설계깊이까지 박은 후 파일주변을 그라우팅하는 형식으로 연약지반에서 지지력을 높일 수 있는 기초파일공법이다.
그리고 내진성능이 요구되는 건축물에는 나선형강관파일 기초상부에 면진장치를 장착하여 건축물의 지진 대응력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다.

▶ 공법의 특징

1. **내진성능**
   기초 상부에 면진장치가 부착되어 내진성능이 우수하다.
2. **안정성**
   나선형강관파일을 회전 관입하고 2차로 기초파일 주변을 그라우팅하여 마찰 지지력이 높게 형성된다.
3. **공기단축**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기간이 단축된다.
4. **친환경적**
   무소음, 무진동으로 비토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5. **시공성**
   수중 및 경사지에서 다양한 각도로 파일시공이 가능하다.
6. **경제성**
   공장제작으로 시공이 간편하여 공사비가 경제적이다.

▶ 공법의 적용

1. 건물신축 기초파일
2. 공장 및 플랜트시설 기초파일
3. 해양구조물 기초파일
4. 기울어진 건물 복원 기초보강
5. 옹벽, 흙막이 구조물 앵커파일



메트로 T&C
건축물 내진구조보강 벤처기업

건축물내진보강 벤처기업 www.metrotnc.co.kr E-mail : metrotnc@nav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가드파이브웍스동 A-610호 TEL : 02)402-9395 FAX : 02)402-9396

www.wilmat.kr

건축물 유지보수의 새로운 솔루션
고품격 신개념 출입구 시스템매팅
윌매트

Wilmat
Enterance Matting System

윌매트(Wilmat) 매립형 신개념 출입구 매트로써 외부의 오염물들이 건물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며, 건물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고품격 출입구 매트 시스템.
윌매트는 국내생산제품이며 어떤 현장이라도 고객이 요청하시는 규격대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유지보수의 새로운 솔루션!
윌매트가 바로 정답입니다.

귀하가 요청하시는 현장에 맞게 주문제작 가능한 매립형 시스템출입구매트. 유럽형 신개념 출입구매트의 기능성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건물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윌매트의 가치는 눈으로만 느끼기에도 충분합니다.
최적의 솔루션으로 귀하의 자산을 소중하게 지켜드립니다.

김해공항 국내선

인천공항

ECOSYS (주)에코시스/윌매트 |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544-2 Tel : 02-786-7115 Fax : 02-784-2011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2중단열 방수 | 천정 결로방지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트라이슈머®의 에너지효율 및 내열성능 시험결과

에너지효율은 높이고 냉·난방비는 낮추고

1. 여름철에는 전기료 절감 30~40%
2.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 15~20%
3. 옥상정원을 했을 때와 같은 단열효과를 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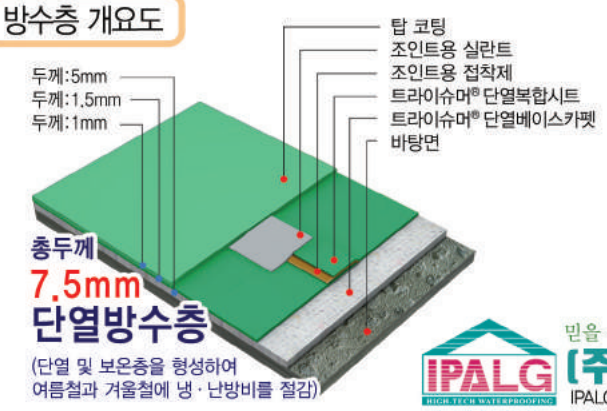
여름철 실내온도 3~5℃ ↓ 전기료 30~40% ↓ 냉방비 절감

겨울철 실내온도 3~5℃ ↑ 난방비 15~20% ↓ 난방비 절감

내열성능 시험결과

시료명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개량형 아스팔트시트
열에 의해 변형이 된 길이 (200mm 기준)	0.1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5 개량형 아스팔트시트 (흘러내림길이(mm))
결과 이미지	변형이 거의 없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시트에 주름이 발생하거나 파단됩니다.
시험방법	가로와 세로길이가 각각 200mm가 되는 시편을 80도에 일정시간이 지난 후 열변화에 따른 길이변화와 겉모양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시험기준	KS F4917: 2007	
시험기관	한국 건자재시험 연구원	

방수층 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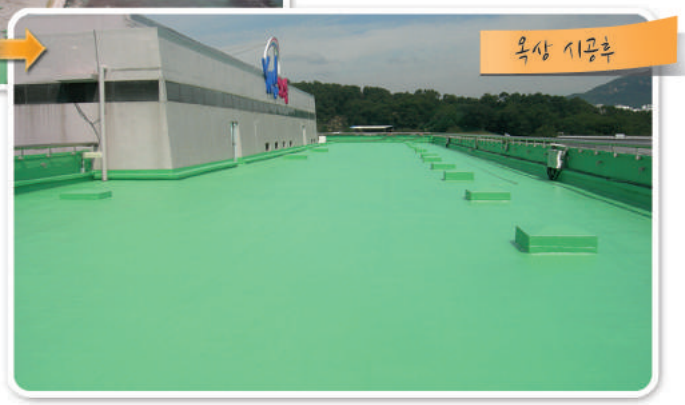


총두께 **7.5mm** 단열방수층

(단열 및 보온층을 형성하여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비를 절감)

시공사례모음

옥상 시공전


옥상 시공후

수영장 시공전

수영장 시공중

수영장 시공후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공법 • 신뢰받는 회사 –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TOTAL & HIGH-TECH WATERPROOFING CO., LTD.

스마트폰으로 QRcode를 스캔해보세요

www.ipalg.co.kr

이파엘지.kr

본 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327번길 52 Tel : 032) 471-6020 FAX : 032) 467-1904

www.sypane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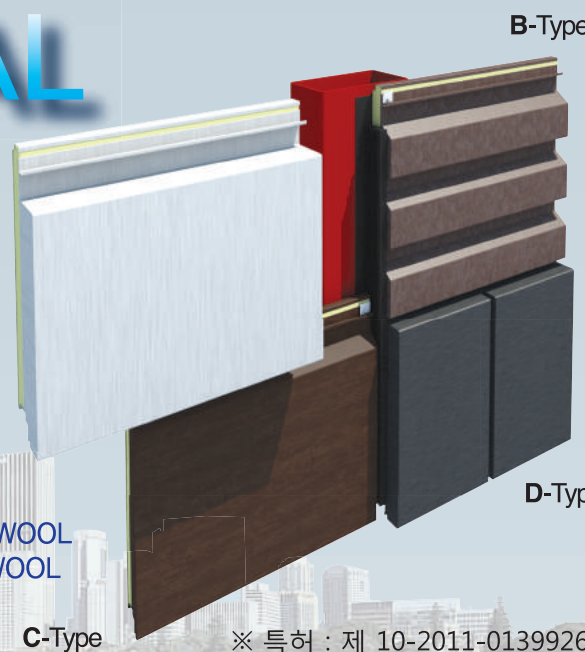
설계부터 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

조립식 패널 전문 설계팀의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벗어난 신개념 메탈패널

CUBE METAL

큐브 메탈패널은 서로 다른특징을 가진 4종의 타입이 기능적인 조인트 설계로 상호 조합되어 건물의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 줄눈디자인
  다양한 너비와 깊이
  독특한 경사형 디자인
  자유로운 세로줄눈 간격

- 기능성
  타입별, 두께별 상호결합
  다양한 단열재
  누수방지 결합구조

- PIR
- GLASSWOOL
- ROCKW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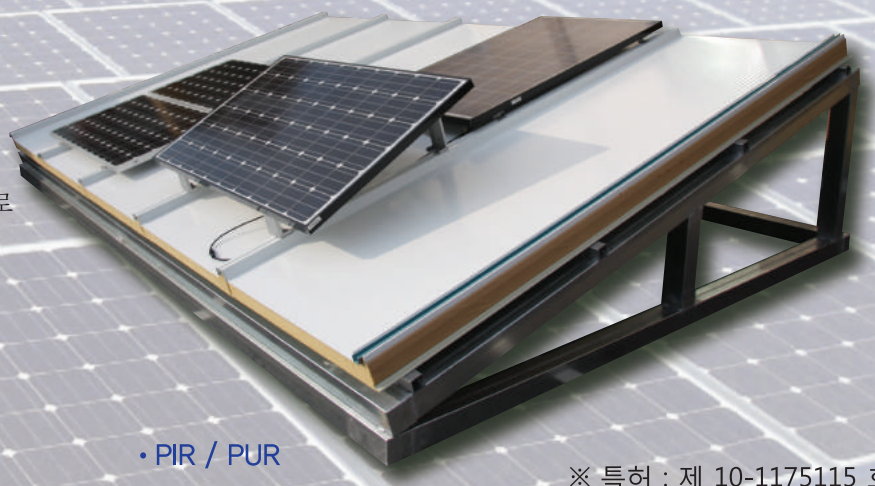
※ 특허 : 제 10-2011-0139926 호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발전용 패널

SOLAR Roof

솔라루프는 태양광 발전 모듈을 패널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되어 부자재가 필요 없는 지붕일체형 태양광 발전용 패널입니다.

- 누수방지
  볼트리스타입으로 모세관현상 방지 및 깔끔한 외관
- 시공성
  기존 태양광 모듈 설치의 중복공사 감소로 인한 자재비 절감효과
- 경제성
  뛰어난 단열 및 전력생산의 경제적 효과
- 확장성
  일반지붕형 외에 경사형, 외벽형의 다양한 설치 시스템



- PIR / PUR

※ 특허 : 제 10-1175115 호

에스와이패널(주)

설계영업부(기술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46-13 효제빌딩 301호
TEL. 02) 501-8480 / FAX. 070-7500-0775
본 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1121-4 리치타워 7층 Tel. 031) 222-4028~9 / Fax. 031) 221-5458

21세기
첨단 시스템 도어
JUNGWOO safedoor

ISO 9001/2000 인증제품

JUNGWOO safedoor

특허 신제품

정우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

정우 스텐레스 단열 세이프(강화)도어/정우 세이프(강화)도어

견고한 제작,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 냉, 난방비 대폭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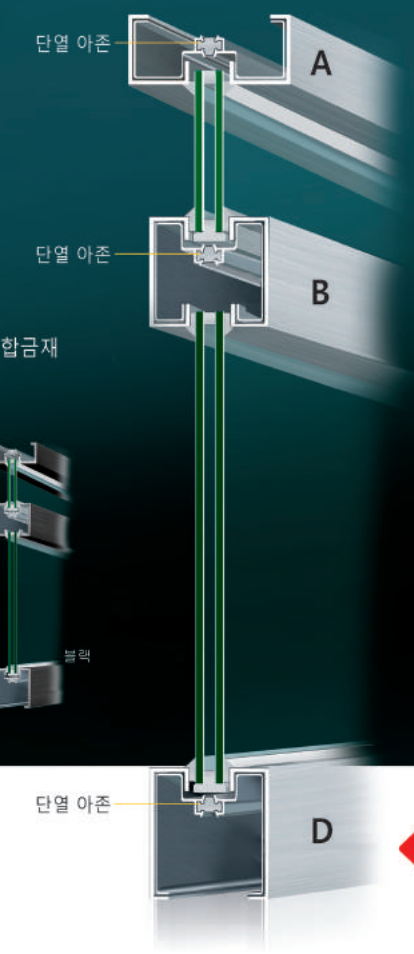
(주) 정우산업만의 노·하우로 제작되는
전 제품은 보이지 않는 곳 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의 장점

- 아존을 충전하여 내, 외부의 온도를 차단하여 줍니다.
-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으로 냉, 난방비를 대폭 절감해 줍니다.
- 스텐레스 내부 보강재는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 연결부 틈새에 결로 또는 부식에 의한 녹물 흐름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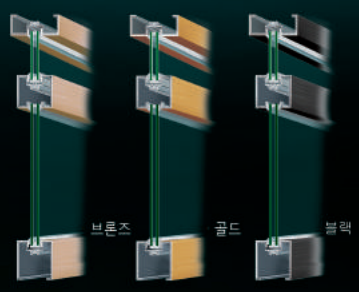
색상선택이 자유롭 습니다.
• 스텐 • 골드 • 브론즈 • 헤어라인 • 밀러 • 갈바 불소코팅

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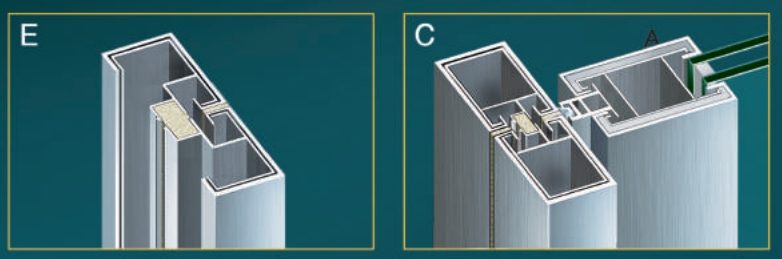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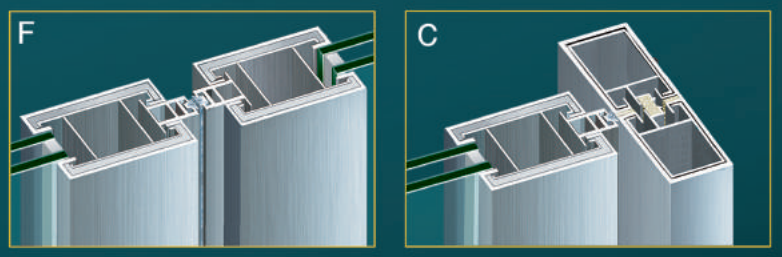
재질/한국산업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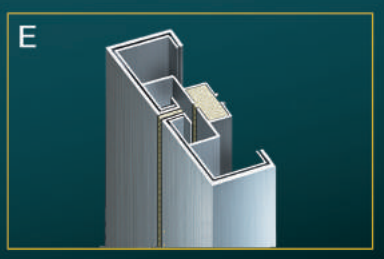
- K.S D 6759, 6063, 알미늄 합금재
- K.S D 3098 스텐레스
- K.S L 2002 강화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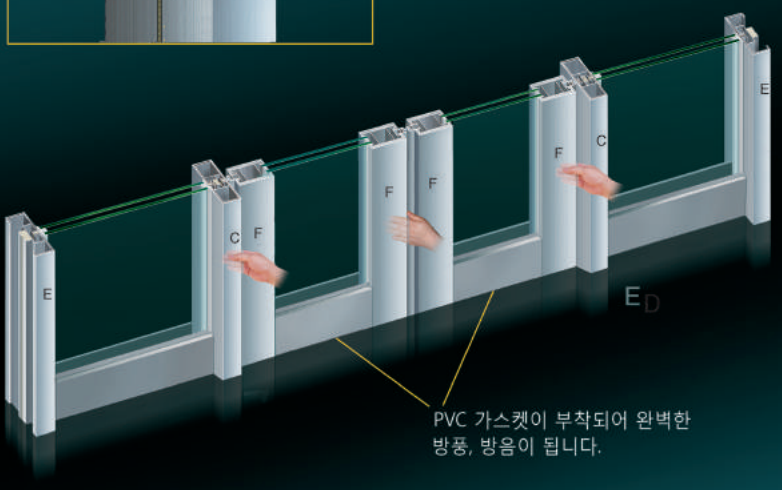


단면 상세도









PVC 가스켓이 부착되어 완벽한
방풍, 방음이 됩니다.

▶ 가격표 :
월간 물가 자료집 586p 참조
(2011년 10월 부터)

어린이「손」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

(주) 정 우 산 업

www.safedoor.co.kr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30-8
TEL : (053)325-9800/325-9801~2
FAX : (053)325-9802
E-mail:jungwoo9800@hanmail.net

• 전국 영업망 구축 •

brother
at your side

편견을 버리면 새로워집니다.

변화의 새로움을 브라더가 시작합니다. 전혀 새로운 형태의 가로 출력시스템으로
더욱 빠르고 향상된 품질의 프린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최대 20/18ipm (흑백/컬러)의 초고속 인쇄
- 초대용량 잉크카트리지로 유지비 절감
- 클라우드서비스 지원
- 유무선 네트워크
- 자동양면인쇄
- 3.7" 슬라이드 터치 LCD 디스플레이

MFC-J2510 InkBenefit

인쇄 속도	고 속 모 드: 최대 흑백 35ppm, 컬러 27ppm 레이저대비: 최대 흑백 20ipm, 컬러 18ipm
복사 속도	흑백 12ipm, 컬러 9ipm
팩스 모뎀 속도	33.6kbps
스캔 해상도	최대 2,400 x 2,400dpi(광학), 19,200x19,200dpi(확장)

MFC-J2510 InkBenefit

디자인 어워드 2013 금상 수상기념!

1+5FREE

브라더 가로출력 복합기 1대 사면
산돌팬시폰트 5개가 무료!

9,900원 잉크 LC565 CMY 1,200매

13,200원 잉크 LC567 K 1,200매

MFC-J2510 InkBenefit 정품잉크 EVENT

MFC-J2510 InkBenefit + 정품잉크 + 산돌 유료 서체 이용권 + 무상A/S 1년 추가 연장

산돌 서체 EVENT

산돌서체 6개월 무료

산돌서체 3개월 무료
(첫번째 구매)

산돌서체 3개월 추가(무료)
(두번째 구매)

총 1년 산돌서체 이용권
(6개월 + 3개월 + 3개월)

무상 A/S 추가 EVENT

A/S추가 1년
(4개월 + 4개월 + 4개월)

무상 A/S 4개월 추가
(다섯번째 구매)

무상 A/S 4개월 추가
(네번째 구매)

무상 A/S 4개월 추가
(세번째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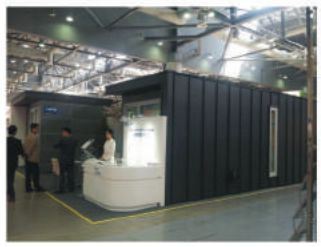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브라더 홈페이지 **www.brother-korea.com** 접속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1577-3340

EURO-ZINC PANEL

다양한 외관창출과 징크패널의 업그레이드 제품 신소재 준 불연 단열재 시스템패널

기존 패널의 단조로운 색상과 형상에서 벗어난 샌드위치패널의 최종 집대성 된 패널입니다.
준 불연 단열재를 사용하여 현존하는 샌드위치 패널의 장점만을 극대화한 21세기형 최첨단 친환경 패널입니다.
지붕과 벽을 혼용할 수 있는 파형으로 다양한 디자인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FREE-METAL PANEL

서진공영의 프리메탈패널은 준 불연재이며 고품격 디자인을 바탕으로 비용절감과 코너마감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시공상의 우수성과 강도로, 반영구적인 제품으로, 여러가지 장점과 특징으로, 서진공영만의 프리메탈패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립식 건축문화의 신창조자
서진공영주식회사

본사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203-1번지
공장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32-1번지
TEL. 032-563-0020 FAX. 032-563-8813
www.i-seojin.co.kr / www.i-seojin.kr

KOREAN ARCHITECTS

건축사

www.KIRA.or.kr
2013 December 12

COVER STORY

사진_김창길(삼정환경 건축사사무소)

표지사진 :
최재원 건축사
㈜디자인그룹오즈 건축사사무소

발 행 인 김영수
편집인 겸 편집국장 김형수
취 재 · 편 집 최락청, 손석원, 장영호, 백상월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137-877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전 화 대표 02_3415_6800
팩 시 밀 리 02_3415_6850
인 터 넷 www.kira.or.kr
디 자 인 · 인 쇄 화신문화(주) 02_2277_0624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02_3415_6862~4

Publisher Kim, Young-soo
Editor Kim, Hyung-soo
Reporter Choi, Rak-chung / Sohn, Suk-won
Jang, Yeong-ho / Baik, Sang-worl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50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017 편집인 칼럼 COLUMN
편집인 칼럼
Editor's Column

018 에세이 ESSAY
건축신인상과 건축의 존재가치
Rookie of the year, Architectural Award and Existence Value of Architecture
_이재훈

좋은 건축, 좋은 음악
Good Architecture, Good Music
_김순배

022 여행스케치 TRAVEL SKETCH
_이관직

023 만평 CARTOON
_김낙중

025 특집화보 SPECIAL PICTORIAL
제5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화보
The 5th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026 특집 SPECIAL ISSUE
2013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특집
Korean Rising Architect Award 2013

Contents 536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3년 12월호

053 책 속을 거닐다 Walking Through the Forest of Books
우리들은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배울까?
What should we think and learn today?
_김수경

054 회원작품 WORKS
오렌지나인
ORANGE 9
_오종수_KIRA | ㈜앤드 건축사사무소

판교 엠타워
PANGYO M-TOWER
_우순곤, 서승권_KIRA | ㈜정안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당진경제종합지원센터(당진상공회의소)
DANGJIN-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_박영준_KIRA | 건축사사무소 나무

070 설계경기 COMPETITION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THE EXPERIENCE CENTER OF WOOD CULTURE FOR RED OREUM

076 연애편지를 읽다-여섯번째이야기 READING LOVE LETTER
나의 귀여운, 나의 기쁨의 샘 가장 아름다운 나의 아내
My adorable, beautiful wife who is fountain of happiness
_정이숙

078 건축과 법률이야기 THE STORY OF ARCHITECTURE AND LAW
인근 주민의 통행로가 막히게 됨을 이유로
행정청이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을까?
Can administrative office reject Architectural acceptance of a report cause of block off neighborhood residents passage?
_박시준

080 연재 Ⅰ SERIAL Ⅰ / 통일 후 한국건축을 전망한다 ③ (完)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의 발전
The Development of Network Economy between Seoul and Pyongyang
_민경태

086 연재 Ⅱ SERIAL Ⅱ / 근대건축사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⑫
식민지배체제의 구축과 도시 그리고 건축의 변화
Architecture and Urbanism in Building the Colonial Regime in Korea
_안창모

091 건축마당 ARCHITECT'S PLAZA
협회소식 Kira News
건축계소식 Archi-Net
해외건축동향 _김은미 Overseas News Review
통계 Statistics

편집인 칼럼
Editor's Column

2013년을 보내며…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건축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최근 공간사옥이 아라리오 갤러리에게 매각되어 미술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뉴스는 공간사옥 문제를 가슴 졸이며 지켜본 건축과 문화계 인사들의 가슴을 쓸어 내리게 만든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 4월, 서울시가 공공 건축물 발주를 가격 입찰에서 디자인 공모로 전환하겠다는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이나,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설계 용역대가 기준 개정, 6월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공포, 8월의 국토교통부의 건축설계 육성방안 실행 TF팀 발족과 서울시의 서울건축선언 등은 건축계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밝은 뉴스였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또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3월에는 제30대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 체제가 출범하였고, 11월에는 회장 직선제를 위한 정관 등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어 공지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제1회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을 제정하여 신인건축사 발굴에 발전적인 토대를 놓은 일이나, 5회를 맞은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 건축사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건축사』지도 새 회장 체제에 발맞추어 지난 4월 새로운 편집국장과 편집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건축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물론 나아가 많은 국민들에게 건축사의 역할과 의미를 각인시키는 사명을 다하고자 새로운 시도를 했던 한 해였습니다.
표지디자인은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화제의 건축사를 표지인물로 선정하여 만든, 인물 중심의 표지디자인은 건축사라는 제호에 걸맞는 신선한 시도라고 자평합니다.
기획 특집을 대폭 강화하여 여성건축사 대담, 45세 이하 건축사 대담 등 특집 대담을 진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업계 최초로 지역 특집을 마련하여 호남편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특집은 영남, 제주, 충청, 서울 등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계각층의 외부 필진으로 시론의 다양성을 꾀했고, '연애편지를 읽다', '책 속을 거닐다' 등의 칼럼을 새로 연재하기 시작했으며, 통일 후를 전망하는 특집 기고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일도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데, 12월호는 2013 신인건축사대상 특집으로 첫 회 수상자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건축사』지가 지난 1년 무사히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건축사 회원들과 독자들의 한결 같은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움 속에 저물어 가는 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더욱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이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멋진 송구영신을 기원합니다.

ESSAY

건축신인상과 건축의 존재가치

Rookie of the year, Architectural Award and Existence Value of Architecture

이재훈 | Lee, Jae-hoon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983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건축공간구성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였으며, MIT 건축학과 Visiting Scholar를 하였고, "건축공간분석비평-있을만한 곳에 있는가?"를 저술하였다. 그리고 2003년 건축사지에 공간클럽, '공간은 하나인가요?'를 1년간 연재하였다. 미래주거연구, 건강주거연구, 초고층건축물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대한건축학회의 어린이 건축창의교실의 총괄튜터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 현재 단국대학교 건축대학장과 (사)한국건축설계교수회 회장을 맡고 있다.

담담하였다. 늦여름의 밤하늘은 총명했으며 바람은 약간 서늘하였다. 건축사 류춘수 씨의 봉화 별장주택에 도착한 것은 어스름한 저녁 무렵이었다. 물이 흐르는 태백산 줄기사이의 골짜기로 깊숙이 들어가 소박하게 위치한 시골주택에 도착하였다. 계곡을 따라 평행하게 일자형으로 놓여 있었다. 집 바로 앞에는 개울, 건너편에는 다른 산줄기가 웅장하게 앞을 막고 있었다. 산속에 폭 감싸인 느낌이다. 멀리서 보이는 조그만 건물도 초라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저 작은 건물이 산 밑에 아담히 놓인 듯 하였다.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심사 위원장인 류춘수 씨와 심사를 맡은 필자, 이성엽, 이아희, 김창길 심사위원들이 풍기에 위치한 작품심사를 위해 오는 길에 류춘수 씨의 제안으로 당신의 별장에 숙박을 하게 된 것이다.

일자형의 주택은 한옥의 일자형과 매우 유사하였다. 전면의 작은 툇마루에서 직접 건물 안으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가 한옥의 느낌을 더 크게 하였다. 류춘수 씨의 설명이 이어졌다. "한옥에는 현관이 없다." 많이 들어온 얘기지만 그날따라 쨍하는 느낌이었다. 현관은 한자 뜻으로 어두운 입문의 장소를 말한다. 밝은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변화의 장소이다. 그런데 한옥에는 그러한 곳이 없단다. 모든 곳에서 밖과 출입이 가능하다. 밖과 안을 구별하는 현관이라는 장소가 없는 것이다. 실제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서 느꼈던 한옥의 모습을 상상해보니, 똑같다. 안방에서, 건넌방에서 마루에서 모두 툇마루를 통해 문만 열면 밖으로 통한다. 바깥세상과 집이 항상 통한다. 뻔한듯하지만 현대식 주택과 엄청난 차이를 갖는 매우 훌륭한 경험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건물은 출입구가 지정되어 있다. 관리라는 명분으로, 동선의 명확성이라는 이유로 출입구라는 인식적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곳의 조그만 주택에서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눈에 보이는 바로 앞의 큰 산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그리하여 자연 속에 내가 있는 듯 일체감을 주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항상 가져왔던 건물의 가치임을 다시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존재적 장소로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공간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류춘수 씨의 주택자랑은 이어졌다. 개울로 안내하며 자연석으로 만들어진 웅덩이를 가리키며 옥외 욕조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딱 누우면 욕조처럼 편안할 것 같은 사이즈다. 하늘을 보고, 주변은 나무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물은 상류로부터 계속 흘러들어오며, 그저 욕조에 편안히 누워 흥얼거리기 딱 좋은 모습이다. 우리가 실제 목욕탕의 욕조를 설계하며, 자연속의 바위로 만들어진 욕조를 상상하지 못하였으리라, 류춘수 씨의 설명은 심오한 의미를 갖는다. 건물이 제공할 수 있는 현대적 사물들의 근본적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였다. 예를 든 것은 비록 욕조였지만, 우리가 짓는 건물은 과연 어떤 사물의 의미를 갖는 것일까? 그저 현대적 추세에 따라 유행처럼 이곳저곳 손대며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닌가? 사진발을 받는다고, 재료가 근사해 보인다고, 또는 조금은 심한 얘기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건축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축적 규율을 집행하며 건물을 가혹하게 해온 것은 아닌가? 그저 욕조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며 즐겁게 목욕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건 아닌가?

그가 설계한 봉화의 소박한 일자형 주택은 건축신인상을 심사하는 우리들에게 평가

나는 젊은 건축사들에게 과감하게 외치고 싶다.
"젊은 건축사들이여, 그대들이 느끼는 건축, 느낌으로 나오는 건축을 하라",
오히려 젊은 날의 작은 경험들에서
그대들의 존재적 가치가 빛을 발할 것이다.

류춘수 건축사의 집

류춘수 건축사의 집

명동 거리

의 기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좋은 기회였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류춘수 씨의 봉화주택에 들러 그의 설명을 들으며 남들이 보기에 별거 없어 보이게 존재하는 소박한 그의 주택의 가치를 체험해 보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자연 속에 들어와 새로움을 발견하듯, 젊은 날의 캠핑과 같은 늦 여름밤의 추억을 뒤로 하고 심사는 시작되었다. 지역을 돌며 작품을 답사하였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건물이었다. 봉화주택에서 느꼈던 삶의 현장이 아니었다. 프로그램이었다. 자연스러움이 아니었다. 재료였다. 장면이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속세를 벗어나 산속의 한적한 곳에서 자연을 즐기며, 자연 속에 파묻혀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소박한 꿈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인식되는 세상의 어구들이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 사회적 활동을 하며, 도시라는 특수한 집단적 특성을 만들어내고 살고 있다. 자연으로부터 벗어나 인위적인 삶을 구가하다보니, 개인의 숨겨진 삶의 가치가 타인과 아직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할지 낯설다. 어떤 사회적 가치관으로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유하며 사회, 아니 도시를 만들어갈지 방황을 하고 있다. 그저 외국에서 본대로, 인식된 시각에서, 남들이 하는 대로 흘러가는 경향을 보인다. 건축 활동이 그렇고, 도시 활동이 그렇다. 남들이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사회적 관계속의 건축물들, 그것이 우리의 도시적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다. 원래 도시의 존재론적 모습이 무엇인지 모른채…. 그러나 자연의 부분으로서 자연을 느끼며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론적 삶이나 도시 속에서 인식론적 사회적 관계를 이루며 사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 다르겠지만, 나는 건축이 시인으로서 현대인에게 삶의 존재적 원천를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
심사 대상이 된 많은 작품들은 기성 건축사들의 아류라는 생각을 느끼게 하였다. 이 도시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들도 이 도시를 유지하며,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할 배경을 만들려고 하였다. 프로그램이 그러했으며, 재료가 그러하였고, 공간의 구성이 그러하였다. 우리의 도시, 우리의 건축이 존재론적으로 위치해야할 미래의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적었다.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런 고민을 하게 하지 못하는 풍토와 사회적 무관심의 결과라는 생각이다.
류춘수 씨의 봉화주택은 원로 건축사의 건축에 대한 시적 발성이다. 당신의 오랜 경험을 통해, 건축이 가져야할 가치가 남들과 같이 군집된 비슷한 유형의 사회적 모델이 아니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형태의 존재 의미를 찾아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삶의 원초적 속성을 찾기 보다는 비슷한 랭귀지로 아류를 형성하며 서로 위안 받는 것에 익숙한 사회적 속성 속에서는 개성이라는 존재를 드러내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젊은 건축사들에게 과감하게 외치고 싶다. "젊은 건축사들이여, 그대들이 느끼는 건축, 느낌으로 나오는 건축을 하라", 오히려 젊은 날의 작은 경험들에서 그대들의 존재적 가치가 빛을 발할 것이다.

ESSAY

좋은 건축, 좋은 음악

Good Architecture, Good Music

김순배 | Kim, Soon Bae
피아니스트, 음악칼럼니스트

건축과 음악은 여러 모로 닮았다. 닮은 점을 떠올리다 보면 마치 한 피를 나눈 형제 같다는 생각까지도 든다. 하모니, 리듬, 구조(structure) 또 디테일과 전체 등은 모두 음악과 건축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음악과 건축은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이후 곧바로 삶의 현장에 합류했다. 건축은 생활의 영위를 위한 필요의 측면이 강하고, 음악은 본능적 표현의 충족을 위한 방식이었기는 하다. 무엇보다도 두 분야는 '구조'라는 최대의 공통분모를 가진다. 즉 '일정한 설계에 따라 여러 가지 재료를 얽어서 만든' 구조물이 건축이고 음악이다. 그런 면에서 '날림공사'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도 두 분야의 공통점이다.

음악은 창작과 그것의 재현 즉 연주라는 이원적 차원으로 이루어지지만 두 작업 모두에 걸쳐 '날림'은 언제라도 출현한다. 음악과 건축은 또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스타일을 달리한다. 미술이나 문학 같은 장르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만 건축과 음악은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인 변천의 모델이다. 둘 다 당대에 진행되는 급진적 기법은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닮았다. 지나치게 '최신식'인 건물이나 음악을 사람들은 그다지 편안해하지 않는다.

구조를 얘기할 때 전체적인 큰 구도와 그것을 채우는 디테일에 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건축에 있어서도 하부구조를 담당하는 기본 골조나 큰 단위로 나아가기 전의 자잘한 구성자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음악이나 건축이나 사실 사용하는 재료의 측면에서는 '이미 있는 것들'이 제공하는 범주를 넘기는 힘들다. 신소재의 개발이나 창의적 실험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아방가르드적 천재들이 아니고서는 대략 안전한 쪽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각각의 기본재료가 제대로 된 양질의 것, 예컨대 질 좋고 단단한 벽돌 한 장이나 음표 하나하나의 명확한 자리매김(연주자 입장에서는 각 구성음에 대한 완벽한 사전준비) 등이 전체의 밑바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작곡가는 베토벤이다. 그가 유명한 '운명 교향곡'의 주제 '딴딴딴따–'의 네 음 모티브를 확정하기 전에 행했던 무수한 퇴고의 흔적을 보면 건물의 기초가 되는 기본 재료 선정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건축사가 연상된다. 그러나 훌륭한 기본재료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배치되는 과정의 중요성은 그에 못지않다.

벽과 바닥과 천정이 만나는 지점의 균형과 아름다움은 음악에서 자연스러운 프레이즈들의 연결 상태로 비유해 볼 수 있다. 재료들의 유기적 흐름과 결합은 얼마나 중요한가! 전체적 연결의 타당성을 보는 '거시적 시각'은 건축에서도 그렇지만 연주의 완성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이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연주자들이 적지 않은 까닭이다.

건축은 현장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체의 도면을 먼저 제작한다. 연주자들이 건축사들로부터 벤치마킹 해야 할 부분이다. 만일 전체 도면을 참조해가며 작업하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최고급 자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결과물은 처음 의도와는 사뭇 다른 것으로 나올 위험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South Carolina에서 음악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현대 피아노 작품들의 국내 초연을 비롯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연주회평, 음반평, 음악 관련 아티클 등을 쓰는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한민대학교 교수, USC 방문교수, 불가리아 바르나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 초청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세대 피아노 페다고지 대학원 겸임교수와 한국피아노연주와 교수법협회(k3pa)대표로 재임중이다. 저서로는 에세이집 〈클래식을 좋아하세요?〉가 있다.
〈웹주소 : http://piano21c.net
· http ://k3pa.co.kr〉

지금까지의 얘기들이 너무 '철학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겠다.
하지만 음악도 건축도 모두 철학이 아니던가?
'영혼 없는' 연주를 듣고 내심 실망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축사의 정신(spirit)이 깃들지 않은 건물은 오래도록 살아남기
힘들다는 사실에도 동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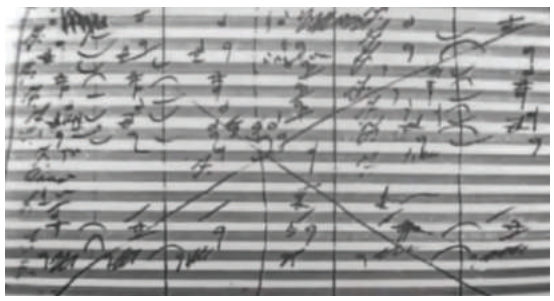
있다. 다행인 것은 '리노베이션'이 두 분야에서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다. 건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새로운 컨셉과 재질로 보수한다든가 때로는 구조자체도 과감히 변경하는 일련의 작업들처럼 작곡자의 입장에서 한 작품을 개보수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연주자도 작품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수록 이전보다 나은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시도하는 것이 정상이다.

음악과 건축의 상관관계에 대해 생각할 때 반드시 떠오르는 작곡가와 작품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그가 건반악기를 위해 작곡한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다. 주제가 나온 후 30개의 각기 다른 변주곡으로 이어지는 이 곡은 30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큰 규모의 건축물과 흡사하다. 건물주는 물론 바흐다. 그런데 그는 매우 관대한 집주인이다.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열려 있는 집이다.
자유롭게 들어가서 그 안의 기둥과 벽 그리고 창문과 바닥을 보고 만지는 만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나아가서 맘에 드는 재질로 그 집의 느낌을 바꾸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없이 열려 있다. 집주인은 그런 방문자들의 자유의지에 그다지 개의치 않는 눈치이다.
탄탄하게 설계된 불멸의 집은 뼈대만 흔들리지 않으면 벽지나 대리석의 질감이나 색감을 좀 바꾼다고 해도 큰 일 아니라는 것이다. 이 집은 새롭거나 맘에 드는 소재로 리노베이션 해도 괜찮다. 워낙 튼튼히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본질이 흔들릴 염려는 없다. 원래 피아노와 같은 건반악기를 위해 만들어진 이 작품은 그래서 수십 종에 이르는 변종 버전을 자랑한다.
현악사중주, 오케스트라, 금관앙상블, 아코디언, 하프시코드, 오르간 등 다양한 매체가 '골드베르크'를 연주한다. 음악사상 이렇게 자유로운 작품은 또 없다.
연주자에 따라 연주시간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즉 어떤 방에서 좀 더 오래 머물 것인가는 연주자 개개인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그런 의미에서도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무한히 열려 있는 음악적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얘기들이 너무 '철학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겠다. 하지만 음악도 건축도 모두 철학이 아니던가? '영혼 없는' 연주를 듣고 내심 실망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축사의 정신(spirit)이 깃들지 않은 건물은 오래도록 살아남기 힘들다는 사실에도 동의할 것이다.
음악과 건축은 닮아도 너무 닮았다. 그래서 좋은 음악, 좋은 건축이 사람에게 끼치는 임팩트는 지대한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건축 그리고 음악, 두 분야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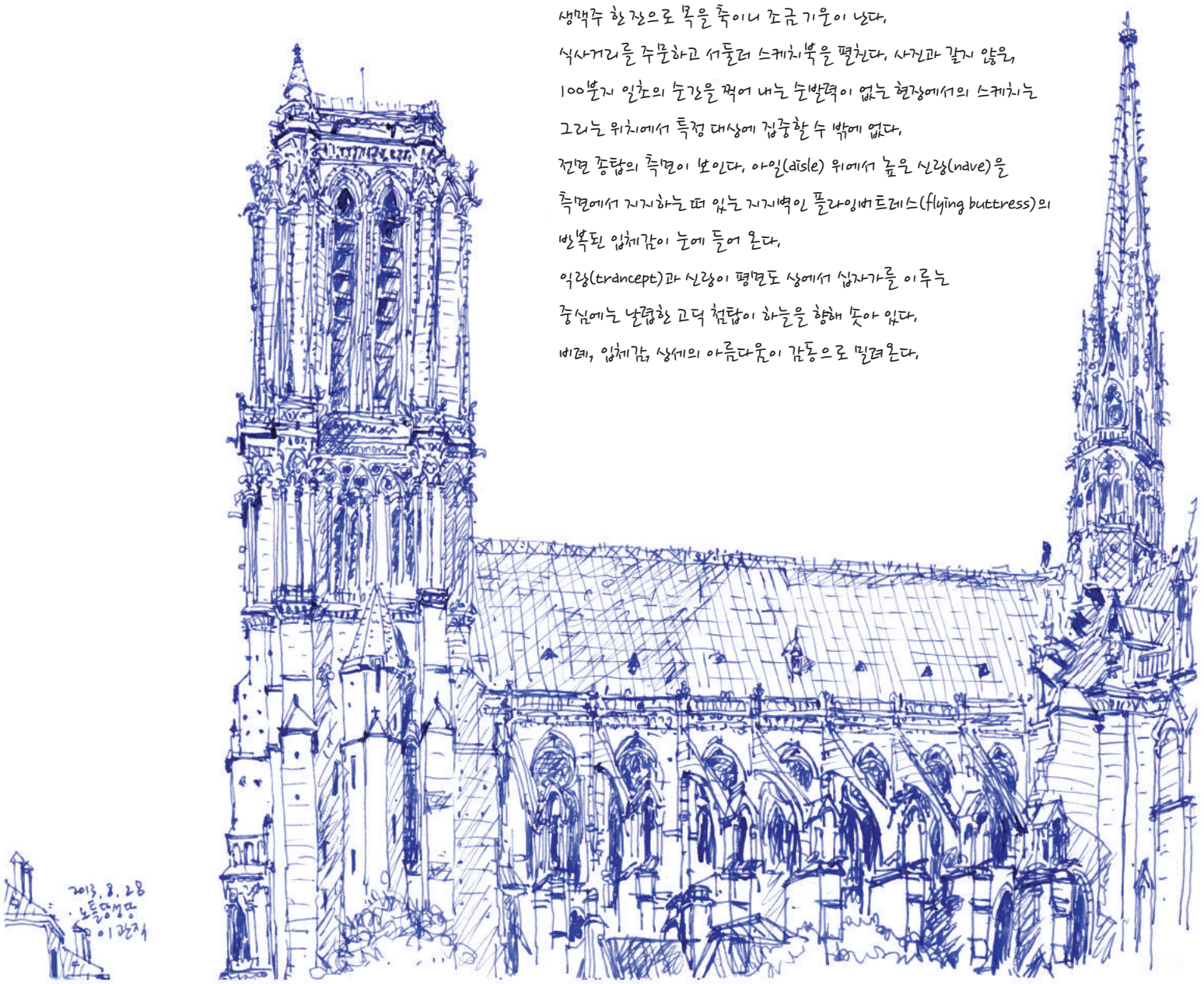
좌 :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음반표지에 건축물 사진이 있다.
우 : 금관앙상블 '캐나디언 브라스'의 골드베르크 연주는 그 청랑한 사운드로 유명하다.

'열려 있는' 공간에 피아노가 있다.
마치 어서 변주곡을 연주하라는 듯~


베토벤 운명교향곡 3악장 초고.
가운데 커다란 X자 표시를 보세요.

노틀담 성당에서

오전에 베르사이유궁 정원을 보고 교외선을 타고 시내에 들어와서
노틀담성당역에서 내렸다. 관광객들은 붐비고 야외에 적당한 자리는
없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야외 자리는 아니지만 노틀담 성당
남측면으로 보이는 식당의 창가 자리를 구했다. 우선 거품 가득한
생맥주 한 잔으로 목을 축이니 조금 기운이 난다.
식사거리를 주문하고 서둘러 스케치북을 펼친다. 사진과 같지 않은,
100분지 일초의 순간을 찍어 내는 순발력이 없는 현장에서의 스케치는
그리는 위치에서 특정 대상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전면 종탑의 측면이 보인다. 아일(aisle) 위에서 높은 신랑(nave)을
측면에서 지지하는 떠 있는 지지벽인 플라잉버트레스(flying buttress)의
발복된 입체감이 눈에 들어 온다.
익랑(trancept)과 신랑이 평면도 상에서 십자가를 이루는
중심에는 날렵한 고딕 첨탑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다.
비례, 입체감, 상세의 아름다움이 감동으로 밀려온다.



이관직 | Lee, Kwan-jick

- 고려대
- 건축문화대상(과천정보과학도서관)
- 서울시건축상(능동로텐에이빌딩)
- 농촌건축대전본상(공주주택) 수상
- 고려대학교,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 건축사 / 비에스디자인건축 대표

공고!! 창의적 디자인 설계경기!... 그리고... 그후...

김낙중 | Kim, Nak-jung

- 홍익대, 미 Pratt 건축대
- 서울대 건축학과 박사
-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 한국건축문화대상, 한국건축가협회 작품상 수상
-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제5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성료

6일간 3,000명 넘는 관람객 찾아, '노먼포스터–건축의 무게' 등 연일 매진

제5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6일간 이화여대 ECC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여느 해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상영작을 선보였으며, 3,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극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31일 개막식에는 350여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사회는 KBS 한상권 아나운서와 홍보대사 소이 씨(영화배우)가 진행했으며, 서울국제건축영화제 류춘수 조직위원장의 개막선언과 윤재선 집행위원장의 영화제 소개가 이어졌다. 대회장인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은 개막식 인사말에서 "어느 해보다 수준 높은 건축영화들이 상영될 예정이다"며, "대중과 영화와 건축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인 건축영화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건축의 새로운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영화제는 다양한 기록을 남겼다. 먼저 16개국 21편(장편 19편/단편 2편)의 영화가 총 40회 상영됐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두 배가 많은 수치다. 또한 지난해 1,750명의 관람객이 찾은 것에 비해 올해는 3,080명이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객석점유율은 70%를 넘었다. 〈노먼 포스터–건축의 무게〉 〈말하는 건축:시티 홀〉 〈셜리에 관한 모든 것〉 〈알바알토의 빌라 마이레아〉 등은 일찌감치 매진돼 발길을 돌린 관람객들도 많았다. 이밖에 건축영화제 백미인 HAF(Host Architect Forum)와 GV(Guest Visit)도 행사기간 동안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대부분의 GV는 영화 관람 전에 이뤄져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도 했다. HAF와 GV는 총 27회 진행됐으며, 참여한 사람들만도 54명에 달했다. 직업군도 다양해 건축사를 비롯한 영화감독, 월간지 편집장, 대학교수, 디자이너, 영화평론가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건축영화제에 참여한 환경재단 김영우 프로그래머는 "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전 해설로 영화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점도 성공에 한몫했다"며, "예년에 비해 사전 예매 수의 폭발적 증가뿐만 아니라 현장예매의 증가로 매진된 영화가 많았다"고 밝혔다.

1. 개막식 전경
2. 사회자 한상권, 소이 씨
3. 홍보대사 소이 씨와 김영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4–5. 영화제의 백미인 GV와 HAF 행사
6. 윤재선 집행위원장
7. 6일간 3천명이 넘는 관객들이 찾았다.

2013 대한민국 신인 건축사 대상

Korean Rising Architect Award 2013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후원하는 '2013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신인건축사대상은 잠재력 있는 신인건축사를 발굴 · 육성하고 이를 통해 건축설계업계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으며,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만 10년이 지나지 않고, 완공된 작품이 1개 이상인 건축사로 참가를 제한했다.

작품의 완성도, 장소성과 주변과의 조화, 신인건축사로서의 창조적 역량 및 건축주 · 시공자와의 원활한 소통능력 등을 기준으로 진행된 심사는 32개 작품 중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를 거쳤다. 대상은 최재원 건축사의 '풍기읍사무소'가 선정됐고, 최우수상에는 홍만식 건축사의 '청라 커낼큐브'와 김대훈 건축사의 'Y RESORT JEJU'가 선정됐다.

대상 수상작인 '풍기읍사무소'는 건축주인 영주시와 건축사 및 지역주민들의 건축적 요구사항 및 의견 조율을 건축커미셔너를 통해 소통하여 지역주민들에 적합한 건축공간을 구축한 점이 공공건축물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로 타 공공건축물의 모범 사례가 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최우수상 수상작인 '청라 커낼큐브'는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판매시설임에도 공공성을 실현한 신인의 열정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됐으며, 'Y RESORT JEJU'의 경우 아파트 개발지로 골조만 흉측하게 방치된 대지를 건축주와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금의 아름다운 리조트로 탈바꿈시킨 점이 지역사회의 일원인 건축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됐다.

올해의 응모 작품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신인건축사로서 규모는 작으나 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열정을 볼 수 있었고, 나아가 창의적인 역량으로 발전시켜 완성하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었으며, 건축사 · 건축주 · 시공자가 상호 소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 작품이었다.

1	2
3	4
5	6

1. 대상 수상 장면
2. 최우수상 수상 장면
3.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 기념사진
4. 우수상 수상
5. 우수상 수상자 기념사진
6. 수상자 전원 기념사진

□ 행사일정

▶ 작품공모공고 : 2013. 6. 17 ~ 7. 12

▶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2013. 7. 1 ~ 12
☞ kaa.kira.or.kr

▶ 심사 제출내용 접수 : 2013. 7. 17 ~ 19
(09:00 ~ 18:00)

▶ 심사 :
- 1차 사진첩심사 : 2013. 8. 14
- 2차 현장심사 : 2013. 9. 1 ~ 2, 9. 9 ~ 10
- 최종심사 : 2013. 9. 10

▶ 시상식 : 2013. 10. 21(16:00) /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 수상작 1차전시 : 2013. 10. 23 ~ 26
장소 : 코엑스 2013한국건축산업대전 내 전시장

▶ 수상작 2차전시 : 2013. 11. 4 ~ 29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1층 로비

□ 심사위원

류춘수_㈜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_심사위원장
이성엽_아림 건축사사무소
이재훈_단국대학교 교수
이아희_㈜경인 건축사사무소
김창길_삼정환경 건축사사무소

□ 시상내용

▶ 대상(1점) : 국토교통부장관상, 상장, 상패 및 상금 500만원, 건축물 부착용 동판

▶ 최우수상(2점) : 국토교통부장관상, 상장, 상패 및 상금 200만원, 건축물 부착용 동판

▶ 우수상(10점 이내)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상장 및 상패

대상 수상작

- 풍기읍사무소

최우수상 수상작

- 청라 커낼큐브
- Y RESORT JEJU

우수상 수상작

- YL빌딩
- 동숭동 모 베터 블루스
- 루키 1129
- 오디빌딩
- 드래곤플라이 DMC타워
- 목3동시장 고객지원센터
- 언덕 위의 바람집
- 원당리주택
- 다락방(多樂芳)

2013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

전경

풍기읍사무소
PUNGGI TOWN OFFICE
국토교통부장관상

- 설계자 :
  최재원_㈜디자인그룹오즈 건축사사무소
- 건축주 : **영주시청**
- 위치 : 경상남도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99

1층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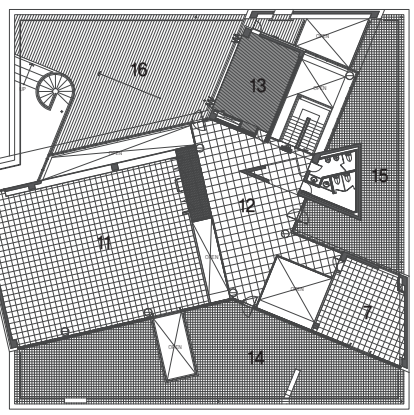
심사평

건축주인 영주시와 건축사 및 지역주민들의 건축적 요구사항 및 의견 조율을 건축커미셔너를 통해 소통하여 지역주민들에 적합한 건축공간을 구축한 점이 공공건축물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 타 공공건축물의 모범 사례가 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읍사무소 공공업무공간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을 공간적으로 분리한 점, 다목적 및 가변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옥내·외 시설 및 도로 축을 건축물에 도입한 컨셉 등이 지역주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생기 있는 공공건축물의 사례를 잘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민원실 전경

야경

1. 민원실
2. 인삼축제 위원회 사무실
3. 읍장실
4. 주민상담실
5. 예비군중대
6. 당직실
7. 문서고
8. 전산실
9. 미화원 대기실
10. 창고
11. 대회의실
12. HALL
13. 소회의실
14. 전망테크
15. 전시테크
16. 공연테크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전망데크

휴게실에서 공연데크를 바라본 모습

2013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상」

전경

청라 커낼큐브
CHEONGNA CANAL CUBE
국토교통부장관상

- 설계자 : **홍만식**_㈜리슈 건축사사무소
- 건축주 : **화산건설(주)**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93–6 (청라지구 C1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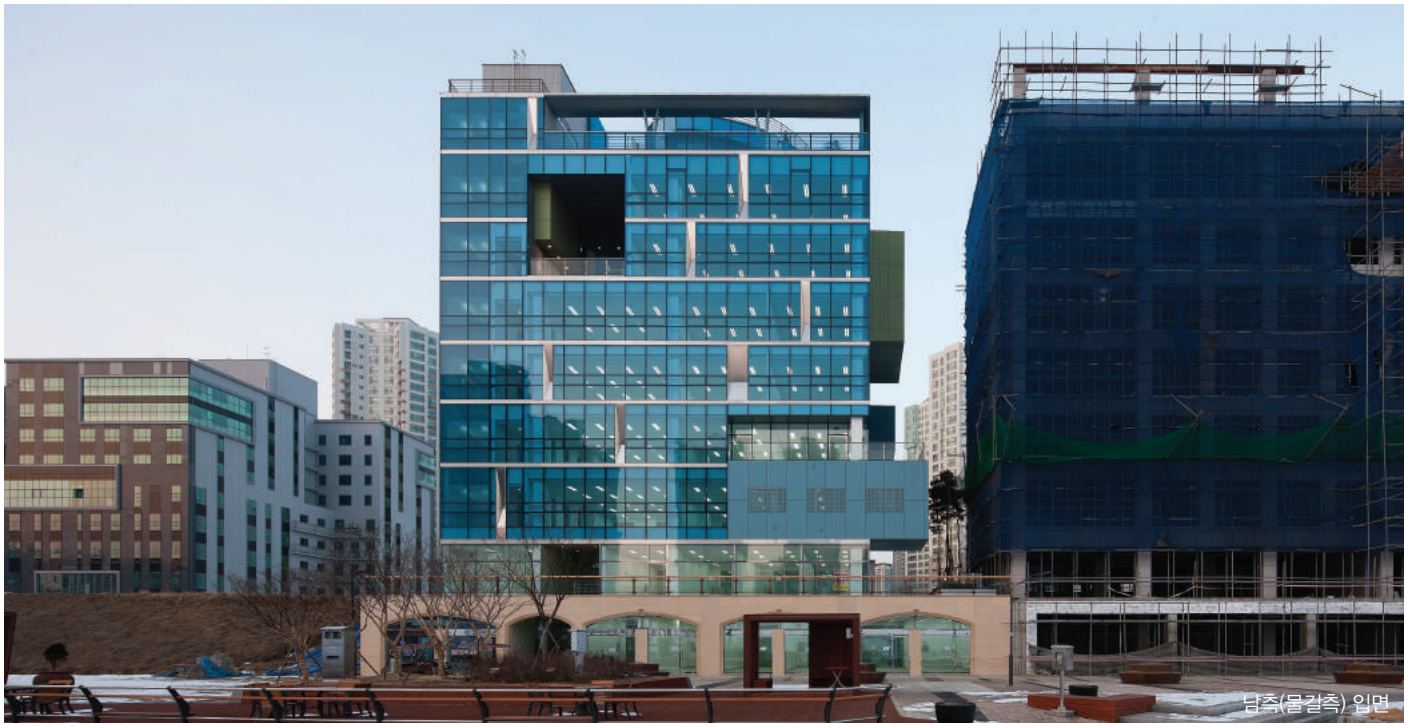
심사평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판매시설임에도 공공성을 실현한 신인의 열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1층의 경우 상업공간 대신 공공 매개공간인 보행통로를 확보하여 대지 내 전면이 후면의 물길과 소통하게 하고 다양한 큐브가 입면에 표현된 점, 여러 층에 중정을 설치하는 등 상업시설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공간을 확보한 점 등이 좋은 평가의 요소가 되었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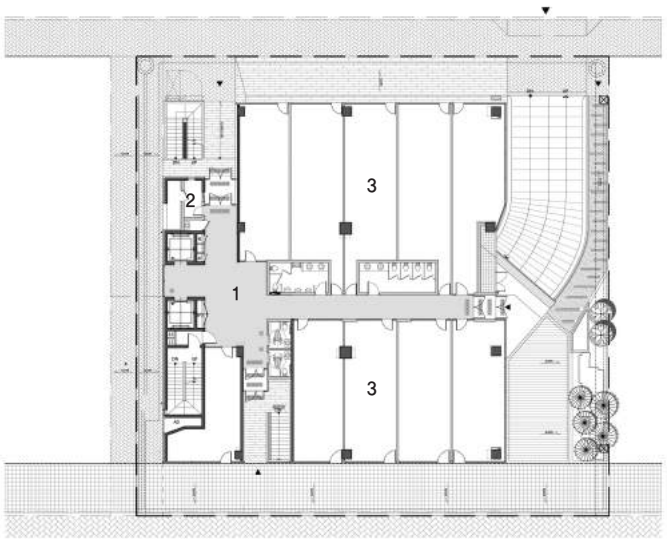
원형의 8층 스카이라운지

휴식과 조망이 있는 6층 중정큐브


남측(물길측) 입면

떠있는 큐브 입면 디테일

8층 테라스 전경



1층 평면도

1. 로비 및 복도
2. 관리실
3. 근린생활시설
4. ELEV. 홀

2층 평면도

2013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상」

전경

와이 리조트 제주
Y RESORT JEJU
국토교통부장관상

- 설계자 : **김대훈**_건축사사무소 더건축
- 건축주 : **박재율**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888번지외

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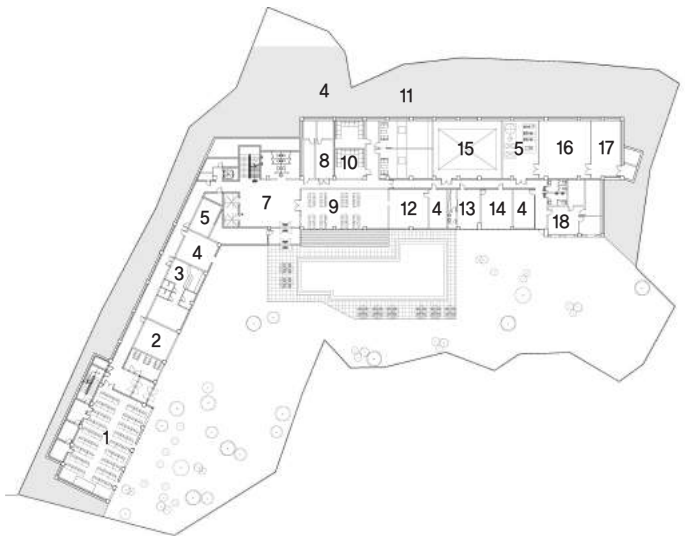
아파트 개발지로 골조만 흉측하게 방치된 대지를 건축주와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금의 아름다운 리조트로 탈바꿈시킨 점에서 지역사회의 일원인 건축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객실 중간에 매개공간인 오픈 스페이스를 구성하여 타 리조트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구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11호 ps 스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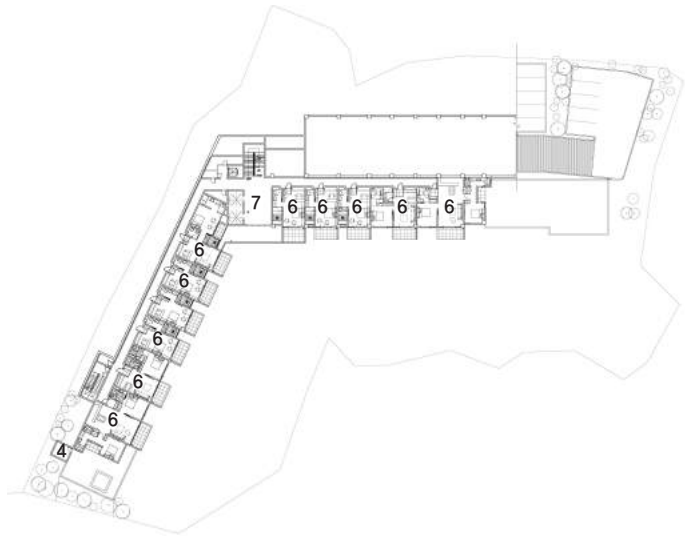
401호 펜트하우스 테라스

수영장

1. 세미나실
2. 이벤트준비실
3. 마사지실
4. 창고
5. 기게실
6. 객실
7. 홀
8. 편의점
9. 식당
10. 노래방
11. 스크린골프
12. 주방
13. 사장실
14. 사무실
15. 물탱크실
16. 전기실
17. 발전기실
18. 직원휴게실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리조트 앞

연회장

206호 ss 스파

2013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우수상–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전경

YL빌딩
YL Building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설계자 : **홍양표**_수가 건축사사무소
- 건축주 : ㈜**디자인일어소시에이츠**
- 위치 : 서울시 중구 신당동 432-1629

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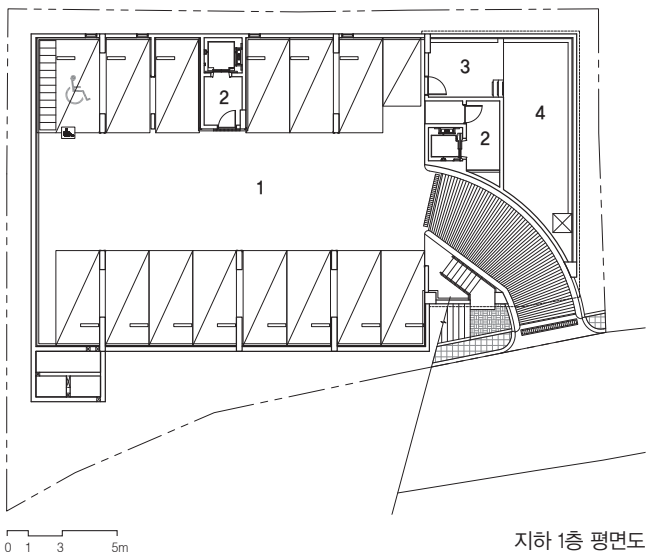
남산자락에 위치한 경사지 형태의 대지에 비교적 순응하는 방법으로 완성된 건축주의 사옥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외부공간을 구성하여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띄며, 발코니의 다양한 구성, 사선을 이용한 디자인으로 다소 지루할 것 같은 외관에 긴장감을 주어 생동감을 준 것 또한 돋보였다.

A동 5층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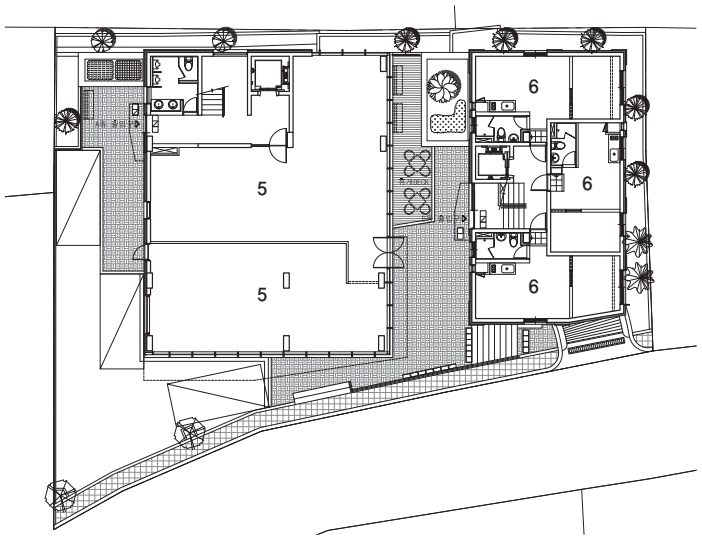
A동 2층 사무실

A동과 B동 사이

1. 지하주차장 2. 홀 3. 기계실 4. 저수조 5. 사무실 6. 도시생활형주택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013 대한민국 신안건축사 대상 「우수상-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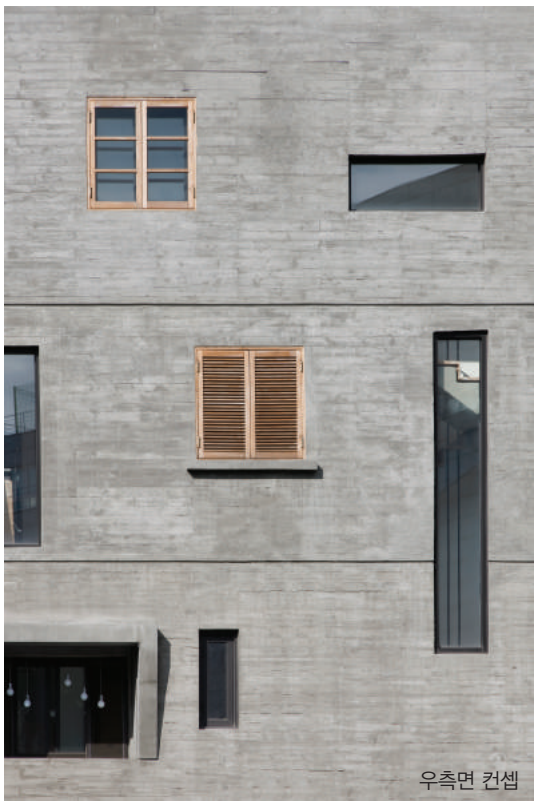
동숭동 모 베터 블루스
CAFE MO' BETTER BLUES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설계자 : **김경희**_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 건축주 : **최상종**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26번지

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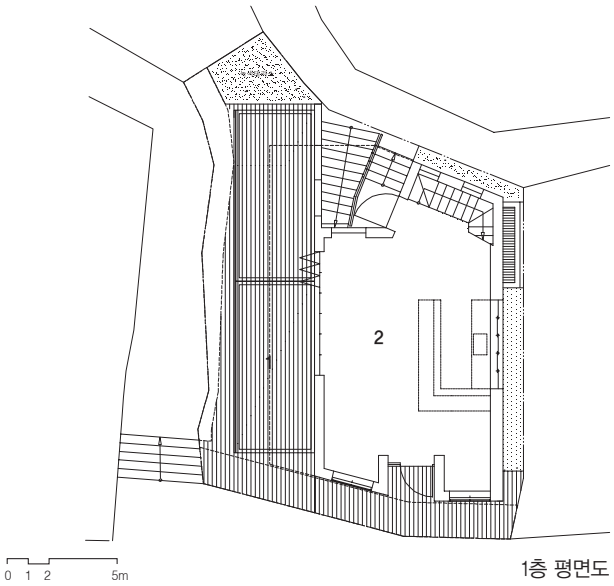
공연장과 카페가 우후죽순 들어서 있는 대학로 이면도로에 위치한 카페전용 건축물로서 지하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연면적 276.46㎡(83평)의 아주 작은 건축물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경제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구현한 점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다양한 위치의 발코니, 창의 형태 등이 결코 주변의 기세에 눌리지 않는 절제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된다.

3층 내부


우측면 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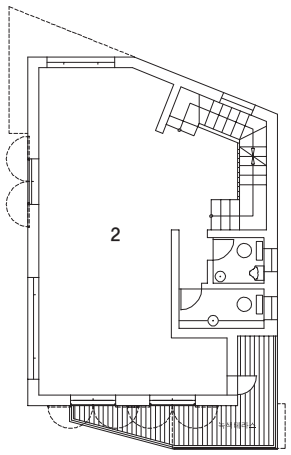
좌측 전경

계단실



1층 평면도

1. 주차장
2. 근린생활시설



2층 평면도

2013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우수상–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전경

루키 1129
ROOKEY 1129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설계자 : **김영종**_라움플랜 건축사사무소
- 건축주 : **권상우**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2-4

심사평

전형적인 상업지역에 위치한 중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서 극단적인 용적에 대한 요구가 필연적인 데 반해 본 작품은 건축주와 공감대를 구성하여 건축면적의 일부를 공공 외부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외부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상업용 공간으로서 무주공간의 효율적인 구성이 우수하며 옥상에 녹지공간을 구성하여 이용자에게 휴게공간을 배려한 점이 돋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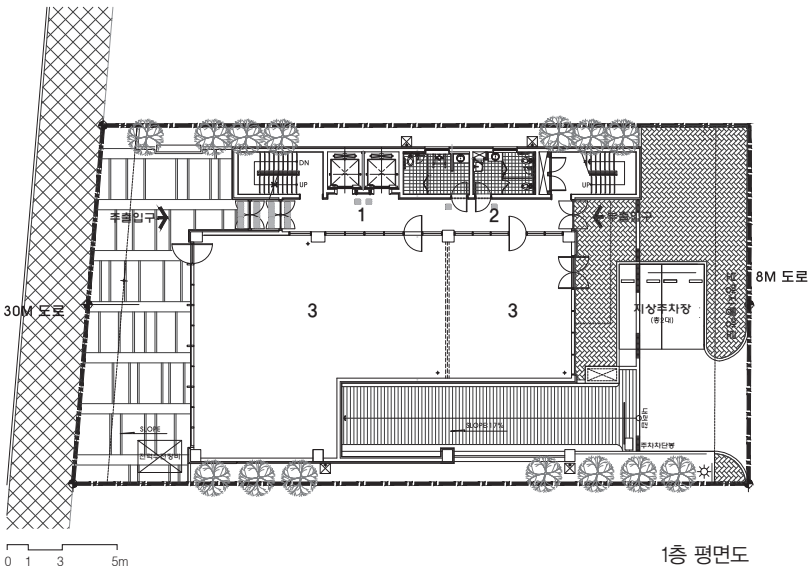
옥상 장식물

6층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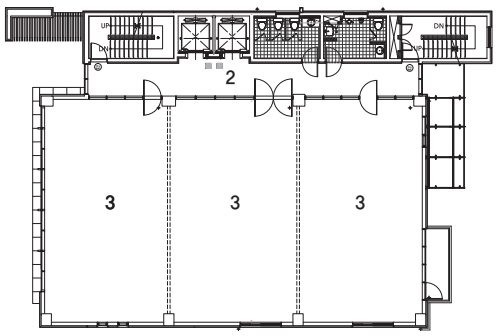
1층 복도

정면 하늘뷰

1. 로비 2. 복도 3. 근린생활시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2013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우수상–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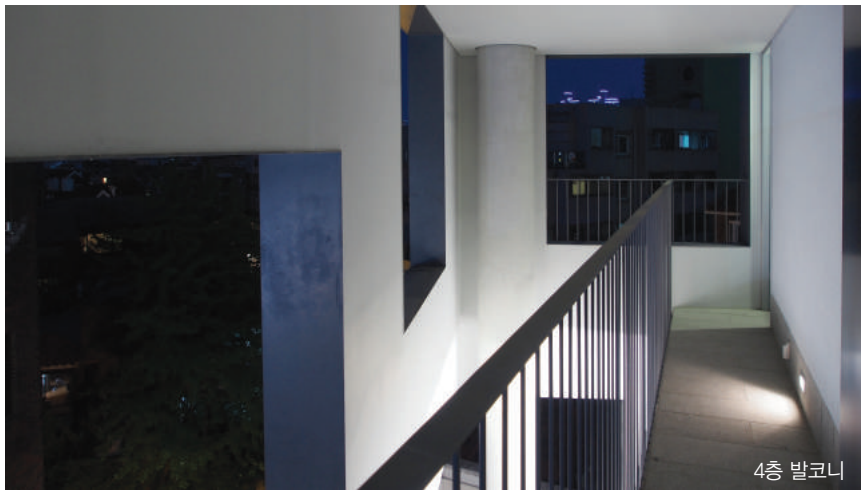
오디빌딩
O.D. BUILDING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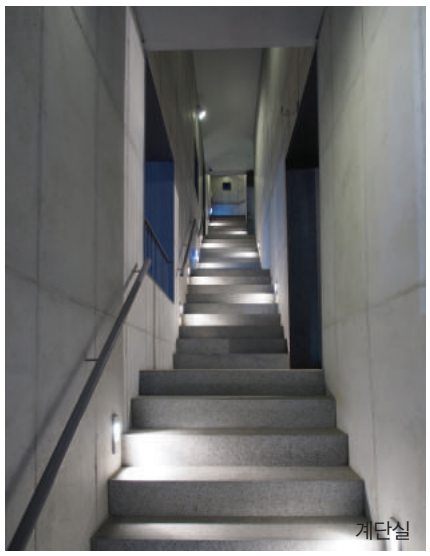
- 설계자 : **강제용**_오다 건축사사무소㈜
- 건축주 : **오영욱**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61-11, 12

심사평

대지의 형태가 전면도로 쪽으로 좁으며 이면도로에 비교적 긴 형태의 경사진 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도시축으로 설정하여 건축적인 공간으로 구축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다. 설계자의 고뇌가 절제된 디자인, 완성도 높은 디테일로 수준 높은 작품성을 보여 주는 수작으로 설계자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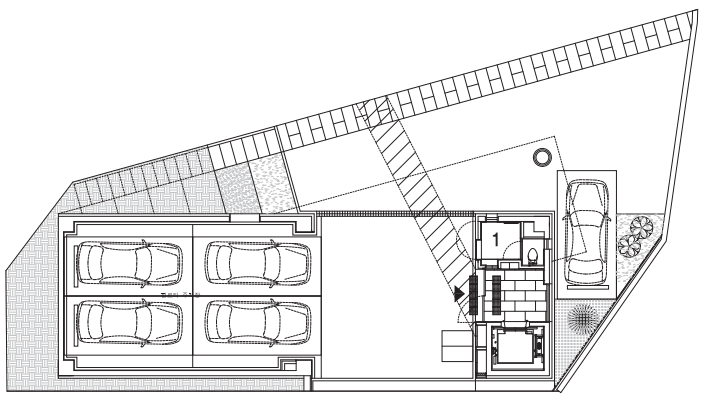
전면


4층 발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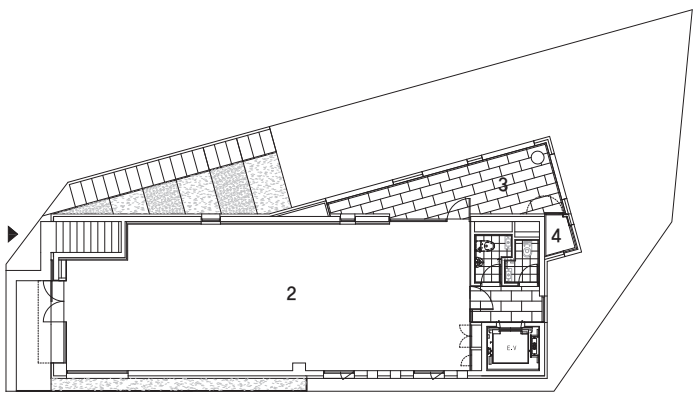

계단실

6층 내부

1. 경비실
2. 근린생활시설
3. 발코니
4.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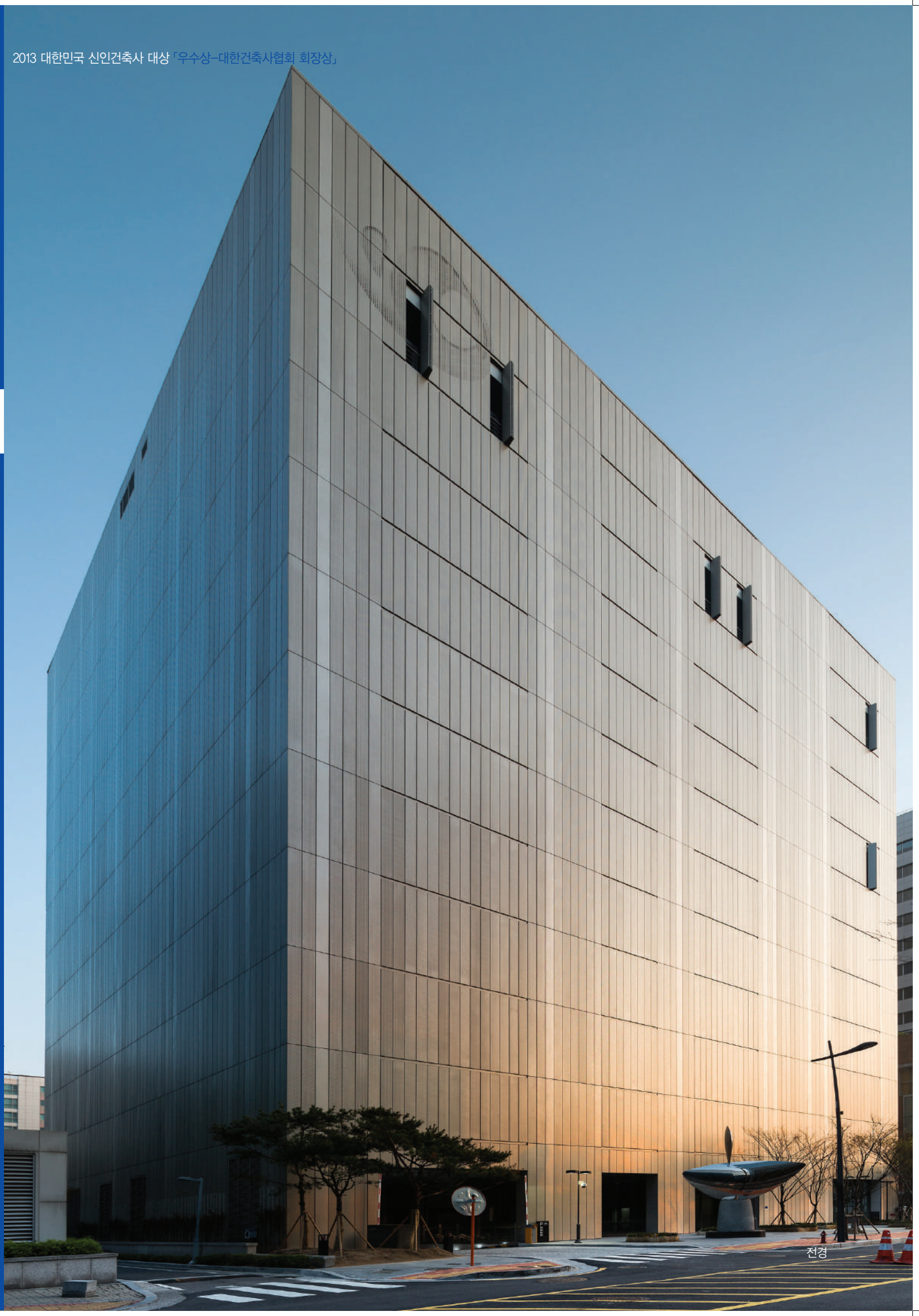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2013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우수상–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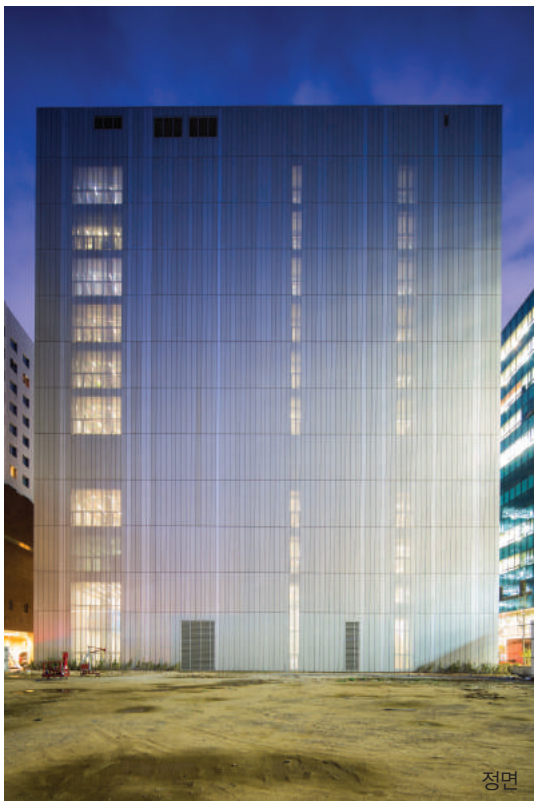
드래곤플라이 DMC 타워
DRAGONFLY DMC TOWER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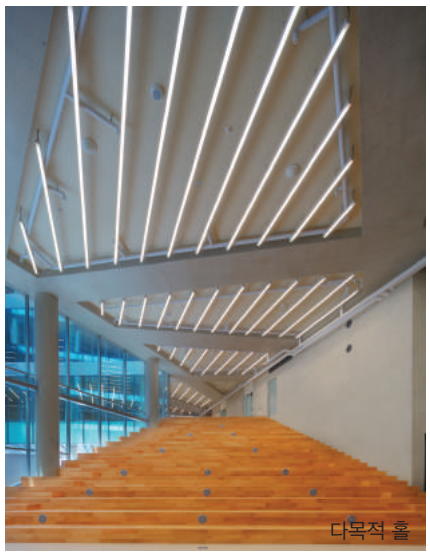
- 설계자 : **신승현**_㈜아이아크 건축사사무소
- 건축주 : ㈜**드래곤플라이**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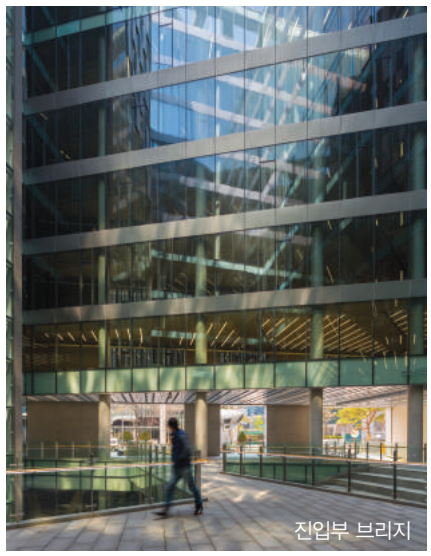
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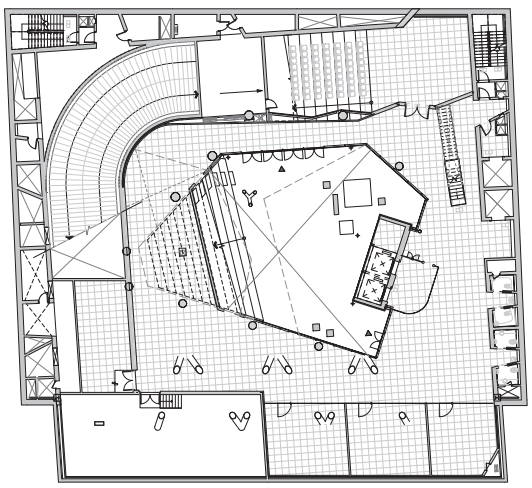
온라인 게임업체의 사옥으로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독특한 공간의 구성과 입면의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로서 오피스공간으로는 보기 드물게 가운데를 비워 중정을 만들고 중정 외부에 업무공간을 배치하여 다양한 업무공간을 구성하도록 무주공간을 만든 점도 우수하며, 외피인 타공철판의 다양한 디자인 패턴, 이용자의 개폐에 따라 스스로 변하는 입면의 구성 등은 독특하게 다가왔다.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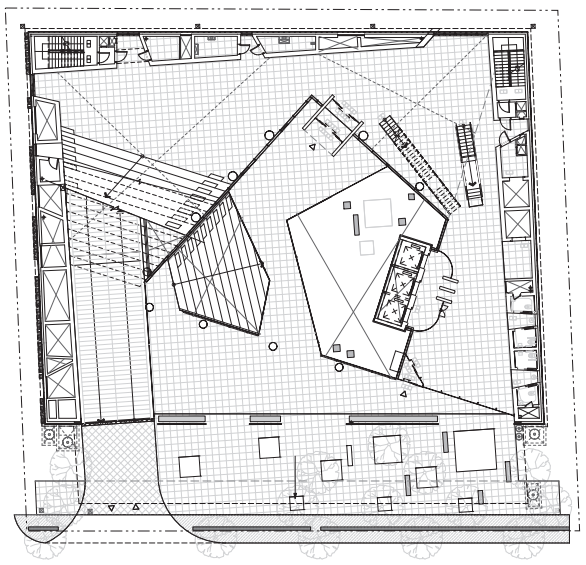

정면


다목적 홀


진입부 브리지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013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우수상–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전경

목3동시장 고객지원센터
CUSTOMER SUPPORT CENTER, MARKET MOK 3 DONG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설계자 : **곽은선**_이에스 건축사사무소
- 건축주 : **양천구청**
- 위치 : 서울시 양천구 목3동 617-13

심사평

대형마트에 밀려 점점 사라져 가는 재래시장의 활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시장상인들과 시장이용 고객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어진 목3동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시장상인과 시장이용자의 요구사항, 관공서의 요구사항을 설계자의 중재와 노력으로 만든 결정체로서 기능의 적절한 분리, 랜드마크적 요소, 친화적인 디테일이 돋보이는 점이 뛰어났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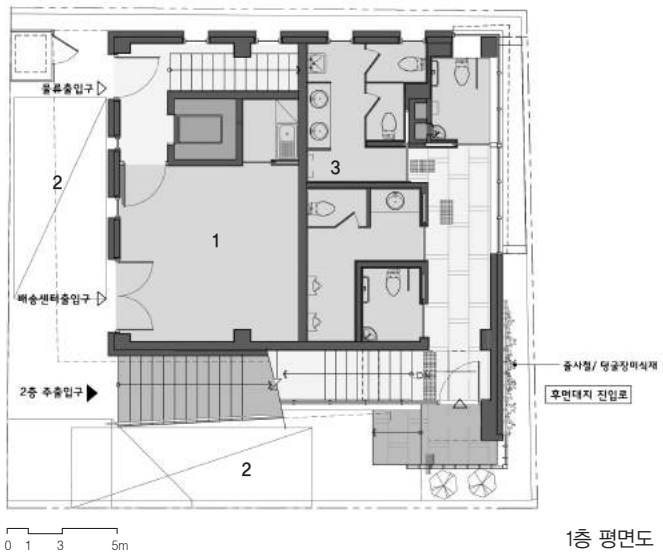
2층 진입계단

내부계단에서 2층 진입부를 바라봄

공중화장실 복도

옥외 데크

1. 배송센터
2. 주차
3. 기저기교환대
4. 고객만족센터
5. 고객쉼터
6. 탕비실
7. 창고
8. 야외테크
9. 방송시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2013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우수상–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전경

언덕 위의 바람집
WIND HOUSE ON THE HILL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설계자 : **선상희**_SUP 건축사사무소
- 건축주 : **이향숙, 선상희**
- 위치 : 세종특별시 장군면 금암리 314–81

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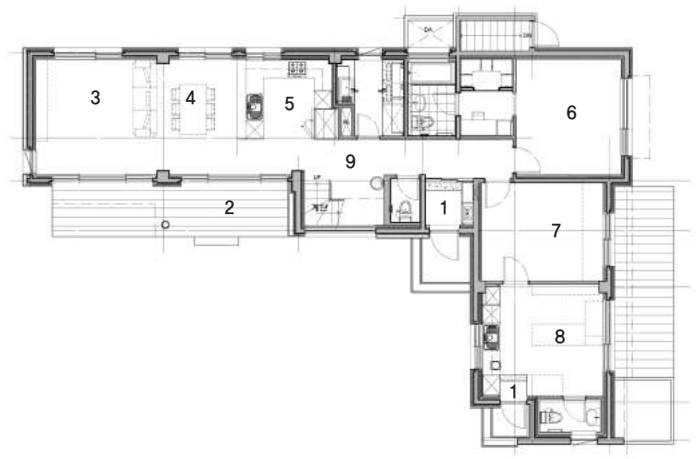
세종시에 위치한 전형적인 전원주택마을 주택으로 3세대가 거주하는 공간을 1세대의 작업공간, 2세대의 설계업무공간 그리고 거주공간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공간의 나눔이 인상적이었으며, 테라스의 경우에도 한옥의 대청마루 개념 도입, 설계업무공간을 향후 이용자의 행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구성, 주택에서는 드물게 가변성 있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기둥구조의 적용, 2층 누마루를 설치하여 금강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구성 등으로 주택으로서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동측 입면

누마루 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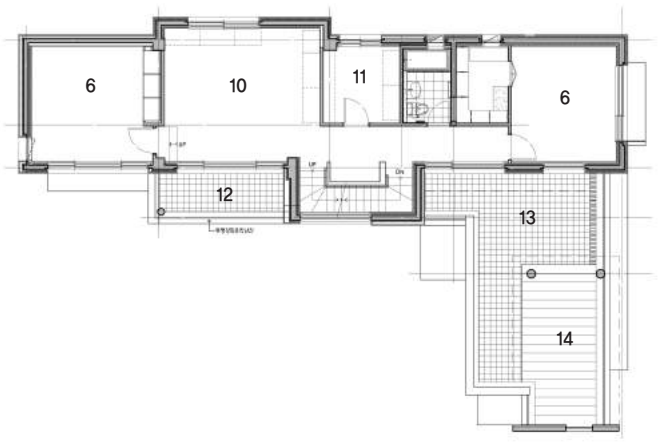
정면

1. 현관
2. 대청마루
3. 거실
4. 식당
5. 주방
6. 침실
7. 서재
8. 사무소
9. 복도
10. 작업실
11. 창고
12. 발코니
13. 테라스
14. 누마루



0 1 2 5m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실내계단

거실, 식당, 주방

2013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우수상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전경

원당리 주택
WONDANG-RI HOUSE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설계자 : **정기정**_㈜건축사사무소 유오에스
- 건축주 : **옥정인**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348-15

심사평

고저차가 심한 형태의 대지를 주변의 환경을 해치지 않고 순응하는 기법으로 계획한 주택으로서, 주 현관으로의 접근 방법이 독특하고, 설계자의 공간 구성의 의도가 건축주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법들이 돋보였다.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주변 경관을 조망하는 매개공간의 구성, 자녀들을 위한 옥외 공간, 풀장 등 건축주에게 주택으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 점에서 설계자의 의도가 잘 드러났다.

1층 전경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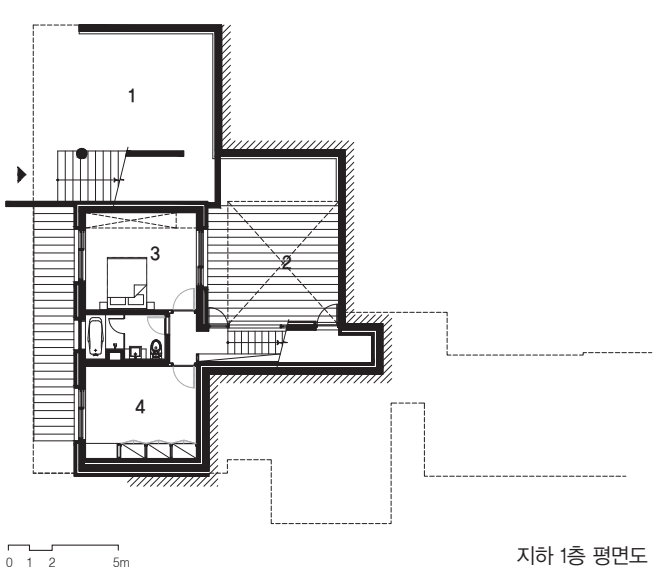
야외 수영장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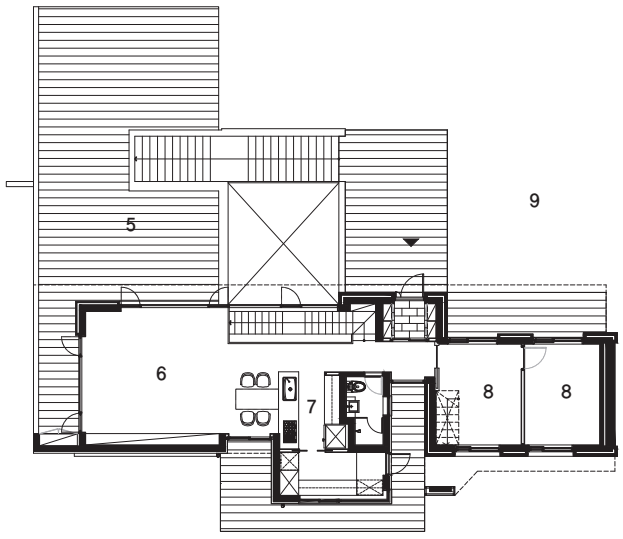
선큰에서 바라본 부부침실

지하 1층 전경

1. 주차장
2. 선큰
3. 부부침실
4. 서재
5. 테라스
6. 거실
7. 주방
8. 침실
9. 마당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013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우수상–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전경

다락방(多樂芳)
DAROCKBANG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설계자 : **강한성_푸름인 건축사사무소**
- 건축주 : **표준호**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로16번길 74번지

심사평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형태를 이용하여 건축적인 방법으로 공간을 분할하고 나눔으로써 공간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거실, 주방공간과 침실공간의 프라이버시를 매개공간으로 확보하고 각각의 공간에서 외부의 다양한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구성이 돋보였으며, 비교적 넓은 목조주택으로 섬세한 디테일에서 설계자의 노력이 돋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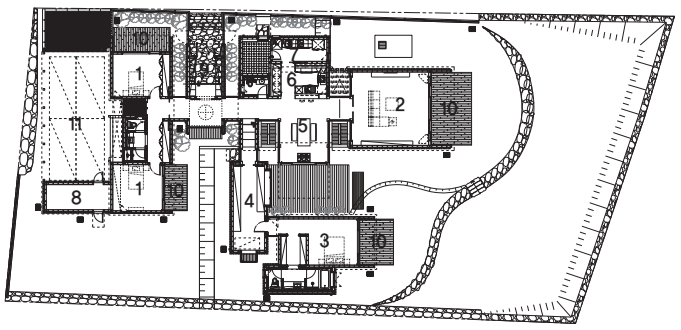
전경

거실

내부에서 데크를 바라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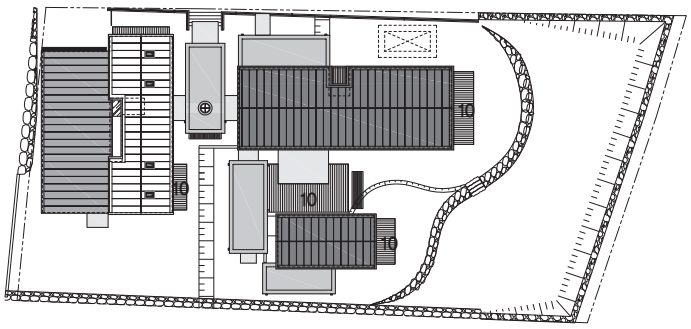
정면

1. 침실
2. 거실
3. 부부침실
4. 갤러리
5. 식당
6. 주방
7. 보조주방
8. 보일러실
9. 현관
10. 외부테크
11.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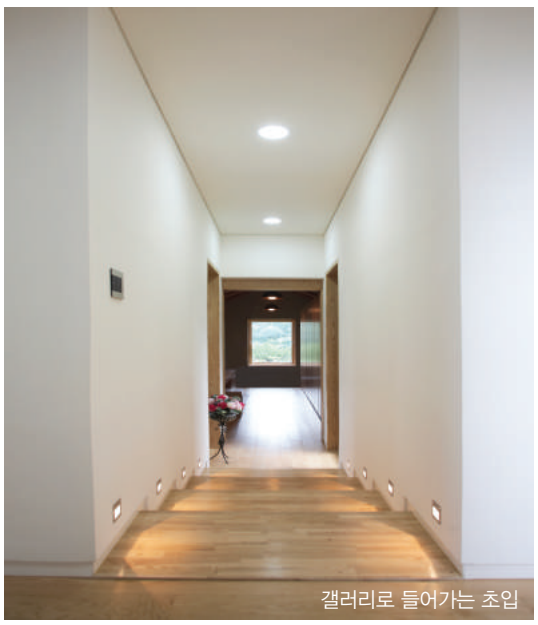


0 1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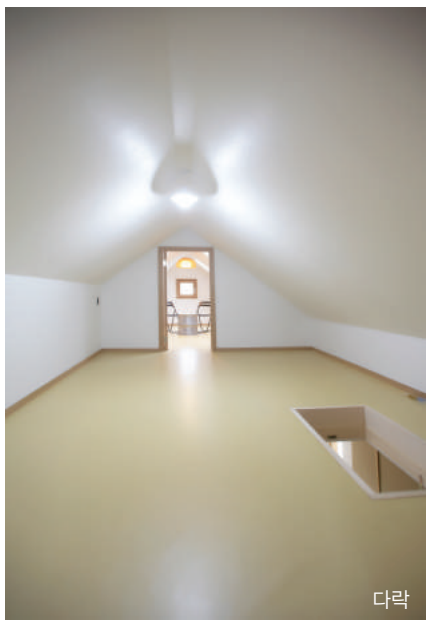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갤러리로 들어가는 초입



다락

갤러리

서류심사

현장심사

9월 1일 9월 2일

9월 9일

수상작 전시회

1차 전시회(코엑스, 2013한국건축산업대전 내 전시장)

2차 전시회(건축사회관 로비)

우리들은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배울까?

What should we think and learn today?

법륜 지음, 유근택 그림 | 도서출판사 휴 | 2013. 09. 30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인생 100세 시대. 어떤 어른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황혼을 맞이할 것인가? 정년은 60세 전후인데, 몸은 50대이고 마음은 청춘. 나이 들어가는 법에 대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이 시대 어른들…….

그러고 보니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수업을 받은 적이 없다. 결혼에 대해서도, 부모 되는 법에 대해서도,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노인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에 대해서도.

법륜스님이 '스님의 주례사', '엄마 수업'에 이어 '인생수업'이라는 또 하나의 지침서를 내놓았다. 이전에 '즉문즉설'과 같은 책을 접한 독자들은 "아 그 애기" "또 그 애기군" 할지도 모르겠다. 너무 쉽고 평이한, 특별한 문장이나 튀는 내용이 없어서 한두 시간이면 덮을 수 있는 책이다. 그러나 읽고 돌아서는 순간 생각을 한다. 현란한 꽃으로 피었다 툭 떨어지면 그만인 봄꽃보다, 잘 물들어 가는 단풍이고 싶다고.

"잘 물든 단풍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나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과욕을 부리지 않아야 하는데, 나이 들어 과한 것은 항상 부작용이 따릅니다. 젊을 때는 무리해도 금방 회복이 되지만, 나이 들어서 지나치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팍팍한 현실을 헤쳐 나가야 하는 중년 이후 노년들에게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한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불평 많았을 젊음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재의 내가 행복 할 수 있는 정신적 무장을 해야 한다.

"사회에서 직위는 일시적으로 주어진 하나의 역할일 뿐인데, 그 지위가 꼭 자기라고 착각하다가 직위를 잃으면 공허감이 뒤따르게 됩니다. 본인이 어떤 위치에 올랐을 때 그 지위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자기 조절을 잘해야 나이 들어서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새로운 일도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변화하듯, 젊어지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늙으면 늙는 대로, 병이 나면 병이 나는 대로, 머리가 희어지면 희어지는 대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당당하면 주변에서 더 환영받는다고 스님은 말한다.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저 생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 어디를 가더라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데는 없다. 지금 여기서 행복해야 한다" '행복해지기 위한 마음 지침서' '단풍처럼 물들어 가기 위한 인생 지침서',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스님은 욕심을 버리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행복하라고 전한다. 현재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지금 살고 있는 현세에서 나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올바른 삶을 구축하기 위해 노욕을 부리지 말고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행복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한번도 행복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준비만 하다가 한번도 행복해 보지 못한 채 죽을 건가? 바로 지금부터 행복해야 합니다"

매사에 긍적적이어야 어차피 오는 생로병사에도 더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스님은 이 밖에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잔소리와 간섭은 자식과 등지게 한다'라고 서슴없이 얘기한다.

정년을 앞두거나, 정년 이후 마음 둘 곳 없이 막막할 때, 사막 위에 홀로 방향을 잃은 것 같을 때 이 책을 읽어 내려가면 '퉁' 욕심덩어리 한 무더기가 내려지고 마음이 가벼워 지면서 나이들어가는 자의 여유를 다시금 생각해 볼 듯하다. 글 | **김수경**

오렌지나인
ORANGE 9

설계자 | 오종수_KIRA | ㈜앤드 건축사사무소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엄이건축을 거쳐, 현재 ㈜앤드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대표작으로는 신사동 ARTIZEN 빌딩, 논현동 주차타워, 반포동 고도일병원, 문정동 삼성래미안 주택문화관 등이 있으며,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명지대 건축학부 강사,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및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설계팀 : 구본희, 전병민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하모니구조
  - 기계설비분야 : 소정 ENG
  - 전기분야 : 대화기술사

건축주 | 양흥순, 이경호, 이경철
감리자 | 오종수
시공사 | 포스톤건설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52-10
주요용도 |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619.4㎡
건축면적(Building Area) | 309.46㎡
연면적(Gross Floor Area) | 1,872.88㎡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9.96%
용적률(Floor Area Ratio) | 231.05%
규모(Building Scope) | B1-8F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마감재 | T18 투명복층유리, 골강판, 수성페인트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9. 05 ~ 2011. 03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1. 03 ~ 2013. 06

Client | Yang, Heung-sun / Lee, Kyeong-ho / Lee, Kyeong-cheol
Architect | Oh, Jong-soo
Project team | Gu, Bon-hee / Jeon, Byung-min
General Contractor | Postone Constraction
Location | 652-10, Yeoksam-dong, Gangnam-gu, Soeul, Korea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Structure Engineer | Harmony Structure
HAVC Engineer | Sojung ENC
Electrical Engineer | Deahwa
Finishing Materials | T18 Transparent Pait Glass, Corrugated Stell Sheet, Emulsion Paint

골조로서의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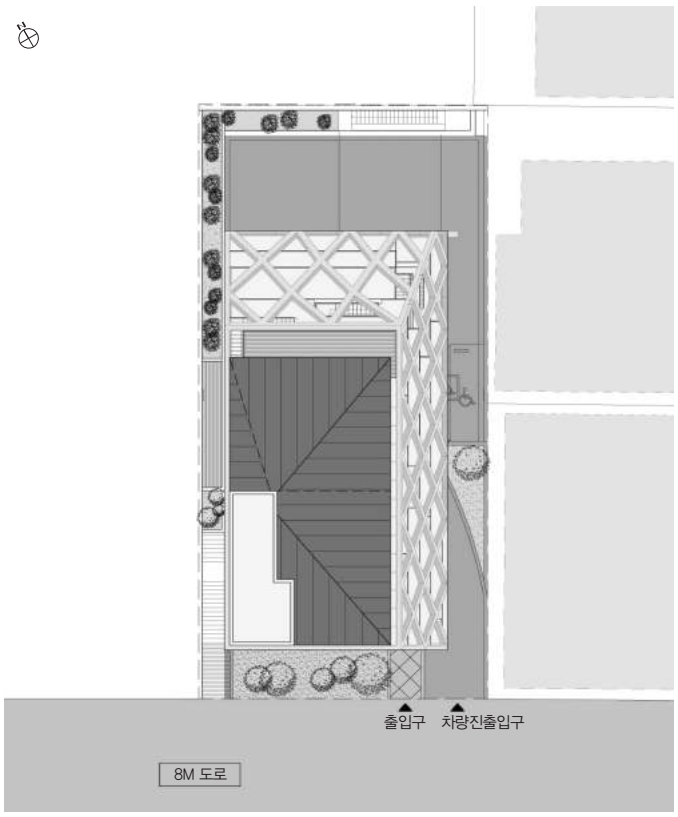
Orange 9 은 Screen Golf 전용 건물로 처음부터 계획된 건물이다.

실내 스크린 골프장은 그 용도의 기능적 요구로 인해 일정한 크기의 직육면체 박스의 집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전체 건물의 볼륨이 최대 용적률을 추구하게 되면, 주거지역의 특성상 일조권에 의한 사선제한으로 인해 상층부로 갈수록 좁혀지게 되고, 이는 계단식의 건물이 되거나 건물의 형태가 직각으로가 아닌 사선으로의 모양을 띄게 된다.
그러한 것을 한꺼번에 묶어낼 수 있는 디자인의 방법론이 필요했다.

여러 대안을 건축주와 검토한 결과, 처음의 이미지는 각 박스들의 꾸러미를 그물망으로 담아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그물망을 단순히 그것들을 담아내고 포장하는 껍데기로만의 방식이 아니라 그 표장이 다시 골조가 되어 건물의 외부 이미지가 되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기존의 골조는 대부분 내부로 숨겨지고 피부 및 근육으로의 외피에 덮여 그 모양은 어렴풋하게 짐작으로만 감지될 수밖에 없었다.

골조를 외부 입면의 주된 요소로 디자인하면, 다른 것이 많이 바뀌어도 주된 이미지 요소로의 연속성은 살아남을 수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하지만 그중에는 빨리 변화하는 것도 있고, 보다 늦게 변화하여 그것으로 인해 하나의 성격과 개성으로 인식되는 것도 있다.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었으면 한다.



배치도

T.508-1251 GOLFZON VISION Center
바다장어
국내자연산 바다장어전
12월 17일부터
점심식사 개시
점심영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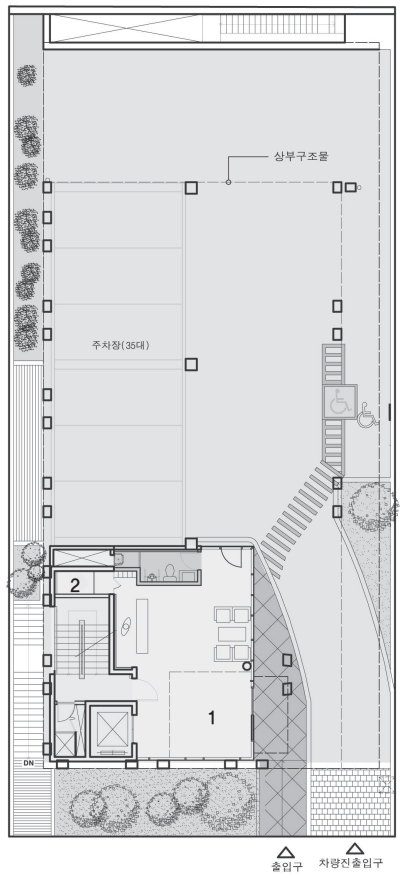
건물 전경(정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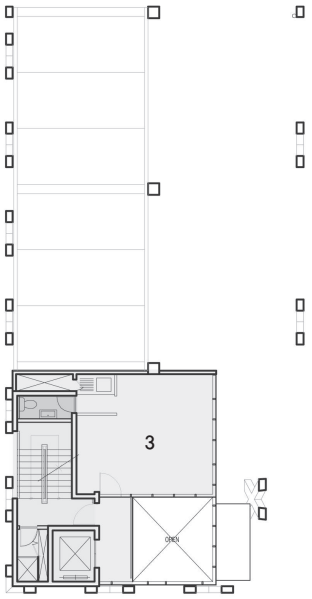
전경

전경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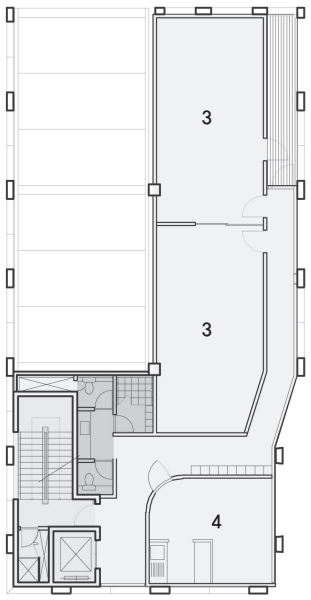
1. 로비
2. 창고
3. 운동시설
4. 근린생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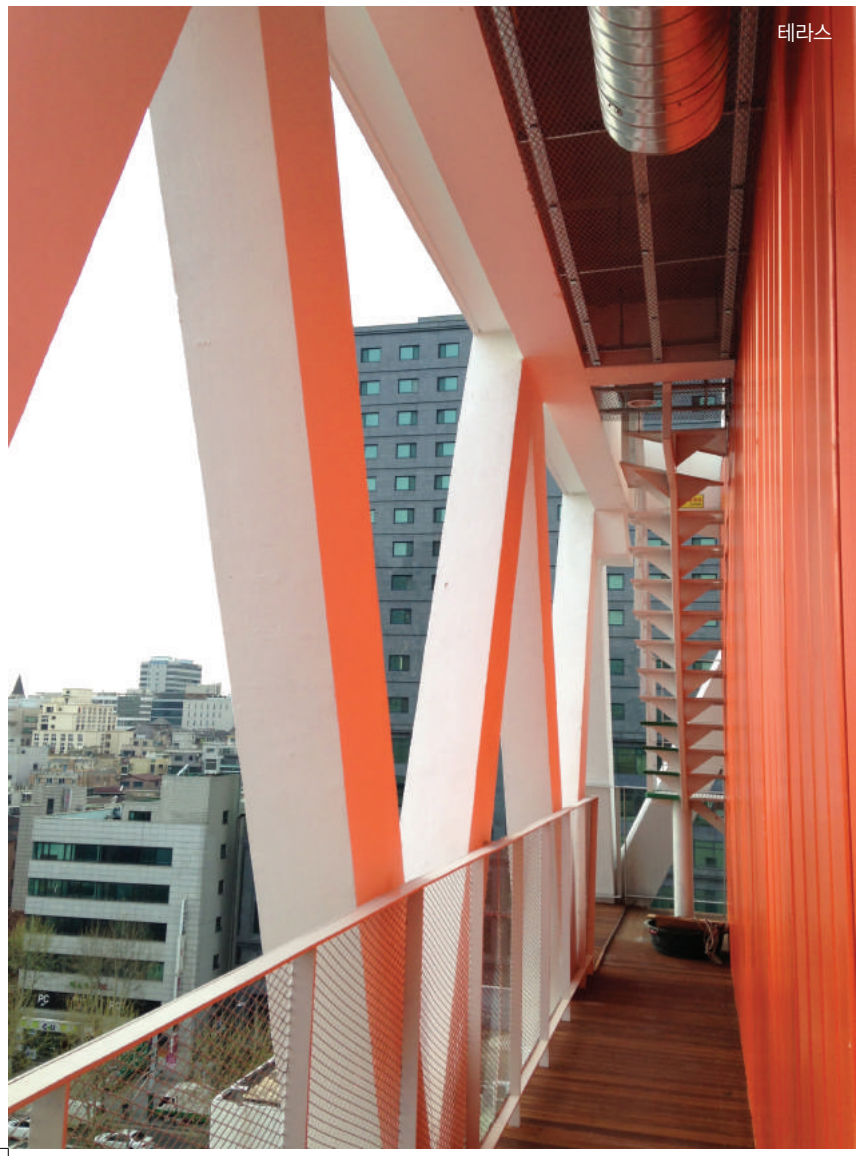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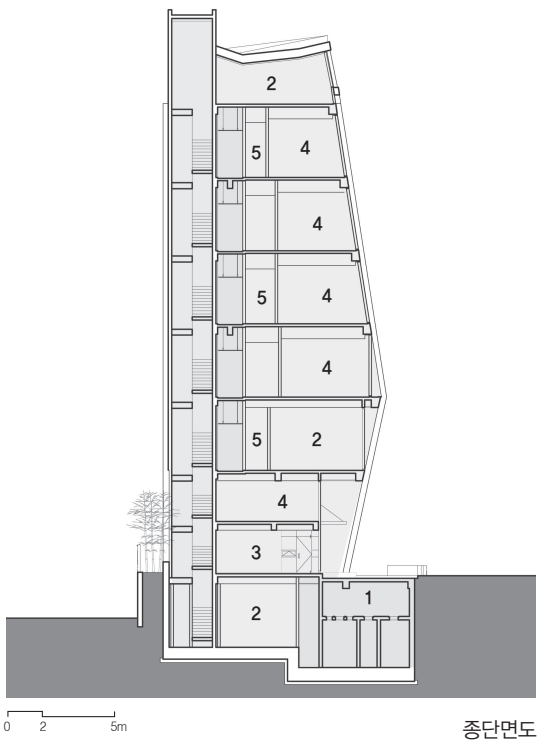
전경

입구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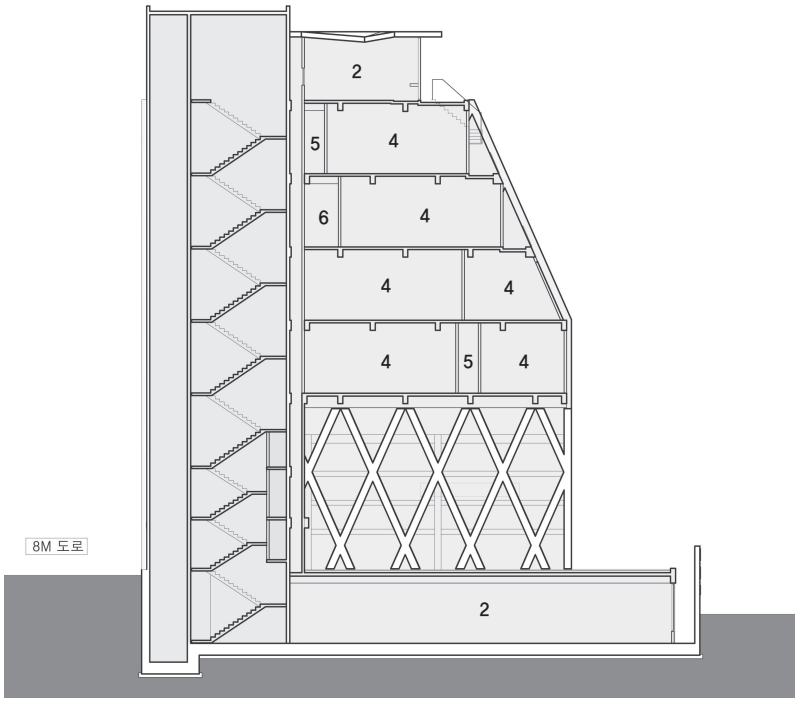
필로티

실내(7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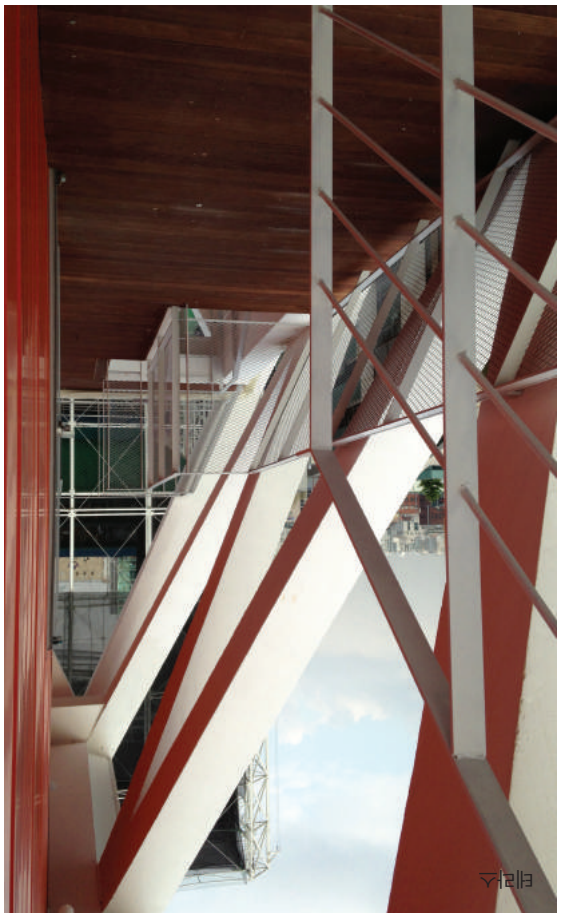
1. 정화조
2. 근린생활시설
3. 로비
4. 운동시설
5. 복도
6.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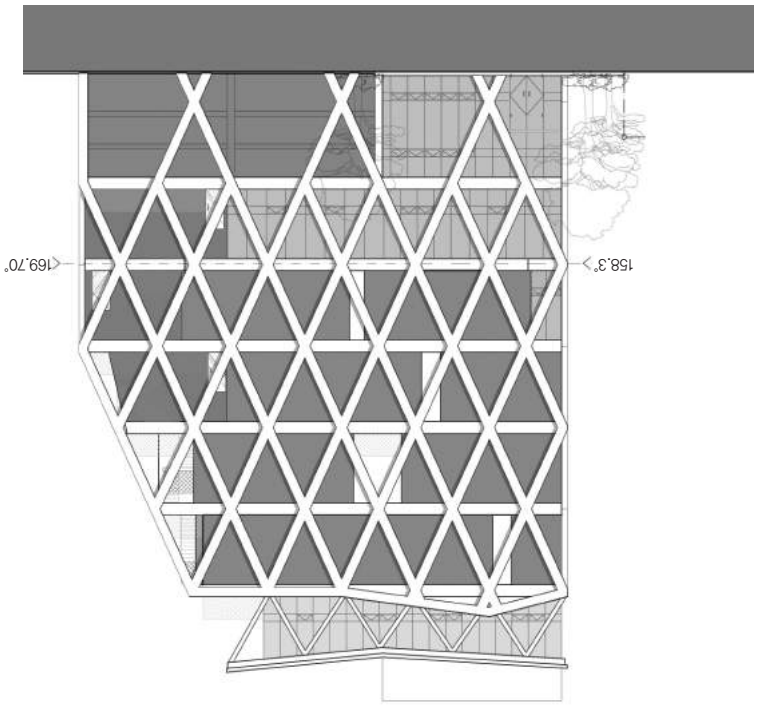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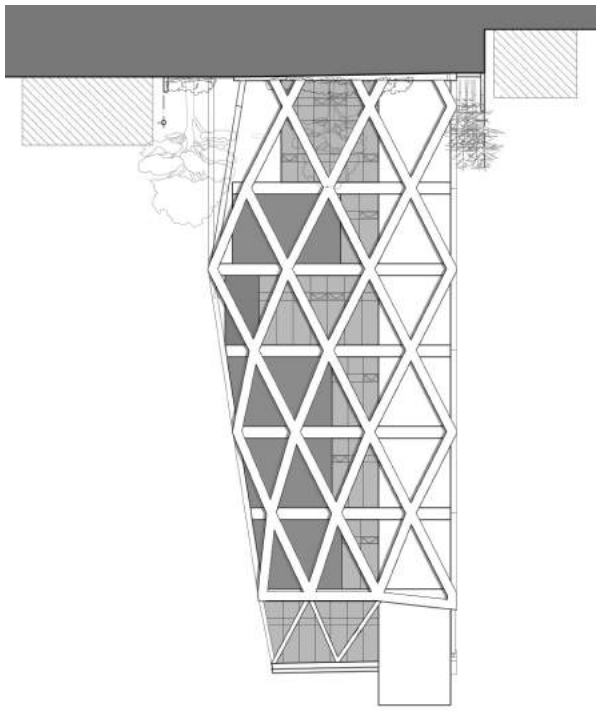
횡단면도



북도



동측면도



남측면도

판교 엠타워
PANGYO M-TOWER

설계자 | 우순곤_KIRA | ㈜정안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의 도시과학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 서울대학교에서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을 수료하였다. 일건건축과 해안건축에서 실무를 한 뒤, 2004년부터 정안건축을 창립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동탄, 판교, 분당 등에 다수의 주거복합 프로젝트를 설계했으며 최근에는 전주 서부 신도시 주상복합을 설계했다.

설계자 | 서승권_KIRA | ㈜정안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후, 안양대학교에서 아리 CEO과정을 수료하고 2004년부터 가정건축설계사무소, 한일건설주택 사업부, 건축사사무소 상원에서 실무를 한 뒤, 현재 정안건축의 창립멤버로서 꾸준한 작품활동을 해오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평택 그랜드빌리지, 수원 인계동 동양파라곤 1, 2, 횡성 이안아파트 등의 다수의 주거프로젝트 작품이 있다.

- 설계팀 : 박지호, 이규현, 이다래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POSTEC
  - 기계설비분야 : ㈜대유엠이씨 / ㈜낙생 · 도원방재
  - 전기분야 : ㈜다우티이씨
  - 토목분야 : ㈜쏘일락

건축주 | 블루코스트

감리자 | ㈜정안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삼성에버랜드㈜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4번지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대지면적(Site Area) | 3,123.70㎡

건축면적(Building Area) | 2,261.46㎡

연면적(Gross Floor Area) | 13,901.42㎡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72.40%

용적률(Floor Area Ratio) | 433.00%

규모(Building Scope) | B1–8F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마감재 | 알루미늄시트, 알루미늄유공판, 아연도스틸골강판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0. 10 ~ 2011. 03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1. 04 ~ 2012. 01

사진(Photographer) | 박완순(Park, Wan–soon)

Client | Blue Costo

Architect | Woo, Soon-kon / Suh, Seong Gweon

Project team | Park, Zio / Lee, Kyoo-hyun / Lee, Da-rea

General Contractor | Samsung Everland Inc.

Location | 684, Sampyeong-dong,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Structure | Steel Framed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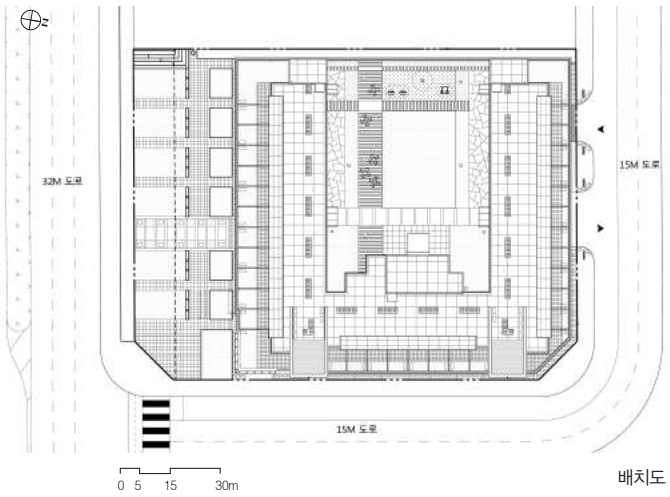
Structure Engineer | Postec

HAVC Engineer | Deayoo MEC / Naksaeng

Electrical Engineer | Dawoo TEC

Civil Engineer | Soilrak

Finishing | Aluminium Sheet, Aluminium Perforated Board, Galvanized Sheet Iron



배치도

판교 테크노밸리는 글로벌 수준의 IT, BT, CT 중심 융복합 첨단 R&D의 메카라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조성된 지역으로, 현재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입주를 하였거나 입주 예정이다. 테크노밸리 밖의 주거용지를 제외하고 단지 내 입주기업 직원들을 위한 준주거 형태의 오피스텔이 전무한 상황에서, 건축주가 제시한 주차장 용지에 기능에 더해 테크노밸리 내 유일한 소형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였다.

북측 대로변에 전면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가로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정방형의 대지를 이용해 북측 · 서측 도로면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남측 이면 도로의 차량 출입구는 입차와 출차의 동선을 분리하여 차량 진출입시 안전을 확보하였다.

지상 1층은 전체를 대면형 상가로 계획하였고 오피스텔 출입구는 거주자의 보안 및 편의를 위해 별도로 계획하였다. 1층 내부(외기)에 쓰레기 이송설비를 설치하여 우천 시에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차량 동선과 이용자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주차장 건물이 가질 수 있는 단점을 극복하였다. 지상 6층은 주차장층 지붕을 활용, 옥상조경 및 세대별 테라스를 설치하여 소형 오피스텔이지만 쾌적한 거주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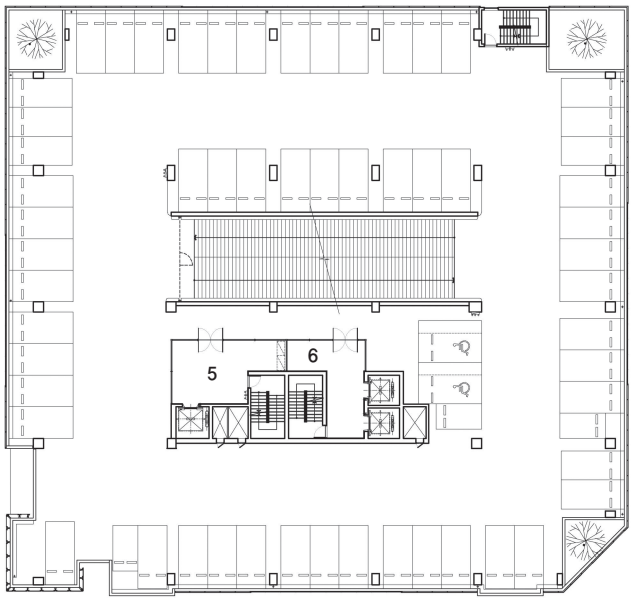
주차장 각층 평면의 모서리 부분에 변화를 주어 조경수 식재공간을 마련하고 타공판, 강화유리, 알루미늄 시트, 콘크리트면 노출 등 모던한 재료의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자칫 단순할 수 있는 주차 전용빌딩의 입면을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주차장 층보다 셋 백된 상층부 입면은 오피스텔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해 준다. 지하 1층 기계 · 전기실,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2~5층 주차장, 지상 6~7층 오피스텔로 용도별 층 구분이 명확하여 각 용도별 기능이 충돌하지 않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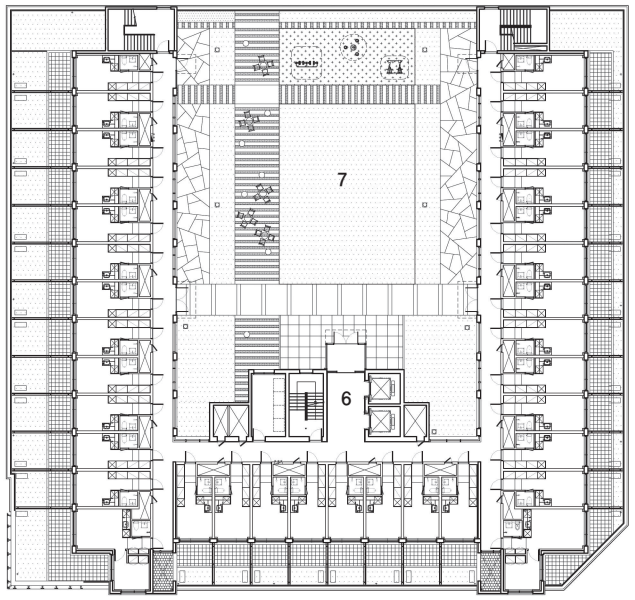
측면에서 바라본 전경

건너편에서 바라본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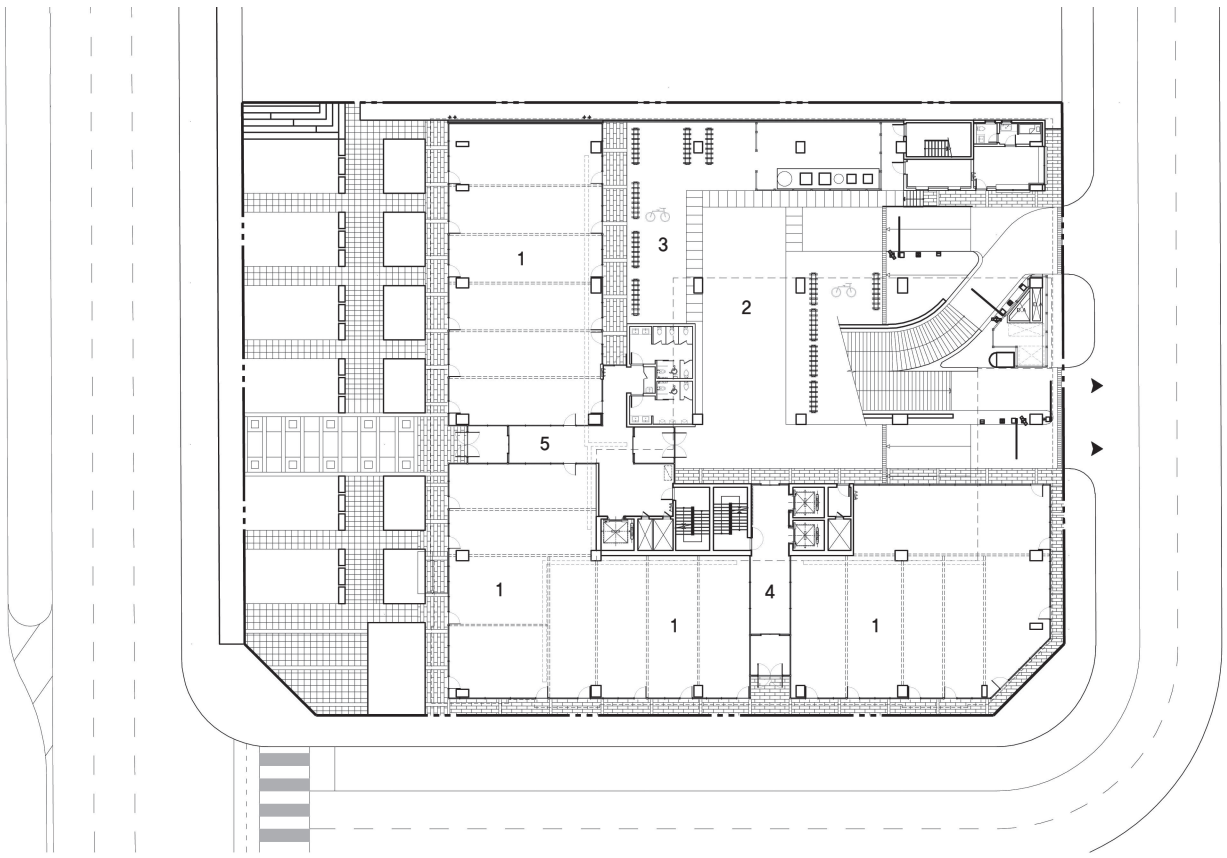
1. 근린생활시설
2. 주차통로
3. 자전거주차장
4. 업무시설 로비
5. 주차장 홀
6. 업무시설 홀
7. 정원



3층 평면도(주차장층 2~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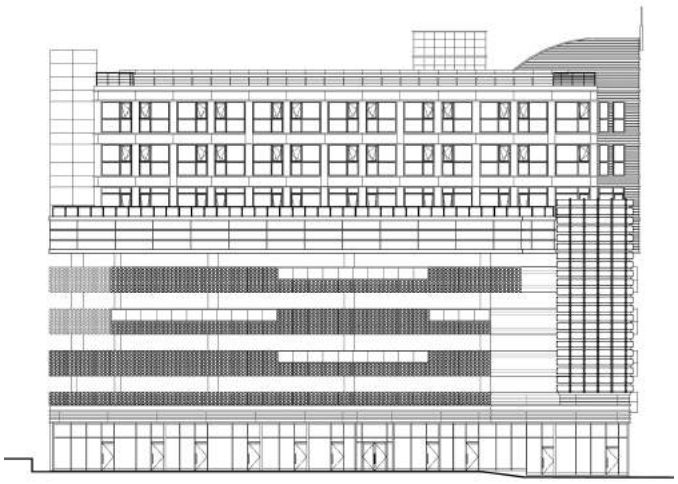


6층 평면도(업무시설층)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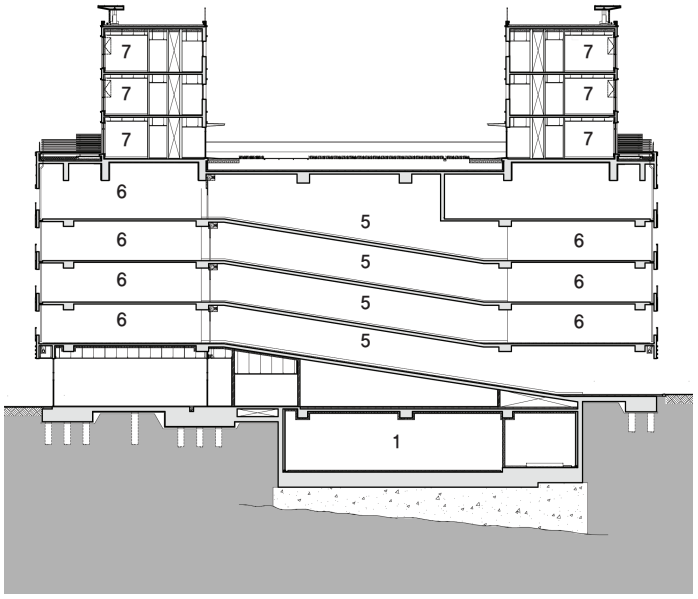
측면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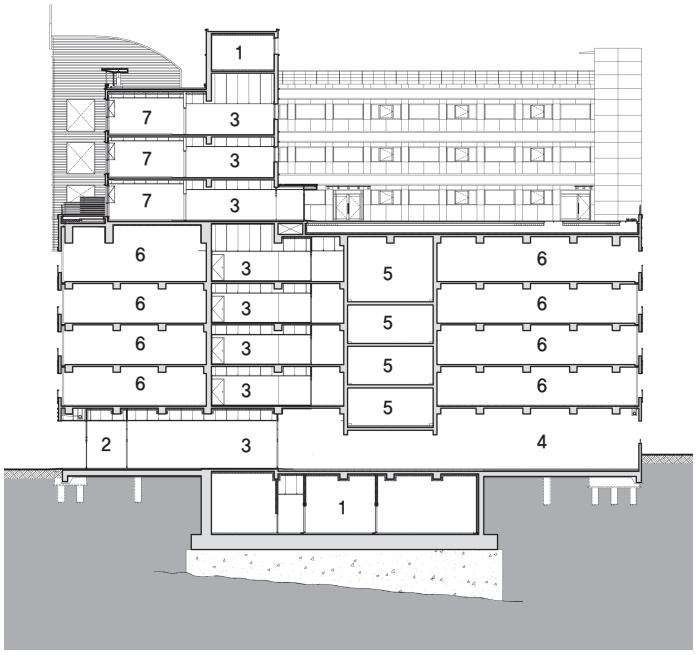
정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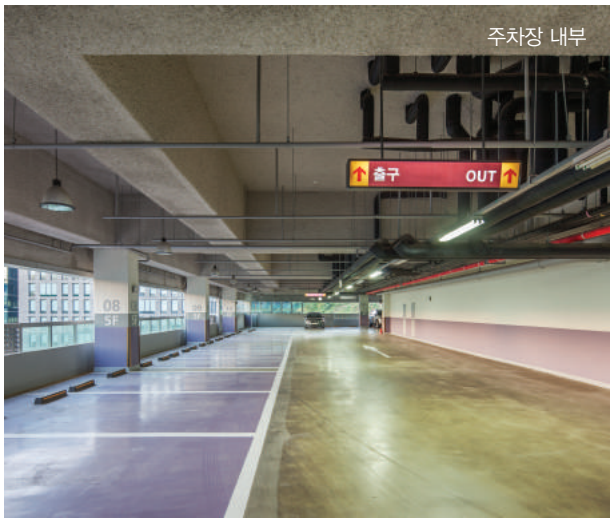
1. 기계실
2. 방풍실
3. 홀
4. 주차통로
5. 주차캠프
6. 주차장
7. 업무시설



횡단면도



종단면도



주차장 내부

건물 내부 중정

당진경제종합지원센터(당진상공회의소)
DANGJIN-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설계자 | 박영준_KIRA | 건축사사무소 나무

중앙대학교 건축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제30회 국전에서 특선을, 건축대전 1회, 2회 입선한 바 있고, 그후 (주)정림건축에서 10년간 실무경험을 쌓았다. 현재는 APEC 등록건축사이자 국립한밭대학교 겸임교수이며, 충청남도 건축심의위원과 충남교육청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나무건축을 운영 중이다. 현상설계수상경력으로는 KAIST마스터플랜과, LH의 충남권(서산, 태안)공동주택, 시흥장현나군공동주택, 대구대곡2지구공동주택, 시흥은계지구공동주택 등이있고, 그외 다수이다. 기타사항으로 국내 신세대건축가 "10인에선정", 국내 젊은 건축가 "28인에선정" 되기도 하였다.

- 설계팀 : 박경식, 김범수, 차마라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프라임구조
  - 기계설비분야 : 서해기술단
  - 전기분야 : 서해기술단

건축주 | 당진상공회의소
감리자 | 건축사무소 나무
시공사 | 서진산업(주)

대지위치 | 충남 당진시 수청동 1071 번지
주요용도 | 업무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465.80㎡
건축면적(Building Area) | 277.27㎡
연면적(Gross Floor Area) | 1,779.40㎡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9.53%
용적률(Floor Area Ratio) | 293.90%
규모(Building Scope) | B1-5F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마감재 | Thk0.7 징크패널, 오석 버너구이, Thk24 로이칼라 복층유리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 02. 22 ~ 2012. 06. 01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2. 06. 20 ~ 2013. 07. 02
사진(Photographer) | 채수옥(Chae, Su-ok)

Client | Dangjin-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rchitect | Park Young-jun
Project team | Park, Kyong-sik / Kim, Bom-young / Chamara
General Contractor | Seojin Construction
Location | 1071, Sucheong-dong, Dangjin-si, Chungnam, Korea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Structure Engineer | Prime Structural Engineering
HAVC Engineer | Seo Hae-ki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Seo Hae-ki Engineering
Finishing | Thk0.7 Zink Panel, Black color Fire Stone, Thk24 Roy Color Insulating Glass

본 대지는 당진시청 남측의 40m도로 4거리 모퉁이에 위치해있고 그주변 상권은 준주거지역 택지진입 첫 관문에 있으므로 당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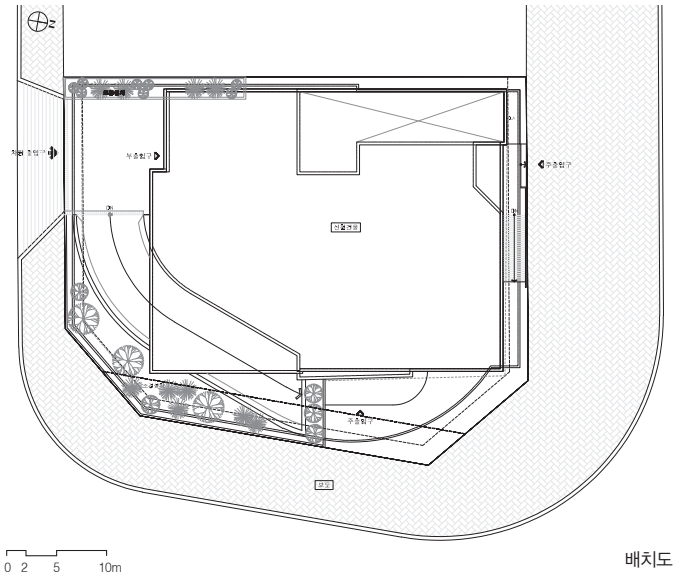
모퉁이형태의 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므로써 방향성과 진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배치를 하여 효율을 극대화하였다.

대지후면의 주차동선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며 지하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주변건물의 획일적이고 복잡한 형태를 탈피하여 기능적이고, 경제성을 고려한 평면과 단순하고 명쾌한 입면으로서 현대적이고,친환경적인 건물을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건물 전면과 좌측면의 징크패널 프레임을 통해 건물의 정면성 확보와 입면의 패턴을 통한 건물의 상징성 증대를 꾀하며, 저층부는 thk24 로이복층투명유리 사용으로 신선하고 투과성을 주는 상업공간으로 제공하므로 세련된 이미지로 차별화를 유도하고, 고층부는 열관류율을 규정보다 높게 사용한 시스템창호인 thk24 로이칼라복층유리와 단열재를 사용하여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였다.

디자인의 큰 의미로 볼때는 마치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듯한 입면의 주요컨셉을 표출하여 소상공인들을 보호차원과 사업적으로 돕기위한 디자인 유추를 시도하였으며 보다 간결하면서도 부분적 디테일로서 입면의 완결성을 추구하여 중규모 건축물의 새로운 디자인시도로 상공인들의 보다 편리하고 친환경인 건물로서 당진의 LAND MARK가 되기를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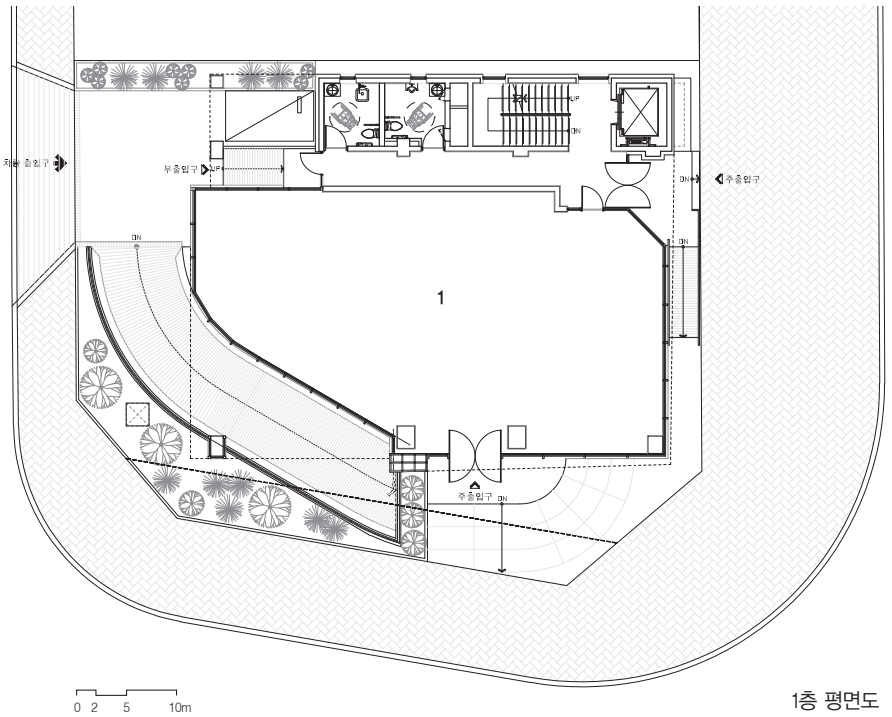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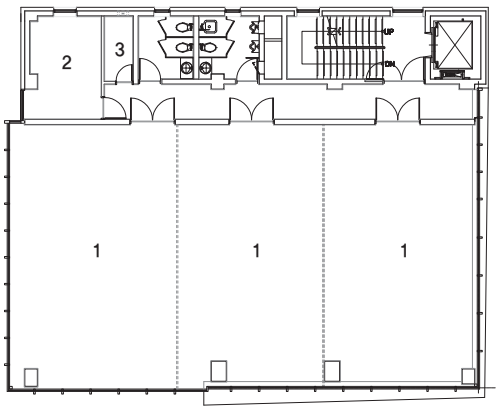
정면에서 바라본 전경

정면에서 바라본 전경

1. 업무시설 2. 휴게실 3. 통신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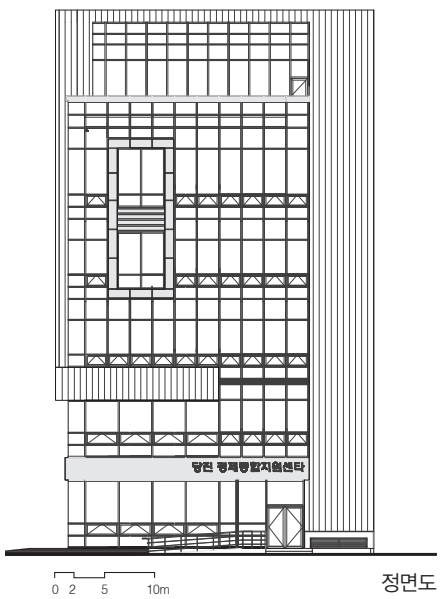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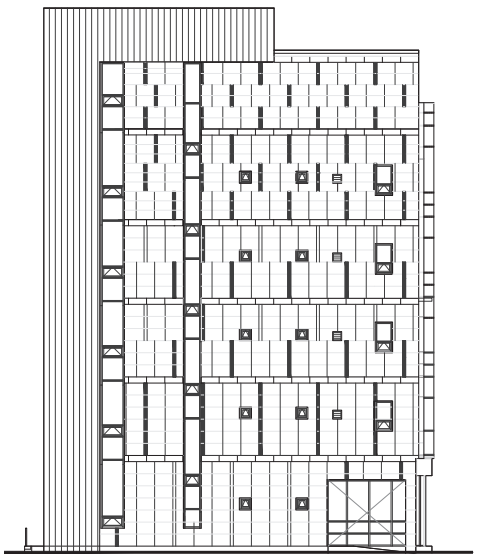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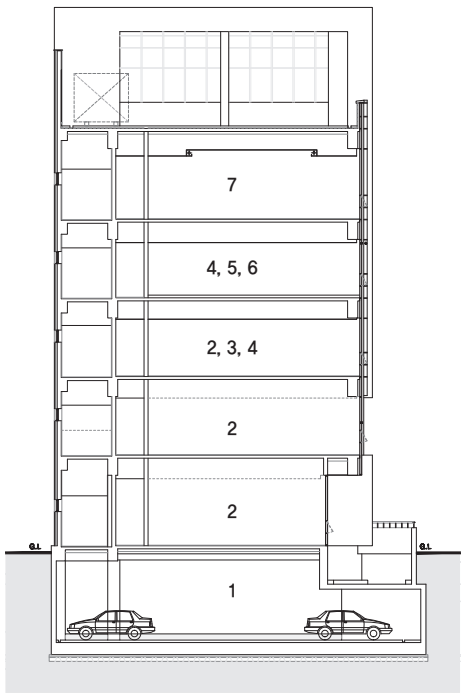
1. 지하주차장
2. 업무시설
3. 서고
4. 국장실
5. 컴퓨터교육장
6. 중회의실
7. 대강당



정면도



우측면도



횡단면도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_당선작

THE EXPERIENCE CENTER OF WOOD CULTURE FOR RED OREUM

발주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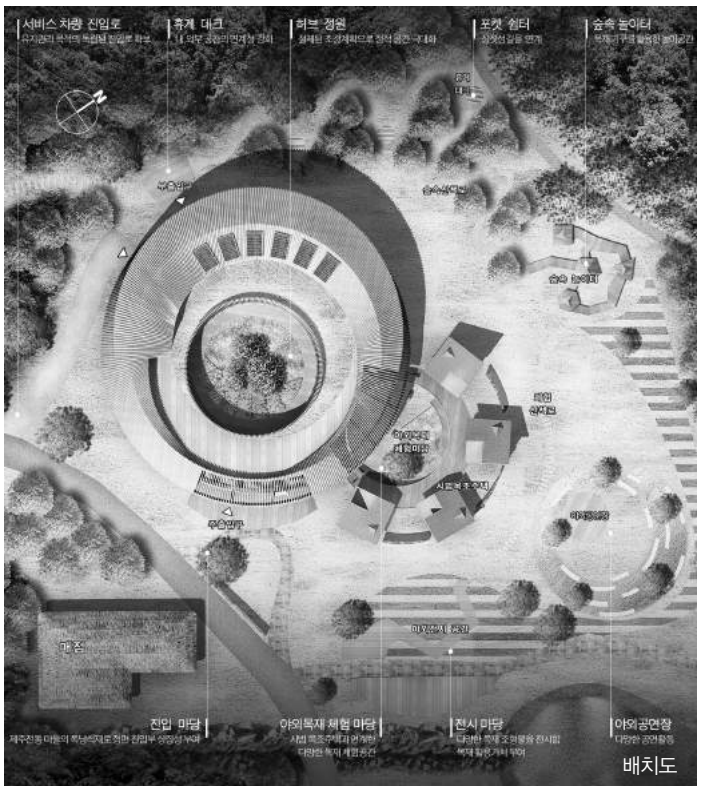
설계자 : 현군출 KIRA | ㈜토펙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박동진, 이현지, 고경찬, 김용철, 강경희, 박종범, 한지희, 김현아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58번지 (붉은오름자연휴양림내)
지역/지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휴양림구역
주요용도	수련시설
대지면적	1,900,000㎡
건축면적	2,640.25㎡
연 면 적	3,089.15㎡
건 폐 율	0.1390%
용 적 률	0.1626%
구 조	노출콘크리트조, 중목구조
규 모	지상 2층
주요마감	송판노출콘크리트, 적삼목, 목재루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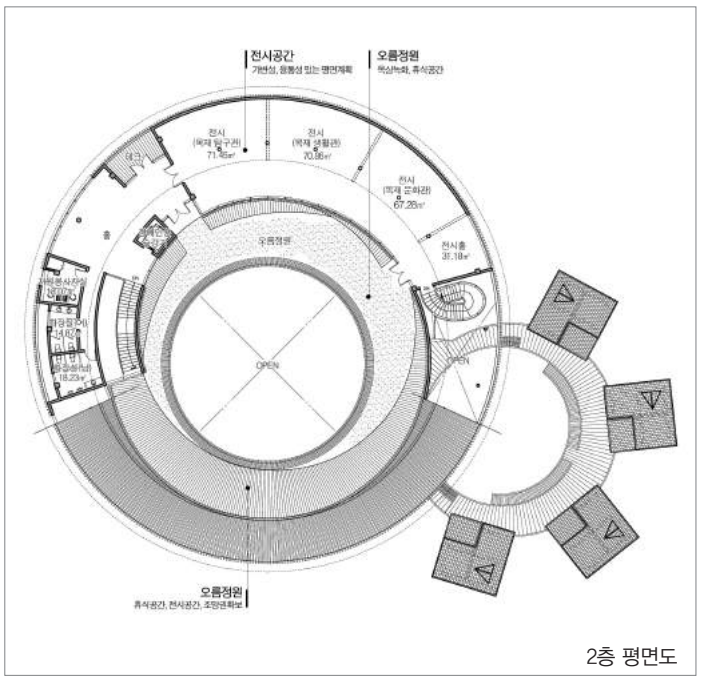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은 자연과 사람의 관계성에 가치를 두고, 자연 안에서 다양한 목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목재 문화의 중요성 홍보, 지속 가능한 목재문화 창달에 이바지하여 주변과의 공간적 관계 맺음을 통해 여유롭고 건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형태는 자연의 흐름 속에 또 하나의 오름을 형상화하여, 숲의 나무를 패턴화한 입면 계획으로 목제문화체험장의 정체성을 표출한다. 원형 매스에 목재문화의 확산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배치했으며, 중정을 중심으로 순환 흐름을 구성했다.

'자연 그대로의 휴양림'을 표방하는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은 상잣성 숲길, 붉은오름 건강등반로, 어우렁더우렁길 등 다양한 걷기 코스가 조성되어 있으며, 제주의 명품 숲길인 사려니 숲길과도 연결되어 있어 제주 숲길 걷기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이러한 주변 가치를 집약시키며,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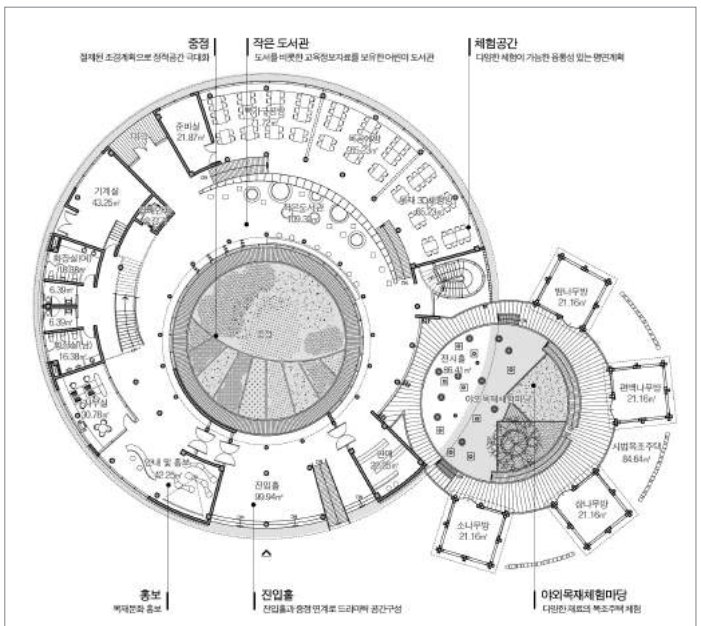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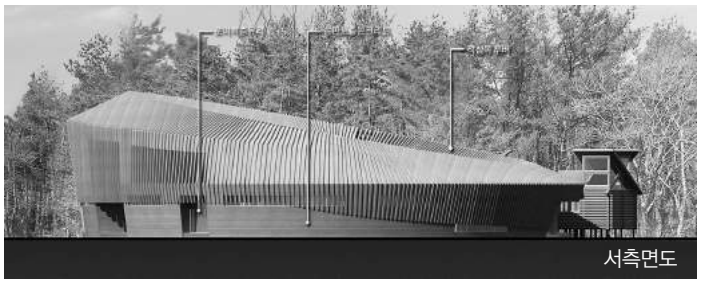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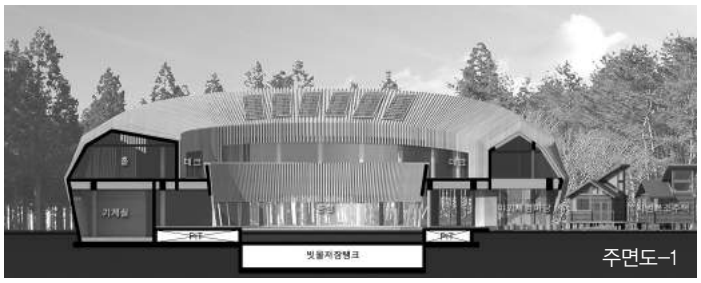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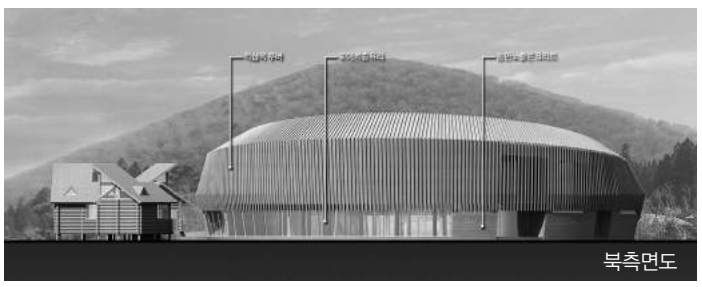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서측면도

남측면도



주면도-1


북측면도

주면도-2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_우수작

THE EXPERIENCE CENTER OF WOOD CULTURE FOR RED OREUM

발주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설계자 : 선은수, 강승종 KIRA |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설계팀 : 김우준, 고경임, 허동호, 강판석, 안재정, 홍순지, 박근부, 이충은, 변정현, 김민준, 박선욱, 장형훈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58번지 (붉은오름자연휴양림내)
지역/지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휴양림구역
주요용도	수련시설
대지면적	10,000,000㎡
건축면적	2,656.52㎡
연 면 적	3,009.50㎡
건 폐 율	0.140%
용 적 률	0.073%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목구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주요마감	외부 – 외부용 목재패널, 로이복층유리, 목재루버 내부 – 대리석, 삼나무 목재패널, 목재 천정루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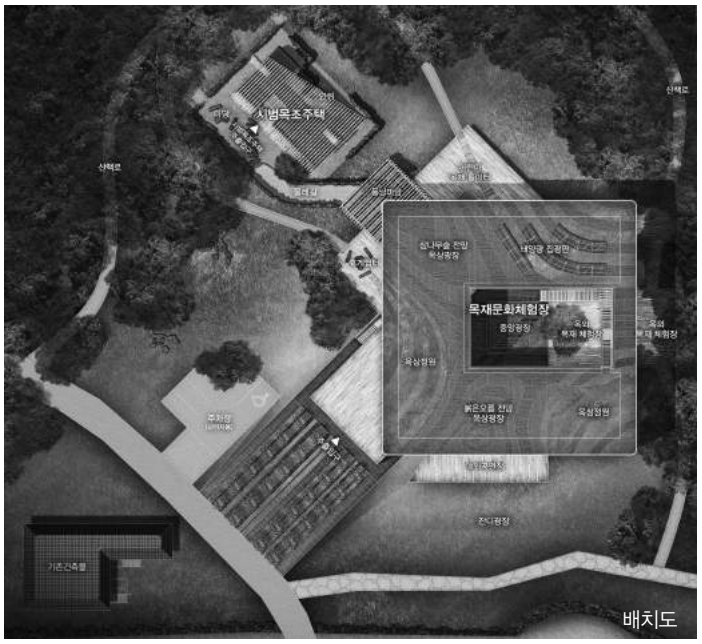
삼나무숲과 소나무숲을 최대한 보존하며, 주변 자연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목재체험장과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이 서로 공생하는 공간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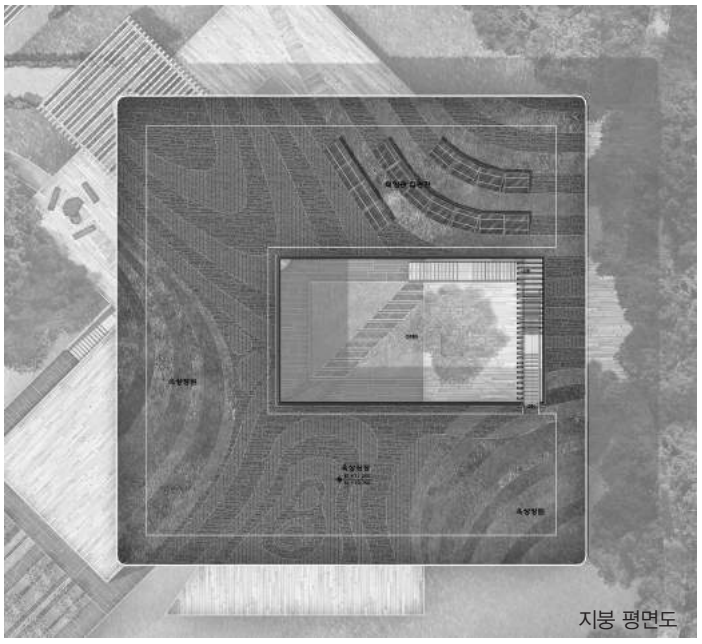
기존 자연휴양림과 외부공간, 목재체험장 및 목조주택과 산책로 등 내,외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결 동선을 가지며, 모든 면으로 붉은오름과 한라산 및 다양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삼나무숲과 소나무숲 지대의 수직적인 느낌과 소통하며, 붉은오름의 수평적인 느낌과 조화롭게 엮이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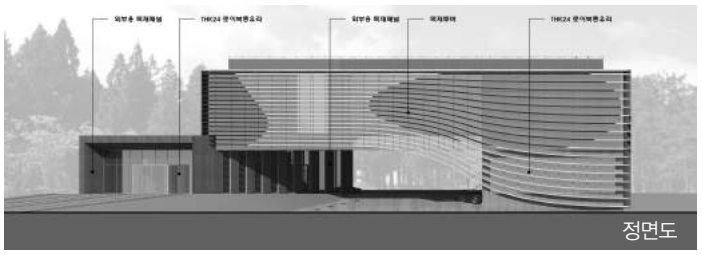
자연으로 열린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매스의 비움으로 사잇공간이 형성되고, 사면으로 다양한 시야를 확보하며, 내부 중정을 통하여 자연과의 연계성을 갖는 쾌적한 공간을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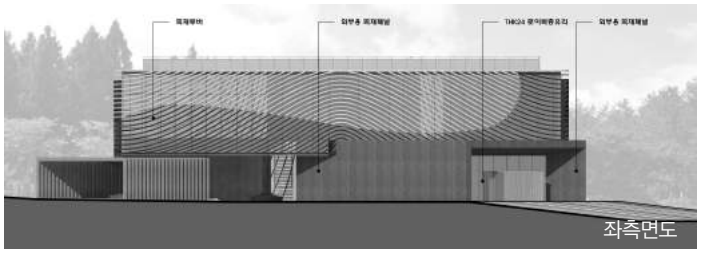
오름 및 산능선의 곡선과 삼나무숲과 소나무숲의 수직성을 고려하여 형성된 루버는 주변 자연환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시각적 효과를 가지며 자연과 연계성을 형성하고, 숲의 기억을 담은 나이테와 같이 자연이 가지는 시간의 변화를 입면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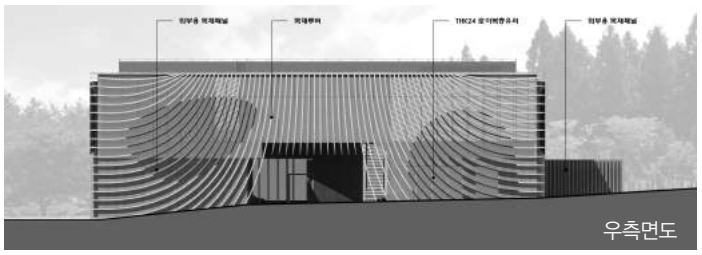
기존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스를 띄워 다양한 외부공간을 형성했으며, 주변 삼나무숲과의 관계성을 형성한다. 그리고 지형의 흐름에 순응한 매스를 통해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허물어 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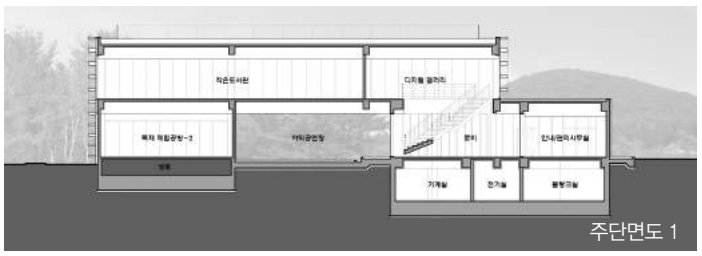

시범목조주택
목재문화체험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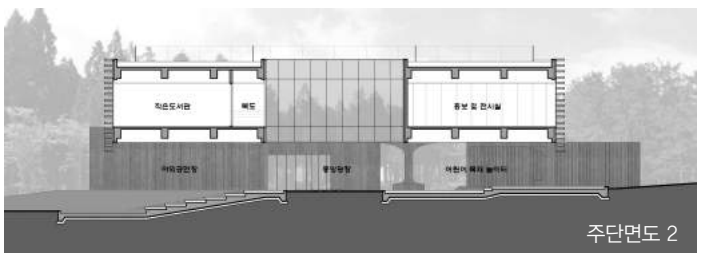

지붕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주단면도 1


주단면도 2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_가작

THE EXPERIENCE CENTER OF WOOD CULTURE FOR RED OREUM

발주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설계자 : 김시범 KIRA |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케이
설계팀 : 박남용, 김수이아, 김수연, 정세미, 한욱진,
고유, 강민주 / 박희찬_Urban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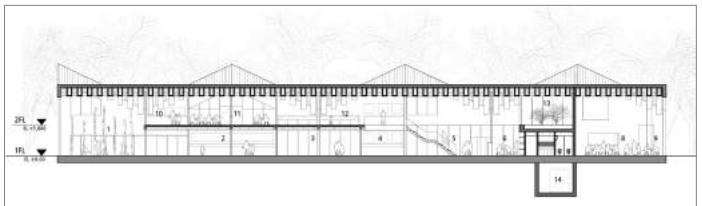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58번지 (붉은오름자연휴양림내)
지역/지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휴양림구역
주요용도	수련시설
대지면적	1,900,000㎡
건축면적	2,746.24㎡(증축 1,186.40㎡)
연 면 적	3,141.44㎡(증축 1,524.03㎡)
건 폐 율	11.86%
용 적 률	14.695%
구 조	목조구조, RC구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주요마감	삼나무목재루버, THK24 로이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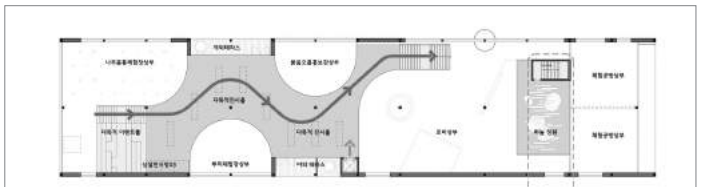
우리가 제안하는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에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는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목재 전시물이 되기를 바란다. 목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극대화하여 공간화시킴으로써 방문자들에게 새로운 공간적 경험을 제공하고, 전시물을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 오감을 통해 목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인접한 삼나무숲을 건물 내로 적극 유입하는 계획을 다양하게 구상하고 숲과 맞닿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여 방문자가 다양한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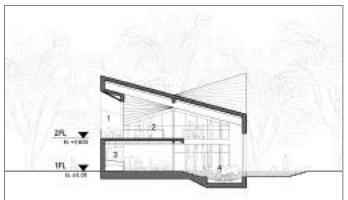
한국전통목조건축물의 백미 중 하나는 기와를 얹은 지붕 처마의 곡선이다. 곧게 다듬어진 목재들로 만든 서까래들은 이중으로 조합된 겹처마를 떠 받치며, 유려하고 날아갈 듯 보인다. 우리는 이처럼 아름답고 구조적으로 안정된 한국의 전통목조건축의 곡선미를 단순히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공간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런 새로운 공간은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공간적 체험을 제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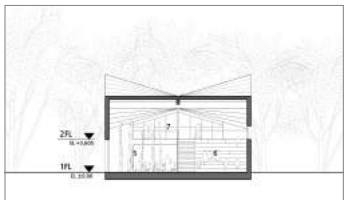
붉은오름자연휴양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대지는 울창한 삼나무숲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새로 들어설 목재문화체험장은 주변 자연환경에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건축물로서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물론,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알맞은 건물의 형태와 더불어 건축재료 선정, 시공 과정, 건물 운영 및 관리까지 친환경적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들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올바른 건축물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설계에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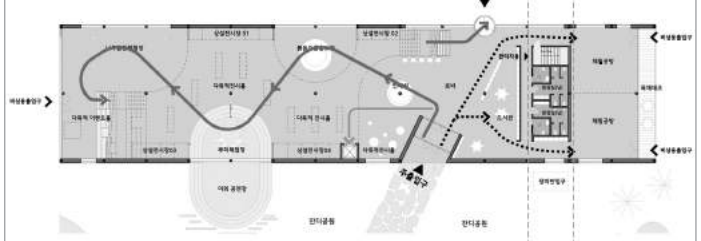
배치도


횡단면도


2층 평면도


종단면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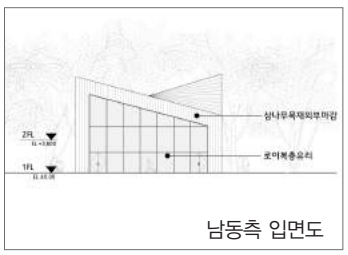

종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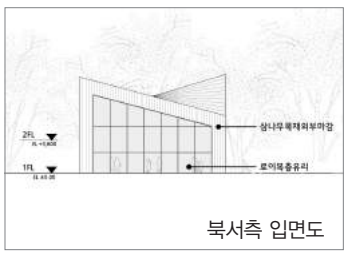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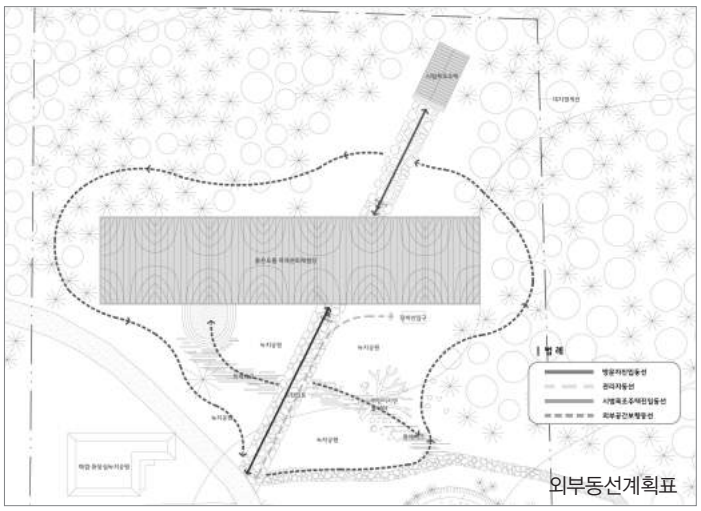
남서측 입면도

지하 1층 평면도

북동측 입면도


남동측 입면도


북서측 입면도


외부동선계획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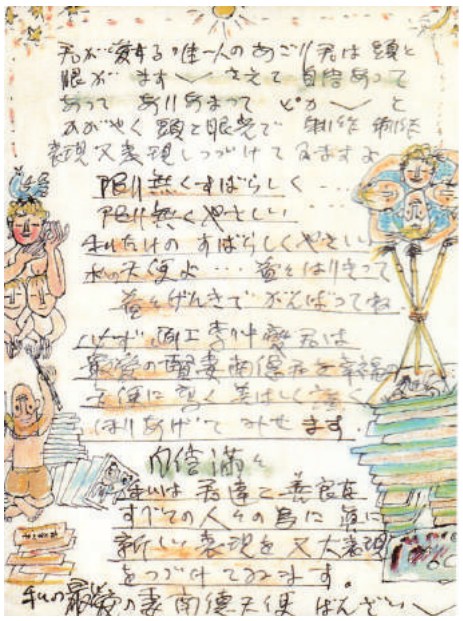
“나의 귀여운, 나의 기쁨의 샘 가장 아름다운 나의 아내”

“My adorable, beautiful wife who is fountain of happiness”

– 50년대의 기러기 아빠 이중섭의 애절한 연애편지 –

정이숙 | 비트윈커뮤니케이션 대표

판잣집 화실_ 종이에 수채와 잉크 26.8×20cm



부인에게 보낸 편지_ 종이에 잉크와 색연필

나의 귀엽고 소중한 남덕 군!

…(생략)… 지금까지 나는 온갖 고생을 해왔소. 우동과 간장으로 하루에 한 끼 먹는 날과 요행 두 끼 먹는 날도 있는, 그런 생활이었고. 열흘 전쯤부터는 심한 기침으로 목이 쉬고 몸도 상당히 피곤한 상태요. 지난 겨울에는 하루도 옷을 벗고 잘 수가 없었고 최상복 형이 갖다 준 개털 외투를 입은 채 매일 밤 새우잠이었고. 불을 땔 수 없는 사방 아홉 자의 냉방은 혼자 자는 사람에겐 더 차가워질 뿐 조금도 따뜻한 밤은 없었소. 게다가 산꼭대기에 지은 하꼬방이기 때문에 거센 바람은 말할 나위가 없소.

춥고 배고픈, 그런 괴로운 때는… 사경을 넘어 분명히 아직도 대향 [1]은 살아남아 있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만난다는 희망과, 생생하고 새로운 생명을 내포한 ‘믿을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지시하고 행동하는 회화를 그릴 수 있다는 희망으로 참고 견뎌왔던 것이오. 지금부터는 진지하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의 생활 안정과 대향의 예술 완성을 위해서 오직 최선을 다할 작정이니 나의 귀엽고 참된, 내 마음의 주인 남덕군, 대향을 굳게 믿고 마음 편하게 밝고 힘찬 장차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지내주시오. (중략) 나의 소중하고 귀여운 사람이여!

참 화공인 중섭 대향 구촌을 마음으로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주시오. 나의 소중한 보배, 발가락군을 소중하게 아껴주시오. 1953년 3월

작은 엽서화 4장의 추정가격이 3억을 웃도는 화가 이중섭이 생활고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 친정에 가 있는 일본인 부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고 냉방에서 옷을 입고 잔다는 기막힌 사연이 현재 그이의 그림값에 오버랩되며 안타까움을 불러 일으킵니다. 1916년 평안남도 평원의 대지주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 다섯 살 때에는 사과를 주면 먹기 전에 그리고 먹었다는 이중섭, 스물 둘에 자유미술가협회 제2회 공모전에 출품해 수상을 하고 평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중섭, 일본 문화학원의 후배이며 애인이었던 야마모토 마사코(한국명, 이남덕)가 전쟁 중의 끔찍한 공습을 뚫고 홀로 현해탄을 건너와 이름을 한국이름으로 바꾸고 결혼을 할 만큼 멋진 남자 이중섭! 그러나 한국전쟁과 월남 후의 생활고는 그의 가족을 흩어 버렸고 건강을 망쳐 놓았으며 겨우 마흔이라는 아까운 나이에 영양실조와 간염으로 그의 목숨마저 앗아가 버렸습니다. 1952년 헤어진 가족과는 56년 9월 눈을 감을 때까지 딱 한 차례 겨우 6일을 만났을 뿐입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은 그에게 끝없이 바다 건너로 띄우는 편지를 쓰게 했고, 아이들에게 보내는 그림엽서와 아이들을 그리게 했고, 사랑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살뜰한 사람, 나 혼자만의 기차게 어여쁜 남덕 군!

…(생략)… 이번에 도쿄에서 당신과 함께 보낸 6일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버려서 정말

부부_ 1953년 무렵 종이에 유채 51.5×35.5cm

길 떠나는 가족이 그려진 편지_ 1954년
종이에 연필과 유채 10.5×25.7cm

소와 여인_ 1941년 5월 29일자
소인 종이에 먹지로 베껴 그리고 수채 9×14cm

꿈을 꾸고 온 것만 같소. 당신과 하고 싶었던 가지가지 얘기… 한 가지도 못하고 돌아온 것만 같아서 한이 되오. (중략) 나는 지금 당신을 얼마나 격렬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당신과 헤어진 이후 날이면 날마다 공허해서 견딜 수가 없소. 다음에 가면 남덕의 모든 것을 두 팔에 꽉 껴안고 내 곁에서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결코 놓지 않을 결심이오. 대향은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남덕 군의 모든 것을 굳세게 사랑하고 있소.

1953년 8월(추정)

어려운 처지였지만 이중섭은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언제나 애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부인의 발가락이 예쁘다고 해서 '발가락군'이라는 애칭을 붙이고 발가락군이 자신의 '소중한 보배'라는 낯간지러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부인 또한 이중섭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고리'라는 애칭으로 남편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없이 억센 포옹 또 포옹과 열렬한 뽀뽀를 몇 번이고 받아 주시오. 발가락 군에게도 뽀뽀 전해주시오.'와 같은 21세기의 닭살 연인들 못지 않은 강도 높은 이야기도 편지에는 있습니다.

태현에게
나의 태현아 건강하겠지, 너의 친구들도 모두 건강하니? 아빠도 건강하다. 아빠는 전람회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아빠가 엄마, 태성이, 태현이를 소달구지에 태우고 앞에서 황소를 끌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함께 가는 그림을 그렸다.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한없는 그리움과 아빠로서 해주고 싶은 일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번에 아빠가 빨리 가서… 보트를 태워 주마.'라거나 '전람회가 끝나면 곧 아빠가 도쿄에 가서 자전거를 사줄게…' 라는 약속의 말들이 편지마다 담겨 있습니다. 아빠의 편지를 받고 아이들은 얼마나 들떴었을까요? 오지 않는 아빠를 기다리다 또 얼마나 실망했었을까요? 남편 없이 남겨진 가족들이 살아온 사연은 굳이 듣지 않아도 가슴이 아파옵니다. 다행히 부인과 두 아들은 건강하게 생존해 있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도쿄에 갔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온 사연에 대해서는 부인이 재일교민잡지《월간 아리랑》과의 인터뷰를 통해 십여 년 전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고 두 아이와 함께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1953년 1년 반 만에 남편이 시모노세키를 통해 도쿄로 왔어요. 밀항이었지요.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쿄까지만 오는 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대요. 그 사람은 남편에게 훗날 명예 훼손될 일은 안 하는 게 좋다며 반드시 기일 안에 귀국하라고 단단히 다짐을 받았다고 해요. 이 대목이 한국에서는 마치 내가 그를 억지로 돌려보낸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중섭과 헤어진 후 홀로 살아온 이남덕 여사의 나이 이제 91세. 최근에는 그녀가 직접 주연을 맡는 다큐 영화「이중섭의 아내」가 일본인 감독 사카이 아쯔꼬에 의해 제작 중에 있다는 뉴스도 들립니다. 지난 6월 촬영을 시작해 11월에 이남덕 여사가 제주도와 통영을 방문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내년 9월 개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회를 한 뒤 직접 수금을 열심히 하러 다닌 사연,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에 여념이 없다는 사연이 구구절절 적혀 있는 이중섭의 편지에 많은 기러기 아빠들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뜨거운 애정표현을 읽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환해지는 그의 그림 뒤에 남겨진 가장의 무거운 연애편지가 긴 겨울 밤, 오래도록 잠 못 들게 합니다.

1) 대향, 구촌은 모두 이중섭의 호

※ 편지와 그림은 이중섭 편지와 그림들(이중섭 지음/박재삼 옮김, 다빈치)에서 인용했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이중섭의 편지들은 모두 일본어로 쓰인 것을 박재삼이 옮긴 것입니다.

인근 주민의 통행로가 막히게 됨을 이유로 행정청이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을까?

Can administrative office reject Architectural acceptance of a report cause of block off neighborhood residents passage?

박시준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A는 토지를 경매 절차에서 취득하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관할구청은 A가 건축신고 내용대로 건물을 신축하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여 오던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가 막히게 됨을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는 관할구청의 건축신고 수리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는 승소할 수 있을까요?

건축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에서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법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규율하면서도 일정 규모 이내의 건축물에 관하여는 신고제를 채택한 것은,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유 영역을 넓히는 한편, 행정 목적상 필요한 정보를 파악 · 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행정청에 미리 일정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4조 제1항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 건축법 제11조 제5항(이하 '인 · 허가의제조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각 호(이하 '인 · 허가의제사항')에서 정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규정하며, 제14조 제2항에서는 인 · 허가의제조항을 건축신고에 준용하고 있고, 나아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9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 · 허가의제조항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이러한 인 · 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 · 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 · 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 · 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 · 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 · 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현재의 토지이용실태가 위법하다고 판명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은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 어려워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 · 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 · 허가의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의 침해나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 · 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 · 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 · 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 · 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 사건 건축신고는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에 관한 것으로서,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됨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봄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래의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었고, 그에 따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곳에 이 사건 건축신고 내용대로 건물이 신축되면 인근 주민들이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매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이나 매각물건명세서 또는 집행기록의 열람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위치, 현황과 부근 토지의 상황 등을 미리 점검해 볼 것이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되기 때문에, A도 이 사건 토지가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어 원래의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수인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근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현재의 토지이용실태가 위법하다고 판명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은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 어려워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A에 대하여 건축신고 수리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소송에서 A의 승소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11.1.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 참조).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상(完)

The Establishment of Network Economy between Seoul and Pyongyang

한반도의 미래 신성장 동력, 창조경제를 위한 새로운 제안

향후 한국 건축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을 들자면 '남북통일'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부터 교통 · 통신 ·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도시 기반 시설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중동 붐을 뛰어넘는 엄청난 물량의 프로젝트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정치 상황에 비추어보면 통일은 상당히 요원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입장에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정치적 통합이 미진한 단계에서도 경제적 교류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하면 한국은 경제 성장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다. 한반도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바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창조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필자 | 민경태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 경제 · IT 전공

1992년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원에서 '건축역사 · 이론 및 도시설계' 분야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삼성건설에서 싱가포르 현장 등 해외 프로젝트를 담당하였으며, 이후 건축 디자인과 IT를 접목한 벤처기업 데코드림(주)를 공동 창업하여 운영하였다. 2003년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MBA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까지 삼성전자에서 신기술 소싱, 기술벤처 투자, 대외협력 업무 등을 담당해왔으며, 2013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Ⅲ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의 발전

The Development of Network Economy between Seoul and Pyongyang

서울–평양 경제권과 초국경 네트워크의 연계[1)]

서울–평양 경제권은 한반도를 K자 형태로 연결하는 광역 인프라망에 의해서 동북아의 초국경 네트워크와 연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K자형 광역 인프라망의 4개 종점은 신의주, 나진, 목포, 부산으로서 대륙 및 해양의 초국경적 네트워크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 신의주와 나진은 육상 교통망을 통해 중국, 러시아 등 대륙으로 연결되며, 부산, 목포, 나진은 항구도시로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뿐만 아니라 해양을 통해 전 세계로 연결되는 중요 거점이 될 것이다.

그림 1. 한반도의 K자형 광역 인프라망[2)]

서울–평양 경제권은 한반도 K자형 광역 인프라망의 중심에 위치하여, 주변국가로부터 한반도로 연결되는 모든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는 지경학적 최적지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각 지역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로서, 서울–평양 경제권의 발전된 산업 및 인프라 역량을 한반도 전역으로 파급시키기에도 유리하다. 아울러, 중국 경제의 비중 확대로 인해 환황해 경제권과의 연결이 용이한 서해안 도시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포항 · 해주항 · 인천항은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서울과 평양은 고속 철도 및 도로에 의해 동북아의 초국경적 네트워크와 연계된다. 해양과 직접 맞닿아 있지 않지만 인근에 위치한 남포항과 인천항을 통해서 서해안으로 연결이 용이하다. 인천공항은 이미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초고속 육상교통망을 통하면 인천공항과 한반도 각 지역을 빠른 시간 내에 연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300km 이내의 지역은 별도의 공항시설에 투자하기보다 인천공항과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림 2. 아시안 하이웨이 (Asian Highway, AH)[3)]

동아시아의 네트워크 허브로 성장시키려는 한반도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핵심 경제권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동북아 지역 간 네트워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동북

1) 이 단락은 민경태,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축을 통한 한반도 성장전략 구상』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p. 119–122 내용의 일부를 발췌 및 수정하였음.
2) 민경태,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축을 통한 한반도 성장전략 구상』, p. 119.
3) UNESCAP, 2007 자료 참조; 이상준 외, 『한반도의 비전과 개방형 국토발전 전략』 (안양: 국토연구원, 2009), p. 63 에서 재인용.

아 통합 물류체계에서 한반도가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 · 중 · 일 핵심 경제권의 연계구조와 동북아에 형성된 간선교통망 및 물류망 체계를 감안하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 구조가 가능하다. 동북아 역내 순환 교통 · 물류 체계는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 범아시아 철도망(TAR, Trans-Asian Railway), 중국 및 일본 간선철도망 및 지역 물류망에 의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및 한반도를 연결하는 교통 · 물류망 융합에 의한 통합체계 구축은 동북아 핵심 경제권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역내 교류 활성화에 의한 상생적 부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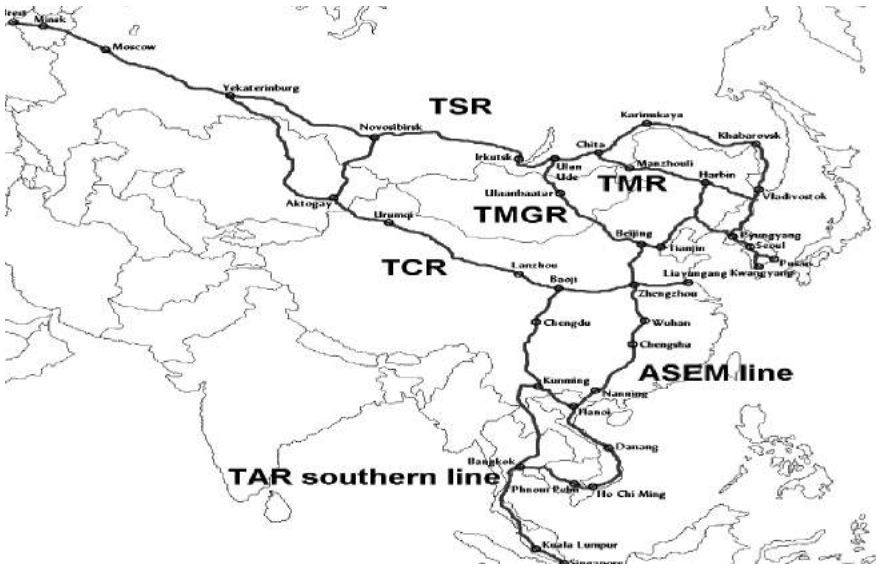


그림 3. 동북아 간선철도 네트워크 [5]

한반도는 환황해 경제권과 환동해 경제권을 동서 양측에 가지고 있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환황해 경제권은 중국 동부지역의 핵심경제권과 한반도 서부지역을 포괄하는 인구 약5억 명, 총 GDP 1.4조 달러의 시장이며, 환동해 경제권은 일본과 남한의 동부지역,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포함하는 인구 약1.4억 명, 총 GDP 5.6조 달러의 시장이다.

한반도가 보유한 전략적 관문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 동북아의 교류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한반도는 한반도 종단철도(TKR, Trans-Korean Railway)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Trans-Siberian Railway)의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건설, 항만 및 공항 연계, 극동 러시아 천연가스 연결 등을 통해 동북아 물류 및 에너지 협력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6]

북한의 광역경제권별 경제특구 연계 방안

북한 지역을 광역경제권별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전체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통해서 각 광역경제권들을 서로 연결시키면, 상호보완적 네트워크 경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지경학적 특성과 산업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북한의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최근 공개된 경제특구 개발관련 기사를 통해서 북한 당국이 추진 중인 개별 프로젝트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다.

북한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2011년에 설립했던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최근에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하였다. 또한 산하기관으로 민간단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출범시켰으며, '국가급 경제특구' 및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발표하였다.

이 기관들을 통해 경제특구와 관광특구의 외자 유치 및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14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했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서 라진 · 선봉, 황금평 · 위화도, 개성공단, 금강산 등 4개 특구는 이미 지정되었던 특수경제지대들이며, 추가로 개성첨단기술개발구, 신의주, 평성, 남포, 강령, 해주, 온성 등 7개 특구와 원산, 칠보산, 백두산 등 3개의 관광특구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7]

또한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13곳으로서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경제개발구,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개발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외국기업에 50년 동안 토지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발구의 개별 면적은 4㎢ 이하로서 개성공단(66㎢)이나 황금평 · 위화도(23㎢)보다는 훨씬 적은 규모이며, 외자유치 목표는 개발구별로 7천만~2억4천만 달러 수준이다.[8]

4) 이상준 외, 『한반도의 비전과 개방형 국토발전 전략』, pp. xxxiii-xxiv.
5)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이상준 외, 『한반도의 비전과 개방형 국토발전 전략』, p. 63 에서 재인용.
6) 이상준 외, 『한반도의 비전과 개방형 국토발전 전략』, p. 43.
7) "북한, 경제특구 어디에 만드나?," 『CBS노컷뉴스』, 2013년 10월 29일.
8) "北, 경제특구 14곳 신설 외국기업에 50년 토지이용권 부여," 『아주경제』, 2013년 10월 28일.

〈표 1〉 북한지역 4대 광역경제권별 경제특구 연계방안 [9]

한반도 광역 경제권	행정 구역	14개 중앙급 경제특구 (기존+전망)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확정 발표)
북서부	평안북도 자강도	신의주 경제특구 (신규) 황금평 경제특구 (기존)	압록강 경제개발구(농업, 관광휴양, 무역) 만포 경제개발구(농업, 관광휴양, 무역) 위원 공업개발구(광물자원, 목재, 농토산물)
북동부	함경북도 양강도	나선 경제특구 (기존) 온성 경제특구 (미확정) 칠보산 관광특구 (미확정) 백두산 관광특구 (미확정)	어랑 농업개발구 (농축산, 농업과학연구) 청진 경제개발구 (금속가공, 기계제작, 건재) 온성섬 관광개발구 (외국인대상 관광개발) 혜산 경제개발구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
중동부	함경남도 강원도	금강산 관광특구 (기존) 원산 관광특구 (미확정)	북청 농업개발구 (과수, 과일종합가공, 축산) 흥남 공업개발구 (보세가공, 화학, 건재, 기계) 현동 공업개발구 (정보산업, 경공업)
메가 수도권	평안남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개성 공업지구 (기존) 개성 첨단기술개발구 (미확정) 평성 경제특구 (미확정) 남포 경제특구 (미확정) 강령 경제특구 (미확정) 해주 경제특구 (미확정)	와우도 수출가공구 (수출지향형 가공조립) 신평 관광개발구 (유람, 탐승, 휴양, 체육, 오락) 송림 수출가공구 (수출가공, 창고보관, 화물)

북한이 추진 중인 중앙급 경제특구와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각 시 · 도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들을 한반도 6대 광역경제권 중 북한지역과 관련된 4대 광역경제권으로 분류해 보면 〈표 1〉과 같다. 13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2013년 11월 21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의해서 공식 보도되었으며, 향후 이들 지역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10] 하지만, 중앙급 경제개발구는 이제까지 발표된 내용과 함께 추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전망한 것이므로 변동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최근에 북한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 개발 계획은 향후 남북 경제협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

주목할 부분은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계획에서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추진대상 주력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농업개발구는 농축산기지, 농업과학연구단지, 과일가공, 농축산업 등을 주력사업으로 하며, 공업개발구는 광물자원, 목재 · 농토산물 가공, 경공업, 화학제품, 기계설비, 정보산업 등을 주력사업으로 한다. 또한 수출가공 · 창고보관 · 화물운송을 위한 수출가공구, 관광 · 휴양 · 체육 · 오락을 위한 관광개발구, 다양한 산업 분야가 복합적으로 포함된 경제개발구 등으로 구별하였다. 따라서 중앙급 경제특구 및 지방급 경제개발구별로 특화된 산업들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살펴보면, 해당 광역경제권의 미래 산업구조와 네트워크 경제의 운용 방향을 예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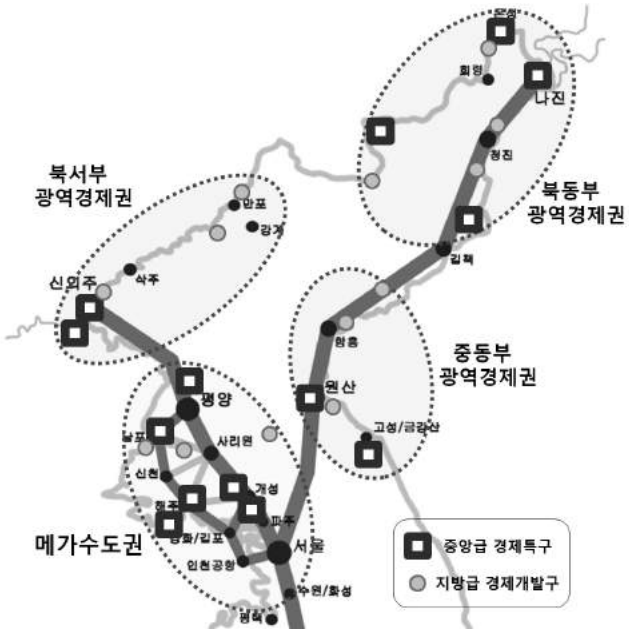


그림 4. 북한지역 4대 광역경제권과 경제특구의 연계 전망 [11]

주변 국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그림 4〉에는 북한의 4대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중앙급 경제특구 및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비록 지금은 각 경제특구들이 분절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향후 남북한의 상호보완적 경제협력이 진행되면서 광역경제권별로 네트워크 경제가 구축되는 상황을 전망해 본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경제를 개발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국가의 영토적 경계에 따라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경제적 협력 관계의 관점에서 영역을 설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북서부 광역경제권은 단둥(丹東), 지안(集安)을 포함한 중국의 주변 지역과 함께 연계되고, 북동부 광역경제권은 중국의 옌지(延吉), 훈춘(琿春), 창바이(長白) 및 러시아의 하산(Khasan)을 포함하는 주변 지역과 함께 연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광역경제권의 초국경적 협력체계는 단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만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교통 · 통신 · 에너지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연결이 가능한 모든 경제권과의 연결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나진항을 이용하고자 하는 몽골의 경우 북동부 광역경제권의 네트워크에 포함될 수 있으며, 원산항을 거점으로 북 · 일 경제협력이 진행된다면 중동부 광역경제권의 네트워크에 일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광역경제권들은 각자가 보유한 지경학적 특성과 장점을

9) "北, 외자유치 위해 평양 인근까지 개방," 『동아일보』, 2013년 10월 28일; "북한, 경제특구 어디에 만드나?," 『CBS노컷뉴스』, 2013년 10월 29일; 기사 참조하여 작성.
10) "北, 신의주 등 경제특구 14곳 개발," 『매일경제』, 2013년 11월 22일.
11) 4대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경제특구의 위치를 표시하였으나, 일부 중앙급 경제특구는 미확정임.

활용하여 국경을 초월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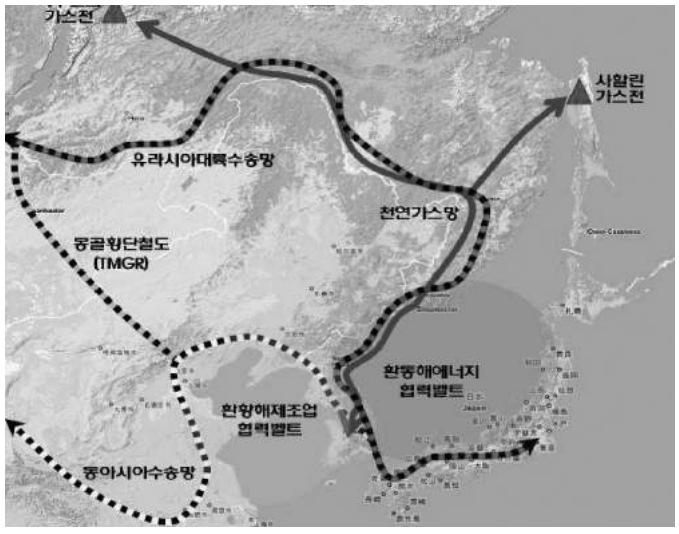


그림 5. 한반도의 인프라 협력 잠재력 [12]

광역경제권의 국경을 초월한 협력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와도 부합한다. 중국의 경우, 국가 정책을 담고 있는 12.5 규획(제12차 5개년 계획, 2011-2015)에서는 접경지역 개발 추진 내용을 포함하였다. 과거의 동부 연안 중심 도시화와 성장에서 탈피하여 소외된 지역의 2차 도시화를 통해 지역격차를 축소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과의 변방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북한과의 접경지역 개발 및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랴오닝성(遼寧省), 지린성(吉林省) 등 지방 경제 성장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동북3성 진흥계획의 일환으로 창춘(長春), 지린(吉林), 투먼(圖們)을 연결하는 창지투 개발 계획은 결국 나진항으로 물류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초국경 개발협력 노력을 활용하면서 이를 한반도의 전략적 이익으로 연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경우, 에너지 및 물류 수송 분야를 중심으로 연해주 지역과 북한을 연계하는 개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물류협력 사업, 철도 · 항만 사업 등을 연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시베리아 등 극동 지역 개발에 공을 들이는 러시아는 북한과 진행 중이던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희망해 왔다. 극동개발의 재원이 필요한 러시아로서는 외국 기업의 투자가 필요했는데, 중국이나 일본 자본보다는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선호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에 대한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했으므로 양국 간의 상생협력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13]

한반도와 동북아 주변국가 협력의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초에는 두만강 하류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개발과 투자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2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두만강개발계획(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이 출범하였다. 이를 2005년에 사업대상 지역범위를 확대하고 공동기금을 설립하는 등 추진체계를 강화해 GTI로 전환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중국의 동북3성 및 내몽골, 몽골의 동부지역, 북한의 나진 · 선봉 및 두만강 유역, 러시아의 연해주, 한국의 동해안 지역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이다. GTI 제14차 총회에서는 2016년까지 독립적 국제기구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교통 · 무역투자 · 관광 · 에너지 · 환경 분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개발지향적 조직으로 전환하고 일본과 북한의 참여도 추진하기로 하였다.[14]

북한 경제특구의 발전 가능성

최근 발표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계획과 개발구 투자제안서에는 과거와는 달리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상지역의 지리적인 특성과 장점, 추진 가능성, 전력과 용수 등 주변 인프라 상황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으며, 기존의 다른 경제개발 계획서보다 구체적이고 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수도인 평양 인근에 개발구를 조성하고 평양과의 인접성을 내세워 외자 유치를 추진하는 등 유례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북한 전 구역을 외자유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 기업과의 합영 기업 형태만이 아니라 해외 투자자가 단독으로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지역도 상당수 있다.[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북한의 노력이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예상된다. 북한 경제특구 개발 계획은 외자유치 및 국제협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성공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특히, 투자의 안정성 보장, 분쟁 시 해결방법, 근로자의 임금 등 구체적인 사안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성공단에서도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3통(통행 · 통신 · 통관) 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못하면 해외 자본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남한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주요 도시와 경제특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건을 가정하여 북한 경제특구의 발전 가능성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12) 이상준 외, 『한반도의 비전과 개방형 국토발전 전략』, p. 43.
13) "나진-하산 개발참여, 남북보다는 한 · 러 관계 복원차원," 『연합뉴스』, 2013년 11월 14일.
14) "2016년까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국제기구화 추진," 『뉴스핌』, 2013년 10월 30일.
15) "北, 외자유치 위해 평양 인근까지 개방," 『동아일보』, 2013년 10월 28일.

경제특구는 제한된 소규모 영역으로서 현재로서는 일반주민의 접근이 통제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공간이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주의 체제 국가 내에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이 많아지고 성장하면서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서로 연결되면 '선'으로 발전할 수 있고, 영역을 점점 확대해서 점과 선의 연계 수준이 높아지면 '면'이라고 볼 수 있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특구는 미래에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북한 경제특구의 미래 비전을 조망하기에 좋은 사례로서 중국 쑤저우(蘇州) 공업원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1994년 중국 최고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의 결단에 따라 중국과 싱가포르의 합작이 진행되었다. 싱가포르는 자국기업을 위한 해외공단을 필요로 했고, 중국은 해외 투자유치에 성공한 싱가포르의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건설 초기 도시계획, 기반시설, 물류시스템, 공단 인력의 채용과 급여, 사회보험제도까지 싱가포르의 방식과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였다. 공단 운영의 실무를 맡고 있는 관리위원회가 투자 유치, 비준, 해외 투자자에 대한 비자 발급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독자결정권을 가질 수 있었다. 기업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노력을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에 성공한 사례이다.

지난 8월에 남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당국간 상설협의기구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쑤저우 공업원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실제로 개성공단 남북한 관계자는 2004년과 2009년 등 수차례에 걸쳐 쑤저우를 방문한 바 있다.[16]

최근 북한은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개성 첨단기술 개발구' 건설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과 북한 유관기관들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컨소시엄에는 싱가포르의 주룡 및 OKP 부동산회사, 홍콩의 P&T 건축 · 공정회사 등이 참여한다고 소개했다.[18] 또한 국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원산 관광특구 개발계획도'는 북한의 기존 계획도와 달리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싱가포르 도시설계 전문가들이 북한 당국과 상의해 계획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며 설계를 위해 수차례 북한을 방문했다는 내용도 알려졌다. 싱가포르가 원산 관광특구 개발에 1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있다. 또한 신의주–평양–개성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및 철도 계획도 전해지고 있는데, 고속도로는 왕복 4차선이고 철도는 복선이다. 각각 길이 376㎞로 계획되었으며, 신의주–평양 구간은 187㎞, 평양–개성 구간은 189㎞에 이른다.[19]

물론 이러한 계획들의 실현 가능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해외 기업과의 다양한 경제특구 개발 협력을 시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여 진다. 만약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경제특구 개발과 교통망 구축 계획들이 실현된다면 네트워크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 광역경제권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분절적인 점으로서의 경제특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과 면으로 확대 발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보유한 광역경제권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북한 자체적으로 제한적인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남한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상'을 주제로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아직 현실은 어둡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희망의 씨앗을 품고 준비하는 자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는 가슴 뛰는 건설 프로젝트들을 한국 건축계가 추진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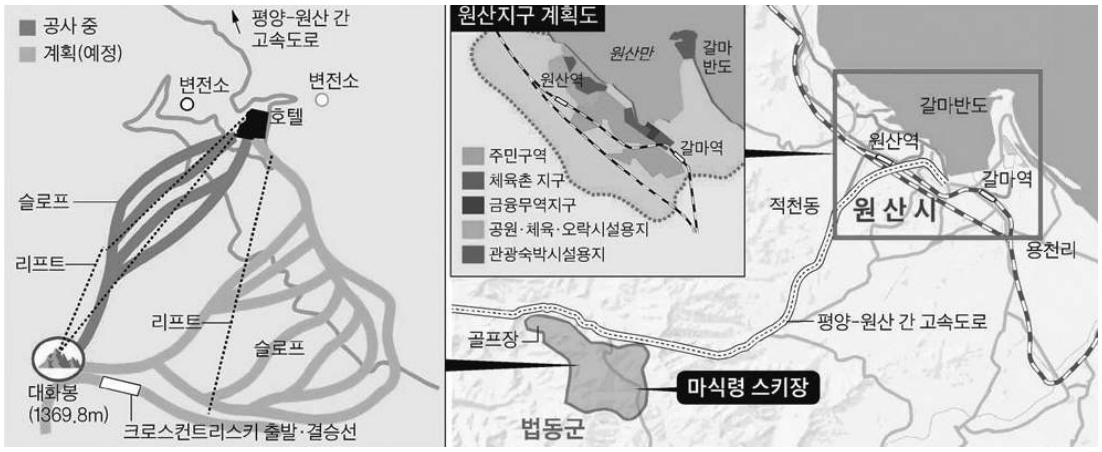


그림 6. 원산 관광특구 개발계획도 [17]

16) "개성공단의 '벤치마크' 중국 쑤저우공업원구," 『연합뉴스』, 2013년 10월 25일.
17) "김정은, 원산에 관광특구 만든다," 『중앙일보』, 2013년 6월 26일.
18) "개성을 첨단 경제특구로, 북한 독자적 외자 유치 나서," 『한국일보』, 2013년 10월 18일.
19) "장밋빛 원산 특구 싱가포르에서 150억 달러 투자?," 『주간동아』, 2013년 9월 30일.

식민지배체제의 구축과 도시 그리고 건축의 변화

Architecture and Urbanism in Building the Colonial Regime in Korea

안창모 |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역사문화환경보존프로그램 주임교수

1910년 대한제국의 식민지화는 서울은 물론 전국의 도시와 건축의 모습을 크게 변모시켰다. 그러나 나라가 일본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되었음에도, 어떤 과정을 거쳐 식민지의 모습이 구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지금까지의 일제강점기의 도시와 건축의 모습에 대해서는 대도시에 건설된 몇몇 이름을 얻은 건축물들이 식민지기 건축과 도시의 모든 것인 듯 이야기 되어왔고, 우리는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지내왔다. 일제강점기는 물론 일제강점으로 우리의 도시와 건축이 어떻게 식민지배 체제에 편입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부족으로 식민지화 과정의 도시와 건축의 모습은 물론 식민지기의 도시와 건축의 모습을 온전하게 그려내기는 매우 어렵지만, 근래들어 급증하는 근대도시와 건축에 대한 관심은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의 도시와 건축이 일본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해방이후 우리는 어떻게 오늘의 모습을 만들어왔는지에 대한 전모를 밝혀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금번 호에서는 앞으로 본 연재에서 다루어질 일제강점기 도시와 건축의 모습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보고자 한다.

일제강점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며, 동시에 식민지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일인 지배관료의 한반도 이주가 이루어졌다. 만일 일본의 식민지배 목적이 유럽이 동남아시아에서 이루어진 유럽국가의 식민지배와 같은 목적이었다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위한 정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배 방식은 유럽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들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넘어 사람과 땅 모두를 자기들에게 복속시키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민간인의 한반도로의 이민이었다. 이른 바 식민이었다. 식민사업이 일본 정부에 의해 진행되기 전에 일본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이민도 있었다. 1876년 개항이후 일인 상인들의 개항장에서의 활동하며 세거지를 만들었고, 1883년 외인들의 도성 내 거주가 허락되면서 일인들이 남촌 일대에 집단으로 거주하며, 자신들의 거류지를 형성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인 민간인들의 거점은 경제적으로 기반을 구축한 상태여서 일본의 식민지배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고, 일인 거류민단의 경제기반은 빈약한 재정의 조선총독부에게 도움이 되는 한편으로 조선총독부의 행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는 식민지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군사도시였다.

군사도시의 등장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도발한 일본은 대외중립을 선언한 한국정부를 무시하고, 무력으로 한국정부를 압박하여 1904년 2월 23일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 혹은 영토 보존의 위험이 있을 경우 일본이 신속하게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한일의정서'를 체결한 후, 한국 내에서 자유롭게 군사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시작이 일본군의 서울파견이었다. 일본은 1904년 3월 10일에 한국주차군사령부와 예속부대를 편성하고 4월 3일 이들을 서울에 파견했다.

이때 파견된 일본군의 주요 역할의 하나가 러일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군용철도로서 경의선 부설이었다. 1904년 8월 13일에는 '한국주차군 근무령' 개정안에 의해 주차군사령부[1]가 확대 편

성되었으며, 이때 주차군의 역할을 '군사령관은 천황에 직예하고 한국에 주차하는 제 부대를 통독(統督, 모두 관할하여 감독함)하여 제국 공사관, 영사관 및 거류민의 보호에 임하며, 또 군대 주둔 지방의 안녕을 유지한다'고 규정되었다. 이후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사령관으로 부임하였다. 하세가와는 한국의 식민지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강제병합 후 서울 거리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 일제강점기에 현 소공로가 하세가와초(長谷川町)로 불렸다.

1910년에 한국이 강제 병합된 뒤에 조선총독은 육해군 현역 대장인 무관만을 임용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한반도지배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서울의 도성에 주둔한 일본군 현황에 대해서는 1907년에 발행된 최신경성전도에 잘 나타나 있다. 지도에서는 일장기가 도심 곳곳에 표시되어 있고, 군부대로는 현 한옥마을에 한국주차군사령부(일본군 표현)가 위치했으며, 하세가와가 머물고 있던 대관정 맞은편에 보병 제16연대, 현 외환은행 자리에는 헌병대가, 종묘 동측에는 보병 제59연대 제1대대와 3대대 그리고 친위 제1대대가, 남대문시장에는 보병 제51연대가 주둔했었다.

이후 일본군은 러일전쟁후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바탕으로 서울과 평양 및 의주를 비롯하여 진해만과 영흥만 일대의 땅을 병영 건설을 위해 수용했다. 서울의 용산 일대 300만평의 토지가 수용되어 병영이 건설되었으며, 부산의 가덕도에도 진해만 요새 건설을 위한 군사시설이 건설되었다.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는 한반도 지배는 근대도시와 건축의 모습에 병영도시의 모습을 만들었다. 서울에는 최초의 신시가지였던 용산이 병영신시가지였으며, 38선 이남에는 진해, 38선 이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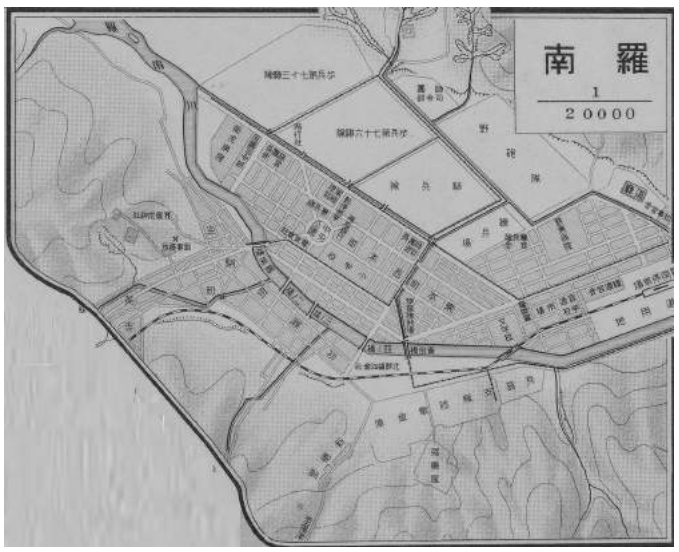


그림 1. 나남시가지, 1924 조선교통지도

그림 2. 용산시가도, 1924 조선교통지도

에는 나남이 군사도시로 새롭게 탄생되었다. 새로 건설된 군사도시의 경우 지형조건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격자형 가로체계에 방사형도로망을 기본으로 구성되었다. 이밖에 지방의 관청 곳곳에는 수비대라는 이름의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식민지배를 위해 체제를 강제했다. 수비대는 병영건물을 짓기 전에 대한제국기의 관청 건물을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3. 원주수비대

그림 4. 전주수비대

수도의 소멸과 지방관청의 개편

1910년 10월 1일 한국통감부를 계승한 조선총독부가 출범하면서, '조선(朝鮮)'에 이어 '한(韓)'의 수도였던 서울의 위상이 경기도의 일개 도시로 격하되었다. 그 결과 서울 한복판에는 경기도청(의정부 터)이 세워졌고, 통감부시절에 경성이사청은

그림 5. 조선총독부 휘장

1) 주차군이라는 명칭은 일본이 강압이 아니라 한일의정서에 의해 합법적으로 외교적인 행위로 한국에 주둔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주차(駐箚)'란 외교사절로 외국에 머물러 있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차군이라는 명칭의 사용은 러일전쟁기에 강압으로 체결된 '한일의정서'에 기초한 것이다.

그림 6. 경성신사 전경

그림 7. 동본원사

경성부청이 되었다. 지방의 각 이사청도 부청으로 바뀌었다.

식민지하에서 경기도의 일개 도시로 전락한 서울에서 식민통치의 중심은 남산이었다. 이는 대한제국기에 한국정부와 마주하는 남산의 북측산록에 건축되었던 통감부를 조선총독부가 이어서 사용했기 때문이다. 남산의 총독부 주변에는 일인들이 일찍이 자리 잡으면서 거류지를 형성하고 있었던 탓에 주변에는 경성신사와 동본원사가 인접해 있었다. 식민지배를 위해 각종 관청은 대한제국기에 행정기관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이어서 조선 16도의 관찰사는 도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12년부터 도지사로 바뀌었다. 동시에 지방의 관찰사는 도청이 되었다. 지방의 행정중심지에도 식민지배를 위한 행정관청들이 들어서면서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에 지방행정기구는 식민지배를 위한 기관으로 대체되었다. 식민지배를 위한 관청은 대부분의 경우는 대한제국기 행정기관을 사용하거나 행정기관의 입지에 지어졌다. 서울의 경우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중요시설은 새로 건축되었지만, 서울과 달리 지방의 경우 대부분 옛 전통건축형식의 관공서였던 관찰부나 객사 등 공공시설이 식민지하에서 오랫동안 식민지 관청으로 전용되었다. 전국의 주요 지역은 근대 교통시설인 철도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림 8. 1910년 이후 총독부로 이어진 통감부

그림 9. 내부에서 경기도청으로 용도 변경됨

그림 10. 경성부청으로 바뀐 경성이사청

그림 11. 부산의 이사청은 1910년 이후 부산부청이 되었다.

식민지 도시경영의 인프라, 철도

1904년에 러일전쟁 당시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군용철도감부에 의해 건축되기 시작한 경의철도가 1906년에 완공되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철도는 식민지 침략과 수탈의 상징으로 깊이 각인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로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철도는 건설 목적이 경의철도나 경부철도와는 달리 개화의 상징이자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였었다. 서울의 서대문과 인천의 제물포를 연결하는 경인철도는 대한제국의 의지로 서구의 문물을 도입하기 위해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97년 3월 22일에 시작된 경인철도공사가 건설과정에서 건설비를 마련하지 못해 일본의 경인철도합자회사에게 철도부설권이 넘어갔다. 이후 한국이 일제에 강점되면서 경인철도의 역할이 상실되었다.

이에 반해 경의철도는 고종이 1896년 프랑스회사 Fives Lile와 1899년 대한철도회사에게 건설을 맡겼다가 건설에 진척이 없자 1900년에 정부기관인 내장원[2]에 서부철도국을 설치하고 직접 건설을 시작했다. 그러나 1904년 2월 8일과 2월 9일 일본의 여순항과 제물포항의 러시아군함을 습격하면서 시작된 러일

2) 내장원은 1895년 왕실의 보물, 세전, 장원 등의 재산을 관리하던 내장사로 시작되었으나, 대한제국 출범 후인 1899년 내장으로 명칭을 바꾼후 황권 강화를 뒷받침하는 중심기관이 되었다. 내장원은 국고수입의 10~20%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었다. 경의철도 건설을 위한 서부철도국을 내장원에 설치한 것은 고종황제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금력을 지녔던 내장원의 존재로 가능했다.

전쟁으로 일본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일본군 임시군용철도감부에 경의철도가 완성되어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었다. 1905년에 평양에서 신의주구간이 완공되었고, 1906년에 청천강과 대동강 철교가 준공됨에 따라 전구간이 개통되었다. 경의철도가 건설중이던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강화조약에 의해 러일전쟁이 일본 측의 승리로 종전되었다.

경부철도 건설도 경의철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부철도는 일본이 자국의 명운을 걸고 대한제국으로부터 부설권을 가졌던 미국으로부터 부설권을 구입하였다. 1901년 6월 일본은 경부철도주식회사를 세우가 같은 해 8월 21일에 영등포(경기도)와 초량(부산)에서 각각 착공식을 거행했다.

경부철도주식회사 자본금의 4분의1이 일본 정부 것이었다고 한다. 당시 경부철도 사장이었던 시부사와 에이이치는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 불린다. 그는 '경부선이 조선에서 일본의 유일한 맥관이자 사활의 기관'이라고 하며 황족에서 농민에 이르는 일본인들에게 주식을 사서 애국하라고 독려할 정도로 경부철도에 거는 기대가 컸다.

결국과적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경부철도는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하는 루트가 되었고 서울에서 의주로 연결되는 경의철도는 중국을 침략하는 루트가 되었으며, 1910년 이후 한반도 각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은 두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었다. 그리고 새롭게 열차망이 연결된 곳에는 기차역을 중심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되었는데, 신시가지는 일인들의 거주지가 되었으며, 도시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 원시가지와 구별되기 시작했다. 한편, 철도는 반드시 바닷가로 연결되었는데, 바닷가로 연결된 철도는 육지에서 생산된 쌀과 면화가 일본으로 반출되는 항구로 연결되었고, 동시에 일본에서 생산된 공산품이 한반도로 유입되는 통로이기도 했다.

식민작업도 본격화되었다. 이주농촌 조성과 이주어촌 조성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민(植民)사업

일본은 명치유신이후 자국민의 해외 이주를 적극 도모하였다. 조선이 개항한 이후 많은 수의 일인들이 상업 활동이나 제각각의 목적으로 가지고 각자 한반도로 이주해왔지만 1910년 이후에는 동양척식회사에 의해 조직적인 식민(植民)이 이루어졌다.

일본인의 한반도로의 이동은 크게 3가지 경로로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이동은 개항이후 상인들의 이동이었다. 처음에는 개항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일인 상인들이 외인들의 도성 내 거주가 허락되면서 도성 안의 남촌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거류민단을 형성하며, 세력화되었다. 1910년 이전에 이루어진 이와 같은 이동은 일본정부의 식민사업과는 무관한 개별적인 행위의 결과였다.

그러나 1905년 을사늑약이후의 일인들의 이동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관료의 이동과 농민 그리고 어민의 이동이었다. 이들 일인들의 이동은 식민사업의 일환이었다.

을사늑약 체결후 통감부에 근무할 일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장기적인 식민지 관료의 서울 이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1910년 이후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도시에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일식가옥들이 지어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동양척식회사에 의한 식민사업이 행해졌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제가 조선의 경제 독점과 토지 자원의 수탈을 위해 세운 국책회사다. 영국의 동인도회사를 모델로 1908년 제정된 동양척식회사법에 의해 세워졌으며, 1909년 1월부터 한국에서 활동을 개시하였다. 출범 당시에는 한국과 일본 양쪽 국적의 회사였으나, 1917년에 본점을 도쿄로 옮기면서 일본 국적의 회사가 되었다.

농업 토지의 매매, 임차, 경영, 관리 및 건축물의 건설과 매매, 대차 그리고 일본 소작인들의 한국으로의 이민을 지원하는 동척농업이민계획을 펼쳤다.[3)]

동척은 이주사업을 위해 1910년 이주규칙을 제정하고 1911년 제1회 이민을 시작으로 1927년까지 총 17차례의 이민사업을 실시했다. 17년에 걸쳐 약 5,910호만이 정착에 성공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의 '종전연락중앙사무국'이 파악한 패전 직후 한반도의 일본인이 총 977,972명[4)]에 달했으며 이중에서 38선 이남에 596,454명, 이북지역에 322,585명이 귀환했다고 한다.[5)] 이와 같은 숫자는 동척의 이민사업의 성과인 5,910호와 큰

그림 12. 개성 부근 일인 이주 농민의 농사짓는 모습

3) 위키백과
4) 1944년 5월 조선총독부 인구조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거주했던 일본인의 숫자가 712,583명으로 파악되며, 일본 외무성이 파악한 일인 숫자와 30만명 가까운 차이가 난다. 이는 일본 외무성이 파악한 인구에는 중국과 만주 등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귀국하는 인구가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5) 최영호,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귀환과정에서 나타난 식민지지배에 관한 인식, 동북아역사논통 21호

그림 13. 서울근교인 뚝섬에 형성된 일인 이주농촌의 소학교 모습

차이가 있다. 이는 동척에 의한 이주사업보다, 자발적인 한국으로의 이주나 다른 경로로의 이주가 훨씬 활발했음을 보여준다.[6)]

동척의 지원을 받은 일인 농민들은 이주농촌을 건설하였고, 어민들은 이주어촌을 건설하였다. 동척이 이주사업만 벌인 것은 아니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조선식산은행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조선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1917년까지는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한 일본인 이주, 농업경영, 토지경영, 토지개량, 임업경영이 주력 사업으로 1930년대 이전까지는 금융 사업을 확장하면서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했지만 1930년대 이후에는 광업 부분으로 사업영역이 확장되었으며,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 공업을 지원했다.

중국침략과 병참기지화 속 공업화가 가져온 도시와 건축의 변화

일본이 1931년 만주사변을 빌미로 괴뢰정부인 만주국을 세우고, 1937년에 중국침략을 본격화하면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고, 이는 한반도를 중국침략의 중간 거점을 삼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자신들의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메울 수 있도록 한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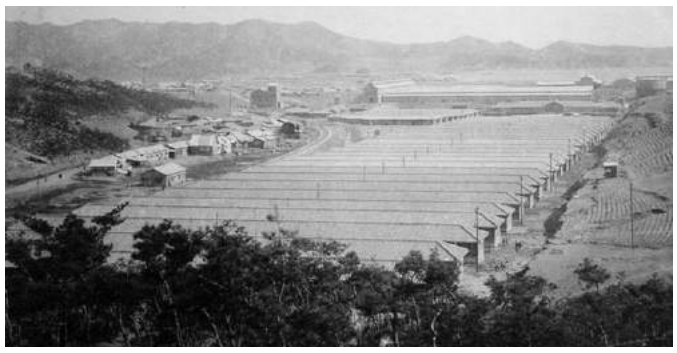


그림 14. 흥남질소비료공장의 사택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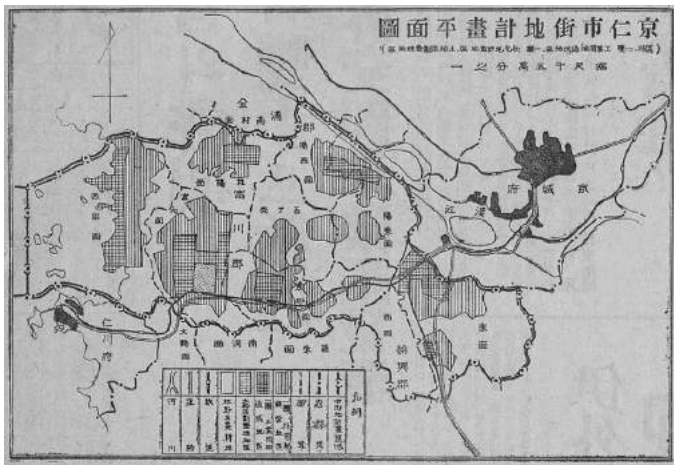


그림 15. 매일신보 1939년 10월 3일

를 쌀 생산기지로 만들었지만, 침략 욕심은 한반도 정책을 바꿔놓았다. 이른바 병참기지화 속 공업화정책이 실시된 것이다.

이로 인해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전력생산에 유리한 북한 지역의 도시가 공업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함흥, 흥남, 원산, 청진, 원산 등이 공업도시로 빠르게 성장했다. 남한지역은 여전히 농업생산이 중심이었지만, 중국 내륙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인천의 지정학적 입지가 중요해졌고, 인천이 다시 일본 제국주의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영등포와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공업지구의 성장이었다. 〈그림 15〉는 매일신보에 '경인일체의 대비약 경성근교의 도시화'라는 제목의 시가에 등장하는 지도다. 빠르게 성장하는 경인공업지역으로 인해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중간지대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머지 않아 서울과 인천이 하나의 도시권역으로 묶일 것이 예상된다는 기사다. 일본의 전쟁수행이 한반도의 도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본이 벌인 대륙침략전쟁은 전국적인 도시의 성장세를 바꿨고, 도시의 모습을 바꿔놓았다. 산업혁명없이 근대사회에 입문했던 한국의 입장에서 병참기지화 속의 산업화는 처음으로 유럽국가들이 산업혁명으로 겪었던 주택문제와 공해 문제 등의 초보적인 형태를 경험하면서 공업이 도시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험을 갖게되었다.

위와같은 식민지배시스템의 구축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인 중심의 한반도 변화의 대척점에 피지배자인 한인들의 삶을 담는 건축과 도시가 있다.

지금까지 양식적으로 빼어난 모습을 갖춘 건축물 중심의 시선 속에 묻혀있던 식민지배체제의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이 땅의 도시와 건축의 모습을 다음 호부터 하나 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6) 경기도 197,929명, 경상북도 97,345명, 함경북도 74,190명, 함경남도 69,110명, 평안남도 50,715명, 경상북도 42,055명, 전라남도 41,954명, 전라북도 33,068명, 평안북도 27,265명, 충청남도 25,829명, 황해도 25,095명, 강원도 19,386명, 충청북도 8,642명 森田芳夫, 1964 최영호 글에서 재인용

협회소식

제10회 이사회

2013년도 제10회 이사회가 지난 10월 16일 오후 2시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건축사공제조합 별도법인 설립의 건과 부의안건으로 건축사회 교부금 지원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공제조합 별도법인 설립의 건

–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제조합이 별도 법인으로 가는 것은 타당하나, 회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TFT팀을 구성하여 건축사공제조합의 법인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나 보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12월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함.

– TFT 위원은 회장과 감사가 협의하여 구성

☞ TFT 구성('13.10.24) 완료 : 제1회 TFT('13.11.7(목), 14시) 개최

구 분	성 명	사 무 소	비 고
위원장	배기업	명신 건축사사무소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위 원	김득수	종합건축사사무소 S.S.P. 삼대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김종오	연희 건축사사무소	강원도건축사회 회장
	신우식	(주)예가 건축사사무소	건축사공제조합 운영위원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건축사회 교부금 지원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지원예산 : 60,000,000원

▷ 배분방법 : 2012년도 지원금과 동일하게 배분

위원회 개최 현황

■ 제3회 녹색건축소위원회

제3회 녹색건축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녹색건축전문가 관련 연구 발주 타당성에 관한 건

–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 음 –

1) 연구목적 : 녹색건축전문가제도에 협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방향 및 전략 설정

2) 연구자 : 이기완 부위원장 외 1~2인

3) 연구방법 : 해외의 녹색건축인증제도 운영사례 및 국내 동향 파악을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부분 탐색

• 제2호 : 기타의 건

– 에너지평가사 관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에 관한 건 에너지평가사의 정의 및 업무범위 등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에 규정될 예정인바, 각 위원이 초안을 사무처에 이메일로 보내주기로 하고, 이를 이기완 팀장이 최종 정리하여 위원회(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제3회 녹색건축위원회

제3회 녹색건축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물 유지관리법 제정(안)에 관한 건

– 녹색건축소위원회(유지관리팀)에서 건설기술연구원의 유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조문별 수정(안)을 마련하여 11월 중에 건설기술연구원에 전달하기로 함.

• 제2호 : 유지관리 점검 평가제도 관련 건축법령 개정(안)에 관한 건

– 소위원회(유지관리팀)에서 평가제도의 목적, 평가대상, 시기, 평가기준에 대해 검토하여 의견을 마련하고, 11월 중에 국토부에 전달하기로 함.

■ 제2회 법제소위원회

제2회 법제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에 관한 건

– 서울시건축사회와 백민석 법제전문위원의 의견을 정리하여 협회의견으로 제출하기로 함.

1) 경관심의 대상에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환경기초시설과 발전시설 등 포함.

2)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는 경우 경관심의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함.

3)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경관심의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함.

4)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을 구성시 '건축사'를 포함.

• 제2호 : (국회사무처) 법률 제 · 개정의견 요청에 관한 건

–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 법률 제 · 개정의견 수렴은 1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해 정기적으로 법률 제 · 개정 의견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키로 함.

☞ '13. 10. 16. 국회사무처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과 유선연락
내용 : 법률 제 · 개정의견 수렴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안임을 확인. 법률 제 · 개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향후 의견을 개진하기로 함.

– 협회 홈페이지 또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회원의 법률 제 · 개정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줄 것을 건의.

• 제3호 :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관한 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 개정안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나 화장실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국가적인 예산낭비와 국민재산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법의 적용대상은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설로 한정하여 적용을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역 · 치하철, 극장, 영화관, 체육시설, 예식장 등

▷ 법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건의키로 함

· 설계 중인 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변경 등의 검토 시간이 필요함.

▷ 개정안 부칙 제3조(이미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 을 '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필요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계획' 으로 수정을 건의하기로 함.

· 이용실태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기준에 맞게 바꾸는 것은 국가 예산낭비와 국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 국민의 생명과 재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고층 건축물의 경우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 스프링클러 등의 피난을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재난 · 재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런 시설이 없는 경우에만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11층 이상의 층에 피난기구(완강기 등)를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완강기 등의 설치는 오히려 위험이 증가될 우려가 있음.

▷ 개정안 제9조제1항의 '피난기구'를 '피난기구 또는 소방시설 등'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피난기구'보다 더 안전한 기준인 '소방시설 등'으로 화재와 재난 · 재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음.

• 제4호 : 전자정부 3.0에 따른 건축설계도서 저작권 검토에 관한 건

– 전자정부 3.0에 따른 건축설계도서 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키로 함.

▷ 건축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은 원자작인 건축사에게 있음을 고지키로 함.

▷ 건축사가 세움터에 제출하는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인 · 허가를 위한 확인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임. 건축설계도서를 정부가 공개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토록 제출한 것이 아님.

▷ 따라서 정부가 건축설계도서를 보관의 차원에서 벗어나 인 · 허가 확인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제1회 경관법 TF

제1회 경관법 TF 회의가 지난 11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물의 경관심의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의 건

– 규제완화 및 국민의 편익 · 재산보호를 위하여 업무가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 및 단순화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함.

– 경관계획 수립 등 경관 업무에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축사협회에서 지자체의 경관기본계획 등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여야 함.

– 경관심의위원으로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건축사회에서 인력 풀을 운영하여 지자체에 추천 및 건의를 해야 함.

– 경관관련 업무에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축사 교육을 해야 함.

– 건축사협회가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경관 가이드라인 ·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회원 및 지자체에 제공하여야 함.

■ 제6회 사업위원회

제6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KAFF 2013 개최준비 최종 점검의 건

– 개막식 : 2013. 10. 23(수) 오후 2시 Coex 1층 A홀 로비

– 녹색건축한마당(10. 25) 시상식 후 장관동선 확인

– 참관객 유치를 높이기 위한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에 광고 2회씩 추가로 진행키로 함.

■ 제2회 협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회 협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권고서 발송의 건
  - 차기 회의에서 두 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권고서 및 출석요청서를 10월 21일 등기로 발송키로 하고, 합의서 초안을 붙임과 작성함.
    ▷차기회의는 10월 30일(수) 10시 개최
- 제2호 : 협회 기밀성 경비 예산집행 개선방안의 건
  - 개선방안에 대해 위원들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감사관련 등 협회 제규정 개정 방향의 건
  - 개선방향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타 단체(대한변호사협회 등) 감사규정 등을 준비하여 차기 회의 시 다시 논의키로 함.

■ 제3회 협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회 협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3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감사규정 개정의 건
  - 오동욱, 이무열 위원이 검토한 감사규정 전면개정(안) 중 수시감사 명칭 변경여부에 대해서만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동의함.
- 제2호 : 윤리규약 개정의 건
  - 오동욱 위원이 작성한 윤리규약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함.
- 제3호 :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오동욱, 이무열 위원이 검토한 윤리위원회 규정 중 회원징계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함.
  - 현직 임원을 총회에서 불신임 하는 것이 아닌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처분으로 현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가능한지 자문변호사에게 질의토록 하고, 답변내용을 토대로 오동욱 위원이 정관개정 내용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 시 논의하기로 함.

■ 제4회 협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회 협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합의서 작성의 건
  - 협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당사자간에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기로 붙임과 같이 서명 · 날인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기로 함.

■ 제6회 국제위원회

제6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4년도 국제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건
  - 예산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논의토록 하여 예산조정 시 반영토록 함.
    ▷2014 예산에 대한 표준안, 대안을 부회장, 위원장과 논의 후 준비토록 함
  - ARCASIA Zone C 단체장 회의는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최 시 진행하기로 함.
  - MOU / Working Plan 대해서는 각 담당 위원들이 주도하여 진행토록 함.
    ▷MOU 등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 있고 목표가 분명한 방향으로 진행토록 함.
- 제2호 : 제48회 정기총회 해외단체장 초청에 관한 건
  - JFABEA 회장 초청 진행토록 함.
    ▷구두로 초청 수락 ,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 표현
  - AIA 회장 초청 진행토록 함.
    ▷추후, KIA와 KIRA의 초대가 중복되지 않도록 FIKA 내에서 조율하는 방안을 제안함.
- 제3호 : AIA 국제위원회 및 AIA New York Chapter 순회전시에 관한 건
  - 개최 진행을 검토하도록 함.
  - 담당위원을 강승우 위원으로 선임하고, 담당위원이 검토 후, 심재호 부회장, 국제위원장과 협의토록 함.
  - AIA 회장 초청 시점과 연계하여 행사를 개최하도록 검토함(세미나 등 제반행사 개최를 제안).
- 제4호 : 국제교류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건
  - 국제위원회 워크샵 건의 등

▲기타사항

- AA(Architecture ASIA) 작품선정에 관한 사항
  - 원안대로 진행토록 함.

■ 제6회 회장직선제연구 TF

제6회 회장직선제연구 TF 회의가 지난 10월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 및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 협의의 건
  - 정관 및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이사 및 감사선출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주요 사안별로 심의하여 잠정 확정하고, 차기 회의 전까지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보완하여 최종 확정키로 함.

– 회장직선제연구TF의 정관개정(안) 등은 이사회와 시도회장회의, 회원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 후, 보완하여 총회에 제출키로 함.

■ 제7회 회장직선제연구 TF

제7회 회장직선제연구 TF 회의가 지난 10월 3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 및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 협의의 건

– 정관 개정(안)을 조문별로 검토하여 일부 자구수정하고,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과 이사 및 감사선출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원안대로 합의하여 회장직선제연구TF 회의안을 확정함.

– 금일 결정된 회장직선제연구TF 회의안은 이사회와 시도회장회의 협의 및 회원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보완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2회 기획위원회

제2회 기획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3년도 수지결산안 심의와 '14년도 사업계획 예산안 편성을 위한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함.

구 분	인 원	성 명
소위원장	1인	신우식
위 원	4인	공정섭, 박운천, 오종수, 이기상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의는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위원 구성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건축사회 회장과 지역대표로 구성키로 함.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에 건축사회 회장을 대표하여 김인철 위원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기건축사회의 바쁜 일정관계로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함.

• 제2호 : 2014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한 협의

– 2014년 예산안의 원활한 편성을 위해 추진일정을 협의하고, 일정계획에 맞춰 11월~12월에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심의키로 함. 아울러,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기획위원회를 1~2회 정도 개최하여 주요사항을 협의키로 함.

■ 제5회 주거복지위원회

제5회 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주거복지세미나 개최에 따른 세부계획(안) 의 건

– 위원별 각 업무분장을 통해 준비하며, 패널은 총 5~6명으로 섭외해서 토론 진행예정

▷세부계획(안)

· 일 시 : 2013. 11. 27(수) 14:00~17:00

· 장 소 :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 제2호 : 괭이부리마을 샘플하우스 및 기타 아이템별 제안서 검토

– 제4회 주거복지위원회 회의결과를 토대로 샘플하우스 및 기타 아이템별 제안도면 및 개선계획에 수정 및 보완

■ 제3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제3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발주처 · 인허가 문제로 인한 소송 및 피해에 관한 건

건축사 명	내 용	결과
황정화	관광호텔 사업승인신청에서 법적문제는 없으나, 주변에 관광지가 없다는 이유로 입지가 맞지 않아 불승인통보를 받음. 소송 고려 중	본인 포기 의사로 종결
송승용	전라남도 교육청이 발주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 부담인 지반조사비 부담요청, 설계변경 시 증액 불가, 감리비의 용역비 전가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음.	본인 포기 의사로 종결
정기호	보성군 문화회관 설계용역 설계 변경비에 대한 발주처의 부당한 행위	본인 포기 의사로 종결
김세정	발주처에서 계획 설계를 승인하지 아니하여 용역물 납품을 이행하지 못함. 이후 발주처는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보증을 청구하였고, 이에 서울보증보험이 구상권 청구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변호사에게 법리 검토 후 당사자에게 제출하고 추후 협의

• 제2호 : 기타사항

– 이주권 위원의 회원 의견수렴 보고서 건

▷본협회 회장님께 직접 보고(현장에서 구도보고 완료)

■ 제3회 대한민국 신인건축사대상 운영위원회

제3회 대한민국 신인건축사대상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대한민국 신인건축사대상」최종보고서 검토의 건

– 작품집에 운영 ·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이 누락되어 있음.

– CI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매우 바람직함.

– 최종보고서에 작성된 증액 예산보다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함.

• 제2호 : 향후 개선사항의 건
–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중점으로 논의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된 행사가 되도록 하기로 함.

■ 제5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제5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 실무교육 기관 및 과정 인정신청 공고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승인하고 추진키로 함.
▷추진일정
· 공 고 일 : '13. 10. 10(목)
· 접수기간 : '13. 10. 21(월) ~ 10. 31(목) 18:00까지
· 결과발표 : 11월말 ~ 12월초
• 제2호 : 등록건축사 취소에 따른 환불기준에 관한 건
– 환불기준은 '일부 환불을 원칙'으로 하고, 환불금액(비율)은 민법상 선례 등을 자문변호사에게 자문받아 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등록 승인 후 접수 취소자에 대해서는 전자결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중 일부금액을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환불금액(비율)은 민법상 선례 등을 협회 자문변호사에게 자문받아 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사 실무교육 연기신청 적용기준에 관한 건
– 등록건축사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기준대로 연간 이수시간 제한 규정만 적용하는 것으로 협의함.
▷해외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강의수강이 가능하며, 다른 국가기관(AIA, NCARB 등)에서도 인터넷교육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해외 장기체류라 하더라도 교육 이수시간을 면제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현행 기준대로 연간 이수시간 제한규정 사항만 적용함이 타당함.
▷다만, 윤리교육에 대한 수강문제는 추후 방안을 논의키로 함.
• 제4호 : 자기계발 인정항목 세부기준 마련에 관한 건
– '건축사 실무교육 자기계발 인정항목 세부기준'에 대하여 세부내용과 인정시간을 일부 수정하여 확정하고, 10월8일부터 적용키로 함.
▷자기계발 인정항목은 [붙임 1]과 같이 수정하여 승인하고 세부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함.
▷적용시점은 금일 회의일자인 10월 8일부터 적용하고 사무처에서 인정항목대로 처리하고 소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토록 함.
▷등록건축사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의 기준과 같이 건축관련 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분류코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L'항목으로 구분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함.
· 소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례를 취합하여 축적토록 함.
· 자기계발 신청 시 건축과 연관성이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함.
• 제5호 : 자기계발 인정에 관한 건
– 자기계발 인정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협의함.
가. 재인정신청 심의 : 조건부 인정
▷건축사자기계발 인정항목 분류상 '축구대회' 또는 '동호회' 행사만으로 인정하는 것은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재인정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사프로그램 중 '통영지역 문화 및 전통 · 현대건축물 답사' 또는 '우수건축자재 발굴 및 현장 체험으로 건축자재 지식 취득'의 내용으로 신청시 자기계발 인정 가능함.
나. 재심의 : 3건 모두 인정
▷협회 위원회 참여는 건축사법 및 관련법에 따라 정부위탁업무(건축사실적, 건축사시험, 경력관리, 등록업무)관련 위원회만 인정하고 기타 위원회는 인정하지 않기로 함.
▷자기계발 신청시 건축과 연관성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어려운 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키로 함.
다. 신규 인정심의 : 인정 8건, 불인정 2건
▷자기계발 세부항목에 따라 동일한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연간 1시간만 인정함.
▷추후 정부, 지자체 위원회 위원 활동사항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받아 사무처에서 처리하기로 함.
• 제6호 : 기타사항
□ 자기계발 추가인정
– 2013 한국건축문화대상 : 1시간 인정(참석자)
– 한국건축산업대전 2013 : 아래와 같이 인정
▷전시관람 : 전시기간 중 1시간만 인정
▷세 미 나 : 전체 세미나에 대해 1시간만 인정
▷건축자제추천제 심사위원 : 1시간만 인정

■ 제2회 건축사등록원 실무교육 소위원회

제2회 건축사등록원 실무교육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자기계발 인정심사의 건
– 자기계발 인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함.
가. 사무처 심사결과 검토 : 원안대로 승인
– 120건 (기관 23건, 개인 97건)
나. 재심사 대상 : 2건 모두 인정시간을 조정하여 승인
– VE WorkShop(박정균) 2시간, 연구용역보고서 제출(장성식) 3시간
다. 소위원회 심의 대상 : 아래와 같이 승인
– 31건(기관 2건, 개인 29건)
• 제2호 : 기타사항
– 건축사 실무교육 자기계발 인정항목 세부기준 적용
▷『건축사 실무교육 자기계발 인정항목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

어, 제3회 운영위원회의(2013년 6월 4일)에서 자기계발 5시간으로 인정한 3개 과정(건설VE전문가교육, 친환경건축설계양성과정, 한옥설계 전문인력양성과정)은 '13년도에 한해 5시간 적용하고 세부기준에 따라 '14년도부터는 최대 3시간만 인정

■ 제6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제6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 실무교육 기관 및 과정 인정심사에 관한 건
  - '14년도 건축사 실무교육과정 심사결과 총 86개 과정 중 승인 65개, 보완 21개로 심사하고, 건축사협회 건축사회 교육과정과 보완 21개 과정은 실무교육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최종 심의토록 위임함.

▲기타사항

1. 『건축사 실무교육 자기계발 인정항목 세부기준』추가 보완
   - 원안대로 세부내용 중 누락된 인정시간을 추가 보완하고, 등록원 홈페이지에 공지키로 함.

분류코드	인정항목	인정사항	세부내용	연간인정시간
J	건축관련 학술회의 활동	건축관련 · 국제 및 국내컨벤션, 심포지엄 등에서 강연, 발표, 토론 등	건축관련 단체 및 회사의 학술회, 컴퓨터 프로그램 강연, 신제품 및 공법설명회, 자격취득 및 유지 등을 위한 강의 및 수강 포함	· 강연 1시간 · 발표 1시간 · 토론 1시간 · **자격유지, 수강 최대 3시간**

2. 2014년도 건축사등록원운영위원회 추진 주요 사업계획 내용
   - 등록원 설립 당시 검토한 5개년, 10개년도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여 '14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12월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3. 등록원 담당위원 업무계획 제안
   - '14년도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소위원회별 업무계획을 12월 운영위원회 회의까지 제출키로 함.
   - 사무처에서는 각 소위원회 위원에게 해당 업무관련 자료를 메일로 송부
4. 기타사항
   - 건축사교육원에 교육과정 확인을 위해 운영자가 접근 가능한 부분의 웹페이지에 위원회 공용 ID 발급 협조 요청
   - 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장영인 등록실장을 간사로 지정하고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시 옵서버로 참석토록 함.
   - APEC등록건축사업무가 등록원으로 이관되었으나, 회계운영은 APEC등록건축사특별회계로 별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함.

■ 제7회 건축사교육원운영위원회

제7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4년도 사이버강좌 제작관련 사항 검토의 건
  - '14년도 사이버강좌의 제작과 관련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제작방향 등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하되, 사이버강좌 강사진 및 교육과정은 교육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적극적인 추천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교육원 교육 이행실적 검토의 건
  - 건축사교육원의 교육시행 및 결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제3호 : 2014년도 실무교육 시행계획 수립일정 검토의 건
  - 2014년도 실무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하되 등록원운영위원회와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함.

▲기타사항

- 교육원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협의함.
  - 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5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회의자료는 최소 2~3일전에 위원들에게 발송할 수 있도록 함.
  - 인의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위원장의 역할을 보조하고 위원장 부재 시 회의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운영 및 교육과 관련한 자료 발송 시 모든 위원들에게 동일하게 발송할 수 있도록 함.
  - 제2기 교육원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임위원들이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발송하기로 함.

■ 제8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제8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3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4년도 사이버강좌 제작관련 사항 검토의 건
  - 사이버강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2014년도 제작단가를 시간당 120만원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영상 품질 및 기능에 대한 업체의 의견을 듣고 업체선정은 입찰들 통해 하도록 함.
  - 또한 2014년도부터 사이버강좌의 강사료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기관의 수준에 맞추어 기본 수당(강사료 30만원 · 원고료 20만원 · 인세는 제한없이 5%)을 정하고, 추가 제작시간에 대해서도 시간당 20만원(최대2시간)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함.
- 제2호 : 동영상 콘텐츠 제작지침(안) 검토
  - 동영상 콘텐츠 제작지침(안)에 대해서는 교육분과 담당위원(인의식 · 이성엽 · 이장백 · 석정훈 위원)이 세부적으로 검토

후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 개선 검토
  –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재논의하기로 하되,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분리 및 맛보기 기능 추가 등 교육과정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기로 함.
  – 또한 2014년도 예산수립 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수립에 대해서는 예산분과 담당위원(강승우 · 김항년 위원, 김의중 부회장)이 검토하기로 함.
• 제4호 : 교육원 발전방향(안) 협의
  – 경기도건축사회에서 발송한 공문에 대해서는 "현재 동영상의 제작에 대해 교육원에서 자체 방침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교육원 설립에 투자한 차입금 등의 상환 및 제반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참조하여 회신하기로 하되 관련사항에 대해 차기 이사회에 보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 교육원 발전방향 설정 협의(안)에 대해서는 본협회와 지역건축사회의 역할정립,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우수성 확보, 정부기관과의 관계 정립 및 본협회의 위상 제고를 위한 방침마련 등을 기본 틀로 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아울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별로 담당위원을 정하기로 하고, 대외협력(김의중 부회장, 성낙기 위원), 국제 및 홍보(강승우 · 김항년 위원), 교육관련(인의식 · 이성엽 · 이장백 · 석정훈 위원), 예산검토(김의중 부회장, 강승우 · 김항년 위원) 등으로 구분함.

▲기타사항
• 2014년도 건축사실무교육 실시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 신청하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강좌에 대해서는 교육분과 담당위원들이 재검토 하기로 함.
• 교육비의 조정(비회원포함)에 대해서는 협회 예산 등을 고려해서 정책상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관련사항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함.
• 실무교육의 의무실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교육이수 현황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이수 결과를 신속히 등록하도록 업무처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제4회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위원회

제4회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한옥설계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건
  – 설계와 관련하여 11월 2일(토) 자체 중간평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함.
  – '2013년도 올해의 한옥 상' 공모전에 많은 수강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함.
• 제2호 : 교육과정 중간점검 및 설계평가 계획에 관한 건
  – 2013년도 한옥설계양성과정 총 166시간의 교육과정 중 10월 26일까지 119시간의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음.
  – 2013년도 설계작품 평가회 평가위원의 선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5인을 추천하기로 하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이강민 센터장, 강원대학교 박경립 교수, 원광대학교 홍승재 교수, 동양미래대학 박명덕 교수, 솔토건축사사무소 조남호 대표를 선정하고, 명지대학교 한옥양성과정 김왕직 운영위원 및 전통문화대학교 장헌덕 교수를 예비위원으로 선정함.
  – 평가위원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사협회장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함.
• 제3호 : 교육과정 변경에 관한 건
  – 2013년도 한옥설계양성과정의 교육과정 중 '해외답사 과정'에 대해서는 치목실습과정으로 국토교통부에 교육과정 변경신청을 하기로 하고, 당초 해외답사 과정 및 교재감수료로 편성된 예산을 치목실습과정의 실습비용 · 재료비 등으로 전용신청하기로 함.
• 제4호 : 대학생워크숍 실시에 관한 건
  – 대학생워크숍 실시와 관련하여 미회신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함.
  – 실측장소 및 담당강사를 성균관(조인숙 건축사), 창경궁(김철민 건축사), 운현궁(장순용 건축사), 남산골(나정윤 건축사)로 정하고, 건탁시범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함.
• 제5호 : 해외답사 실시에 관한 건
  – 해외답사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사무국 직원 1인의 동행을 요청함.

▲기타 협의사항
• 수료식 및 전시회는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함.
•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시상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참석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함.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 '2013 건설감리의 날' 참석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11월 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건설감리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행사는 책임감리 도입 20주년을 맞이해 감리제도 도입 이후 건설산업의 산업재해율 · 부실공사 감소 현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건설기술진흥법 전면 개정에 따른 설명회가 있었다.

건축계소식

초등학생용 건축교재, 「"꿈과 희망이 있는 세상" 건축 창의 체험」 발간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 개발에 착수, 3년여에 걸친 심도 있는 연구 등을 거쳐 초등학생용 기초 건축교육 교재인 「"꿈과 희망이 있는 세상" 건축 창의 체험」을 발간했다.

이번 교재 발간은 건축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학습 요소들을 발굴, 어려서부터 친근하게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사회 공공재인 건축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국토교통부의 기획 및 총괄 하에 대한건축사협회 및 대한건축학회가 교재의 연구와 집필을 맡았으며, 건축계 · 교육계 등 각계 40여 명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교재는 학생들을 위한 기본서와 교사들을 위한 지도서로 나누어 각각 개발 · 발간했다. 기본서의 주요 목차는 '1장_사람과 건축', '2장_건축과 조형', '3장_방 만들기', '4장_집과 생활', '5장_건물과 사회', '6장_마을과 도시 만들기' 총 6장으로 구성해 어린이들의 흥미유발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했다. 교사들을 위한 지도서는 기본서의 내용에 맞추어 자세한 보충설명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관련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본 교재의 사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인쇄본 구입을 원할 시에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9)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서울건축 가이드북', '서울건축 문화지도' 발간

서울시에서는 시내에 소재한 전통과 근대 그리고 현대 건축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서울건축 가이드북」과 「서울건축 문화지도」를 발간했다. 가이드북과 문화지도는 서울의 건축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미 있는 건축물들을 선정하여 소개하는 안내서와 투어 지도다.

서울시는 이번 발간을 통해 의미 있는 건축문화자산을 홍보하고 장소의 의미와 주제가 있는 투어 코스를 개발하여 건축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서울건축 가이드북」은 전통과 근대 그리고 현대 등 서울을 대표하는 총 380여개의 건축물을 선정하여 수록한 서울건축의 안내서로, 각 건축물들에 대한 설명을 시대별 · 자치구별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시대별 서울이야기를 통해 서울이라는 도시와 건축의 역사적 변화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건축 문화지도」에는 서울시의 의미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건축과 도시가 어떻게 어우러지며 우리의 삶을 담아내고 있는지 시민들이 직접 좇아가며 체험할 수 있도록 10개의 투어 코스(한양도성, 대학로, 테헤란로, 도시주거 등)를 개발하여 수록했다. 각 권마다 시간대별 답사 코스를 마련, 소요시간에 따라 원하는 코스를 선택해 둘러볼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서울건축 가이드북」과 「서울건축문화지도」는 각 구청 민원실, 서울시청 시민청 및 서울도서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향후 모든 시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 형태로의 제공이 추진 중이다. 또한, 2017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에서 서울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외국어판도 제작할 예정이다.

2013 BIM AWARDS 수상자 선정

BIM Awards 2013 심사결과 BIM Vision 부문에 부산항만공사, BIM Construction 부문에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BIM Design 부문에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BIM Green 부문에 한양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센터가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빌딩스마트협회는 국내 건설분야의 BIM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공공발주자, 건설사, 설계사, 엔지니어링사 등) 및 개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한국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BIM기술의 올바른 활용 및 확산을 장려하고자 BIM Awards를 시행하고 있다.

1차 심사에 이어 지난 10월 24일(목) 응모기관의 작품을 대상으로 2차 심화 평가를 실시해 부문별로 대상과 우수상을 결정했으며, 그 외의 응모작품들 중 BIM에 대한 모범적 사례로서의 수준을 충족하는 작품들을 Good Practice로 선정했다.

BIM Vision 부문에서 대상은 부산항만공사, BIM Construction 부문에서 대상은 삼성물산(주)건설부문, 우수상은 (주)포스코건설과 (주)동양구조안전기술이 선정되었다. BIM Design 부문에서 대상은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우수상은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었으며, BIM Green 부문에서는 한양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센터, BIM Implementation 부문에서 우수상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포스코건설, (주)석영시스템즈팀과 버츄얼빌더스(주)가 선정되었다. 또한,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는 시공 BIM으로 Best Interoperability로 선정됐다.

건축계 BIM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장시간에 걸친 평가와 토론에 의해 각 분야별 대상수상작품을 대부분 만장일치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BIM AWARDS의 시상식은 11월 26일 buildSMART Conference 2013 행사 중에 개최됐으며, 수상작품들은 Conference에서 전시됐다. 빌딩스마트협회 홈페이지의 웹 갤러리에서는 BIM AWARDS 수상작들을 상시 전시를 하고 있다.

신간안내

건축 없는 국가_이종건 비평집

이종건 저 / 198쪽 / 간향 미디어랩

우리 건축 사회에 속한 이들은 누구나 알고 느끼듯, 우리 건축의 문제는 늘 비평의 부재다. 비평 작업은 그리고 비평가로 사는 것은 고달프고 외로울 뿐이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이 건축비평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더 이상 '비판성criticality'이 작동할 수 없는 사회가 아닌지 모르겠다. 비평의 공급이 아니라 비평의 수요를 말하는 것이다. 건축에 대한, 오늘날의 건축에 대한, 오늘날 우리 건축에 대한 좀 더 나은 안목과 인식과 지식이 분명히 요구되는 곳에서마저, 비평은 늘 요청, 초대받지 못했다. 건축 사회에 비평의 의의를 환기시키고, 우리 건축의 상황과 미래를 그리는 이종건의 비평 세계에 독자 여러분을 초대한다.

도시축소의 시대

야하기 히로시 저, 서금홍, 오용식 역 / 202쪽 / 기문당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도 최근 20년간 인구 500만여 명이 증가했으나 오히려 수도권으로 집중돼 몇몇 공업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 · 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지혜로운 도시의 축소를 권장한 책이다. 저자는 국제 저널리스트로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 독일, 일본에서 분석한 흥미로운 15개 도시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더불어 인구감소의 홍역을 치르고 있는 지방도시들에게 각성과 현명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최고의 집을 만드는 공간배치의 교과서

사가와 아키라 저, 황선종 역 / 191쪽 / 더숲

이 책은 일본 주거건축의 대가 사가와 아키라가 공간배치에 대한 모든 것을 집약적으로 한 권에 정리한 결과물로써 출간 이후 48주간 줄곧 일본 아마존 주택건축 분야 1위를 차지하며 건축 분야 최고의 베스트셀러이자 필독서로 손꼽히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집의 공간배치에 관한 핵심적인 81가지 키포인트들을 명확한 표제로 하나하나 정리함으로써 실용성을 최대한 살렸다는 점이다. 또한 400여 점의 친근하면서도 따뜻한 일러스트를 통해 친절하게 설명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점인 '사적 공간이라는 집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시키면서 공간배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08-0400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927-0503 ·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평정태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남부지역건축사회/(043)543-9911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400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2-2084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장/(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1)285-7563~4**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광양지역건축사회/(061)726-6878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285-7563~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고성지역건축사회(055)673-0487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2-1301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62-6434 · 진해시건축사회/(055)547-4530 · 창녕시건축사회/(055)532-9913 · 창원시건축사회/(055)282-436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1 · 함안시건축사회/(055)585-85831 · 합천지역건축사회/(055)-933-293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김은미_Kim, Eunmee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깨끗한 공기

Fresh Air

상하이 스카이라인을 뒤덮은 공해

최근 중국 대도시로의 출장이 잦은 외국인들은 전문가급 휴대용 공기오염도 측정기를 지니고 다닌다고 한다.

중국내 체류 동안 그 기기에 모아진 데이터를 이 후 대기 속 미세 물질과 액체 방울인 '부유입자상 미세물질' 중심으로 분석해 본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크기가 머리카락 폭의 1/5 크기인 PM 10 레벨은 폐 속 조직에 끈적한 물질이 생겨 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호흡 곤란을 일으켜 악화 시킬 수 도 있다고 한다.

그 보다는 작은 PM 2.5일 때에는 앞서 언급한 증상들이 더욱 악화된다고 한다.

베이징의 거리는 일반적으로 위의 부유입자상 미세물질 문제가 제곱미터 당 500마이크로그램 정도 초과 하거나 또는 오염도 지수는 최고로 심각한 수치인 "위험한" 레벨이라고 전한다. PM 10 레벨의 한 거리의 심각성 정도는 담배피우는 바로 옆에 서 있는 정도에 비교되기도 했다.

중국의 끔찍한 공기 오염은 비밀이 아니다. 지난 1월 미국의 매체들의 헤드라인과 주요 공공 이슈는 베이징의 "air pocalypse"(대기 오염 대재앙의 의미)이 차지하였다.

우리가 이 거대한 문제를 주목해야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건축사에게 이러한 산업구조를 조절할 만한 직접적 힘은 없지만,
매일 매일의 도시 공간 환경 내에서 꾸준히 문제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중국의 대기 상태 지수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아이폰 앱으로 출시되기도 하였다.(이 프로그램의 사용자 후기에는 '외부에서 운동을 해도 되는 상태인지를 신중히 결정 할 수 있게 해 주는 훌륭한 프로그램' 이라는 극찬을 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거대화 되어가는 인도와 중동의 도심의 경우도 중국과 비슷한 상황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 분석은 우리에게 다른 방향을 보여 주고 있기도 했다. 그것은 통제된 환경 즉, 비행기 내부, 창문을 닫은 베이징 택시 내부, 그리고 신축된 오피스 타워 등의 공간 환경에서는 공기의 상태가 어떤 경우에는 최상의 상태로까지 극적으로 좋아진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자료 분석 결과는 내부 공간의 공기의 품질은 디자인적인 도전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말 하고 있기도 하다. 이 자료를 분석한 한 건축 공학자는 이렇게 전하기도 했다. "다른 시선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도시를 볼 수 있다. 즉, 건물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펫 마감이 된 바닥은 대나무 바닥보다 부유입자상 미세물질 문제를 일으킨다. 하지만, 이 차이는 바닥 레벨에서 1.8미터 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고도 차이의 해법은 특정한 오염 물질의 농도를 줄여 주기도 하지만 꾸준한 수치로 입증 되지는 않았다.

일반적 환경에서 이 문제를 위한 광범위한 해법은 하나의 빌딩 스케일을 넘어서는 규모이며, 계속적으로 커지는 도시화의 세계에서 도시 공간 환경에서 공기의 품질을 조절하는 분야는 디자인의 개척 분야 일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건물 내부 공기의 품질은 종종 최소 법규 준수 사항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해법은 그 어떤 인테리어의 멋진 장식에 비견 될 수 없을 만큼 훌륭함을 입증하고 있다.

일례로 141 제곱미터 면적의 벽을 녹화시킨 에드먼튼 국제공항은 생활 설치 예술이라고 하는 32 종류의 식물들이 쾌적한 습도와 공기를 제공한다.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드렉셀 대학은 약 8미터×24미터로 미국 내 최고 면적인 "바이오 월"을 자랑한다. 이 바이오 월의 식생은 활발히 건물의 공기 조절 시스템과 연동 된다.

화려하게 주목받지는 못하나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디자인적인 중재들도 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실내 공기 품질을 향상 시키는 저단위 유기화합물(low-VOC) 재료와 효율적인 공조 시스템의 확산 등이 있다.

또한 단편적인 접근들을 넘어서는 대체 표준척도의 시도도 있다. 패시브 하우스와 리빙 빌딩 디자인 챌린지 스탠다드 등 두 가지 방법들 모두 디자인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며 실내 공기의 품질을 조절하는 면에도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

전혀 놀랍지 않게도, 중국내 부유입자상 미세물질의 최고 농도가 발생 되는 지역은 동쪽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화석 연료 연소가 부유입자상 물질 공해의 궁극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거대한 문제를 주목해야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건축사에게 이러한 산업구조를 조절할 만한 직접적 힘은 없지만, 매일 매일의 도시 공간 환경 내에서 꾸준히 문제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3년 10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6,112	6,112	84	168	8	27	6,204	6,307	1,767	1,767	233	466	62	186	26	104	13	88	2,101	2,611	8,305	8,918
서울	958	958	20	40	1	6	979	1,004	889	889	122	244	44	132	12	48	9	54	1,076	1,367	2,055	2,371
부산	529	529	9	18	2	6	540	553	118	118	29	58	1	3	2	8	1	7	151	194	691	747
대구	522	522	18	36	4	12	544	570	72	72	14	28	4	12	2	8	0	0	92	120	636	690
인천	288	288	3	6	0	0	291	294	64	64	7	14	1	3	0	0	0	0	72	81	363	375
광주	222	222	1	2	0	0	223	224	42	42	6	12	2	6	3	12	0	0	53	72	276	296
대전	268	268	6	12	0	0	274	280	33	33	7	14	4	12	1	4	1	12	46	75	320	355
울산	199	199	4	8	0	0	203	207	21	21	3	6	0	0	0	0	0	0	24	27	227	234
경기	860	860	2	4	0	0	862	864	254	254	16	32	3	9	2	8	0	0	275	303	1,137	1,167
강원	200	200	2	4	0	0	202	204	25	25	2	4	0	0	1	4	0	0	28	33	230	237
충북	227	227	2	4	0	0	229	231	41	41	3	6	2	6	2	8	1	9	49	70	278	301
충남	299	299	1	2	0	0	300	301	61	61	6	12	0	0	1	4	0	0	68	77	368	378
전북	270	270	5	10	0	0	275	280	29	29	4	8	1	3	0	0	0	0	34	40	309	320
전남	215	215	0	0	0	0	215	215	25	25	2	4	0	0	0	0	1	6	28	35	243	250
경북	420	420	4	8	1	3	425	431	39	39	5	10	0	0	0	0	0	0	44	49	469	480
경남	495	495	6	12	0	0	501	507	37	37	5	10	0	0	0	0	0	0	42	47	543	554
제주	140	140	1	2	0	0	141	142	17	17	2	4	0	0	0	0	0	0	19	21	160	163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건축사	비율
합계	8,918	100%
서울	2,371	26.58%
부산	747	8.37%
대구	690	7.73%
인천	375	4.20%
광주	296	3.30%
대전	355	3.98%
울산	234	2.62%
경기	1,167	13.08%
강원	237	2.65%
충북	301	3.37%
충남	378	4.23%
전북	320	3.58%
전남	250	2.80%
경북	480	5.38%
경남	554	6.21%
제주	163	1.82%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2013년 11월중순

구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11,792	2,166
서울	3,778	1,484
부산	748	73
대구	674	44
인천	373	6
광주	301	41
대전	359	40
울산	233	26
경기	1,415	89
강원	256	14
충북	321	60
충남	375	51
전북	339	22
전남	279	52
경북	485	23
경남	586	35
제주	165	25
기타	1,105	81
비고	회원 : 8,718 / 비회원 : 3,074	대학 : 1,961 / 대학원 : 205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6,307	2,611	8,918	
비율	70.72%	29.28%	100%	
사무소수	6,204	2,101	8,305	
비율	74.70%	25.30%	100%	